



4

198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4호

(루게 414)



◆◆◆◆◆◆◆◆◆◆

## 차 례

◆◆◆◆◆◆◆◆◆◆

인민은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	4
<b>김일성</b> 동지, 그이는 백전백승하시는 세계혁명의 수령 .....	5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문학의 최고의 영예이며 자랑이다 .....	6
만경대의 봄빛은 영원하여라 .....	12
1912년 4월 15일 .....	13
영원히 주체의 태양을 우러러 .....	14
백두산아, 네 기슭에 들어서니... ..	16
진리의 탐구 .....	17
창광거리에서 .....	31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6월 4일문학상》이 나왔다 .....	32
천암산 .....	33

만경대 .....	45
인민과 재능 .....	46
꽃피는 봄명절 .....	49
푸른 잎사귀 .....	50
처음 뵈웁던 날 .....	58
사랑하노라 나의 수도여 .....	60
화불이 솟구치는 탑을 바라보며 .....	61
행복에 대한 답시 .....	63
빛나는 삶은 .....	64
개선문 .....	65
인민들은 길이 모시리 .....	66
산 넘고 바다 건너 이 노래 들려온다 .....	67
광장에서 광장으로 .....	71
남녘의 축원 .....	72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이 강산에 메아리치는 격동적인 이야기 .....	73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	78

## 인민은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송남

천만송이 꽃들이  
강산에 피어나고  
축원의 한마음  
환희의 꽃바다로 물결치는  
4월의 이 아침

집집의 창문들이  
조용히 열립니다  
푸릿한 새벽빛속에  
평양의 하늘가로 향해가는  
인민의 한마음  
4월의 봄바람 되어  
행복의 노래가 되어 울려잡니다

달려가는 마음과 마음 속에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4월의 봄빛은 따사롭고  
새움트는 산과 들엔  
인민의 기쁨이 망울을 터칩니다

아, 인류의 봄  
만경대의 4월은  
인민의 마음속에 깃든  
환희의 물결 환희의 꽃바다  
티없이 맑은 그 웃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꾸신  
조선의 행복  
조선의 영광

인민의 그 행복  
만경봉에 비꼰던  
아름다운 무지개에 뿌리를 내렸고  
조선의 그 영광  
위대한 수령님 헤쳐오신  
폭풍 만리 눈보라 만리  
백두의 천지우에 눈부십니다

이 땅에 흘러온 해와 달은  
4월의 해빛아래 꽃피난  
인민의 기쁨 인민의 웃음  
수령님 밟으신 조선의 산과 들은  
인민의 기쁨 인민의 그 웃음을 가꾸신  
락원의 강산

눈부신 창가에  
방실대는 아기의 웃음을 봐도  
수령님 가꾸신  
조선의 미래  
조선의 꽃입니다

양지바른 산기슭  
그 어느 문화주택 창문을 열어도  
수령님 안겨주신 행복이  
푸르른 생명수에 실려  
만풍년의 금나락에 실려  
끝없이 안겨드는 조선입니다

이 조선 이 하늘을 열어주시려  
수령님 바치시는 한평생  
밀림의 긴긴밤  
우등불가에 어려  
못잊을 사랑으로 뜨겁고  
불타는 고지  
영웅전사들을 찾으셨던 전호가에  
진달래 향기로 목메입니다

만경대고향집을 떠나신 그때부터  
잠도 휴식도 잊으신 나날을  
인민을 위해  
더없는 기쁨으로 이어오신  
아, 사랑의 70성상

그 길우에  
세기의 꿈을 펼치며

주체의 조국은  
건국의 첫 주추돌을 놓았고  
자립의 철탑들은  
수풀처럼 솟았습니다

청춘을 바치시고  
한평생을 바치시며  
인민을 위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  
누리에 만발하는 저 꽃들처럼  
인민이 밝게 웃으면  
그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시는 수령님

참으로 어렵게 마련하신  
그 하나하나의 기쁨에 담아  
인민이 안고사는 행복을 주시고  
조국이 나래치는 영광을 주시고  
하늘땅이 다시 열리는 노래를 주신

아, 위대한 아버지  
우리 수령님

수령님의 기쁨은  
인민의 행복  
인민의 기쁨은  
수령님의 만수무강  
만민은 흙모의 한마음 안고  
영광을 드립니다

천만년 무궁한 세월속에  
인류의 봄 주체의 봄을 꽃피워갈  
불타는 맹세를 담아  
인민은 인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만수무강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 김일성동지, 그이는 백전백승 하시는 세계혁명의 수령

무쓰라파 카말파사

가장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나라, 조선  
여기서 가장 위대한 인류의 영재 탄생하셨네  
역사는 그분께 세계적인 찬양을 아낌없이 드리  
나니  
위대한 그이의 이름에 비길 이름 세상에 없네  
**김일성**동지 만세!

**김일성**동지, 그이께서 이룩하신 승리는 위대  
하고  
그이께서 지니신 품모는 숭고하여라  
그이는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이 우리러모시  
는분  
그이는 아아한 령봉처럼 높이시고 위대하신분  
**김일성**동지 만세!

그이의 주체사상은 미래를 밝히는 등대

혁명실천의 확고한 지침  
제3세계는 이 불멸의 진리를 간직하고 싸워  
나가네  
하나 온갖 흉악한 원썬들은 공포에 떨고있네  
이 불멸의 기치앞에  
**김일성**동지 만세!

제국주의자들을 최후멸망에로 다그쳐 몰아가  
시는  
수령님의 부르심에 세계인민은 호응하여 나아  
가나니  
그이는 영원한 주체의 태양  
그이의 해발은 온 누리를 찬란히 비쳐주네  
**김일성**동지 만세!

(필자는 파키스탄 라호르 《**김일성**주석 로작  
연구위원회》 서기장임)

#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문학의 최고의 영예이며 자랑이다

방연승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주체의 태양 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리러모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새시대를 맞이 할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참으로 기나긴 70 성상 오로지 조국과 혁명,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끝없는 심혈을 다 해야될수는 없다.

우리 조선인민이 오늘 것처럼 온 누리에 뿔뿔이 자랑높은 인민으로 력사의 령마루에 높이 서서 세기의 영광과 긍지를 떨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사랑을 끝없이 받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문학이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칭송을 받으며 자기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는것도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을 받고 자라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높이 모신데 있다.

우리 문학의 영광으로 빛나는 위용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중히 모실데 대한 시대와 혁명, 인민의 절절한 요구를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하게 해준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로 하여 이룩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문학의 최고의 영예이며 자랑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문학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정화로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획기적인 성과가 그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총서작품들이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의 진화로 되는것은 그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과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품목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량식으로 되기때문이다.

총서작품들이 주체시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정화로 되는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성격과 풍격을 규정하는 공산주의적당성을 높이 구현하는것을 정수로 하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문학의 위력을 과시하는 중심으로, 중추로 되기때문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인 《혁명의 려명》, 《1932년》, 《근거지의 봄》, 《고난

의 행군》, 《백두산기슭》,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구》 등 작품들은 주체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항일혁명투쟁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를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한 기념비적대작품이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장편소설들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사람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자랑찬 주체의 혁명문학으로 높이 솟아올라 그 휘황한 빛을 온 누리에 뿌리고있다.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우리러따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를 빛나게 구현한 백과전서인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는것은 주체시대의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이 막을수 없는 시대의 사상정신적조류에 높이 대답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주체시대사람들의 혁명적요구를 구현한 주체가 선 가장 당적이며 노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비상한 견인력을 떨치게 되었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에 따라 그 당성이 평가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작품은 이 원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깊이 구현하는데 그 진면모가 있다. 그것은 혁명발전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사람들을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무장시키는데 수령형상작품의 사명이 있기때문이다.

바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이 이 원칙적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를 키워내는 인간교양의 총서로,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량식으로, 예술적인 력사문헌으로 거대한 감화력을 과시하고있는 것이다.

총서중의 장편소설들이 우리 문학의 정화로써 그 위용을 떨치게 한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폭넓고 깊이 밝힘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조선혁명발전의 본질을 형상적으로 심원하게 그려낸데 있다.

총서작품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을 그려내는 데서 거둔 빛나는 성과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낸 데서 나타나고있으며 그를 빛나게 구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동깊이 그려낸 데서 표현되고있다.

이 성과는 수령형상작품의 가치를 담보한 비할바없이 귀중한 예술적전취물로 된다. 그것은 혁명 소설이 흥미거리로 읽히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는 고귀한 혁명적양식으로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총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력사적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예술적으로 감동깊이 그림으로써 력사문헌적인 견인력과 예술적감화력을 겸비한 대작으로 빛나고있다.

그리하여 총서중의 장편소설들은 사람들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과 그를 실천적으로 구현한 빛나는 모범과 경험으로 무장시키는 예술적인 력사문헌으로, 철학적인 혁명적대작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구》는 셋이 잇달린 작품들로서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어려운 정세속에서 력사적인 남평자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유명한 고난의 행군으로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조국진군의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대원들속에 계시면서 진두에서 대오를 이끄시는 형상을 통하여 그리고있다면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1939년 5월 조국으로 진군하시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고조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군사활동과 아울러 인민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벌리시는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고난의 행군의 성과에 이어 1939년 두만강지구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대로 근로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묶어세우는 조직정치사업을 군사작전으로 안받침하여 벌리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새로운 고조으로 이끌어올리신 혁명의 영재로서의 형상을 빛나게 그리고있다.

일제의 파조적인 탄압과 유격대가 다 소멸되었다는 허위선전 그리고 국제파시즘의 피비린내나는 광풍으로 하여 검은 구름이 낮게 드리운 조국의 현실은 실망하고 질식하고 숨져가는 사람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희망을 주며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는것보다 더 절박한것은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를 위해 것처럼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철벽의

국경경비진을 뚫고 조국으로 진출하신것이다.

그 어떤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뻔대고 설 힘을 주시기 위하여 그 어떤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산지구전투를 크게 벌리시며 인민들에게 신심과 힘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은 그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하여 시작한 혁명, 인민을 믿고 시작한 혁명은 오직 인민에게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신심과 용기를 주어야만 승리한다는 혁명의 원리를 가장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구현해나가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라는것을 사상적충격을 안고 높이 우러러뵈게 그리고있다.

그처럼 큰전투를 앞둔 준엄한 시각에 지휘관들의 만류를 무릅쓰시고 신사동에 가시여 별목로동자들의 합숙과 강정섭이네 귀틀집마을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며 따뜻한 정을 부어주시며 투쟁으로 부르는 정치사업을 하시는 형상, 쪼들리며 숨져가는 회양동마을을 활기가 넘치게 꾸려주시고 축구시합까지 조직하시며 적아의 싸움마당에서 과오를 범한 성림에게 재생의 믿음과 혁명의 담보를 주어야 한다시며 지하공작의 단독임무까지 맡겨주시며 그가 공작중에 체포되자 사령부를 옮기자고 나서는 지휘관들을 나무라시며 깨우치시는 형상, 그 바쁜속에서도 한태혈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누이동생을 찾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여 정작 찾으시고는 오빠의 희생을 전할 일로 하여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는 형상, 적들의 기동을 마비시키며 먹을 조일수 있는 요충지임을 간파하시고 놈들의 준동을 한손에 틀어쥘수 있는 울기강을 장악하기 위한 대복전을 앞둔 그 긴장한 시각에 찬이슬 내리는 한지에서 잠든 대원들을 걱정하시며 한없는 생각을 펼쳐가시는 형상, 동서남북이 제아무리 소란스레 허덕여도 끄떡도 하지 않으시고 울기강에 드리운 낚시대를 그 흐름에 맡겨두신채 력사발전의 진정한 요인인 인민의 힘을 믿고 더 큰 싸움을 벌려나가실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혀나가시는 형상, 그 어떤 촉박하고 간고한속에서도 대원들과 인민들의 크고작은 모든것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 여기에 인민을 위한것이 혁명이고 사람, 인민을 묶어세우는것이 혁명이라는 그이의 혁명사상의 원리를 생활적으로 심도 있게 그려내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력의 참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있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의 군사정치활동이 조선혁명의 새로운 고조를 가져오고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한 요인으로 되었음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예술적으로 감명이 크게 밝힌 혁명적대작으로 되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가 두만강지구에서의 조직정치사업과 지하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님의 령도하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혁명의 군대로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격과 위력을 뚜렷이 그려내었다면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의 무장대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필승불패의 무장대오임을 격조높이 그려내고있다.

격동하는 국내외정세를 통찰하시고 이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시기 위하여 두만강일대, 백두산동북부일대를 혁명화하시며 적들의 배후를 끊임없이 교란 타격하시는 그 꽃피고 무성하는 혁명의 한해 봄과 여름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 드디어 올기강의 낙시대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격전을 맞받아나가지였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 예견하신대로 적들은 거국적인 연합《토벌》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을 향하여 대기동을 벌리는것이였다. 군국주의일본과 파쇼독일의 광신적인 세계제패열이 마지막단계에 치달아 인류존망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격동하는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은 놈들의 사드뎡을 타고앉아 배후로부터 손발을 묶어놓았다.

그리하여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결판을 내기 위하여 《토벌》총공세를 감행한것이다.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또다시 일대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준엄한 전국에 대처하여 1939 년말~1940 년초의 한해겨울을 어떻게 나가는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였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9년 10월 안도현 량강구에서 진행한 군정간부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가 예정된 비밀로정을 따라 대부대선회작전을 벌리어 적들의 공세를 산산이 짓부시고 조선혁명을 구원하였을뿐아니라 세계혁명의 동방초소를 끝끝내 지켜낸 불멸의 업적을 담고있다. 소설은 력사에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을 예술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그려보이고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언제나 대원들과 인민들을 믿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대원들과 인민들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시어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시으로써 무진장한 힘을 계발해내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있었다.

소설은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와 오중훈과의 선, 성림이와 최인관과의 선, 신입대원들과의 선, 량강구의 칠성이 어머니와의 선을 통하여 그리고 적들과의 대비선을 통하여 이것을 감동적으로 깊이 그려내었다.

몹소 식량공작을 위하여 량강구에 나가시어 지방혁명조직일군들과 만나시고 끝없는 믿음과 고

무를 주시며 적들이 대기동을 다그치는 촉박한 정세속에서도 아랑곳없이 대원들에게 추석명절을 쇠도록 해주시며 별식을 준비해가지시고 림시병원을 찾아 리성림을 비롯한 환자들과 추석을 함께 즐기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형상, 천험의 대산맥을 돌파하는 돈화원정의 가장 어려운 때에 지칠대로 지치고 허기질대로 허기진 대원들과 함께 맹물을 마셔가시며 대원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힘과 고무를 얻으시는 숭고한 형상, 룡과송전투에서 전사한 오중훈의 희생을 그토록 서러워하시며 그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백석탄밀영에서 학습을 조직하시고 신입대원들을 오중훈이와 같은 참된 혁명전사들로 키우시기 위하여 모든 정성과 심혈을 다하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형상, 이 모든 숭고한 모습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그이의 비상한 령도력과 숭고한 인품을 그대로 격조높이 보여주고있다.

돈화원정때의 강행군장면과 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백석탄밀영학습장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직 대원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신념과 의지를 북돋아주는 정치사업을 하시며 무궁무진한 힘의 체현자로 그들을 한없이 높이 이끌어올리시는 령도력은 바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그 령도력은 충성으로 빛나는 오중훈의 형상과 또한 리성림의 형상에서 확인할수 있는바와 같이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고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고도의 의식성을 발휘하게 하시는 주체의 령도력이다. 주체의 방법이 숭고한 인품과 결합되어 구현될 때 그 령도력의 위대한 생활력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이것을 감동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철학적으로 심원한 작품으로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정치로선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그려낸 성과는 비단 이 작품들만 아니라 총서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 방침대로 조선혁명을 일대고조기에로 이끌어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그리고있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나 력사적인 명월구회의와 왕재산회의 방침대로 유적구를 꾸리시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양으로 이끄신 위대한 령도를 그린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도 그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이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그 구현을 위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방면에 걸쳐 폭넓고 깊이 그려냄으로써 우리 문학은 조선혁명발전의



본질을 형상적으로 심원하게 밝혀낼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로동계급의 공산주의적 당성을 가장 높이 구현한 공산주의인간학의 정화로서 되었다.

총서장편소설들이 우리 문학의 정화로서 그 위용을 떨치게 한 성과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와 혁명적동지애, 한없이 높고 고결한 인품과 덕성을 감동깊게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만민이 따라배워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인간관계의 원리를 생활그대로 보여준 인간교양의 총서로 된 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와 고매한 덕성은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인간적인 풍모의 구현으로서 우리 시대 사람들과 공산주의미래의 인간들이 따라배워야 할 최고의 귀감이며 최대의 재부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무하게 하며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존재로 되게 하는 주체사상에 기초할 때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장 참된 것으로,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사람의 사회적본성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로 보나 자기의 자주적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행동원리로 보나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서로 믿고 아끼고 도와주게 하는 사회관계의 원리를 밝혀주는 불멸의 지도사상이다. 인류는 이 지도사상을 가짐으로써 사회적관계의 모순과 질곡을 제거하고 사람이 서로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참된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진정한 인간관계의 원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간의 사회적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에 이바지하는 가장 참된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에 관한 철학을 구현한 인간학이 태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성을 위한 인간의 사랑이 있어서 혁명적동지애를 최고형태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입니다. 부자간의 사랑이나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동지적인 사랑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될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지애가 부모형제처자간의 사랑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규정하심으로써 인간의 사회적본성의 견지에서 인간의 모든 사랑을 관통하는 규정성

이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의 호상관계의 표현인 사랑, 그 인간관계의 최고표현인 동지적관계와 그 진수를 밝혀주시였을 뿐아니라 한평생 끝없는 헌신성과 인품으로 그것을 인간이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귀중한 업적의 하나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공산주의 인간애와 고매한 인품에 의하여 이루어진 혁명적동지관계의 전통이다.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시고 다함없는 헌신적인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여 사람을 끝없이 믿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 만민을 한품에 안아키우시는 한없는 포용력과 아량, 끝없는 감화력과 견인력, 황홀하고 매혹적인 인품과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높고 풍부한 지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고매한 덕망으로 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가장 공고하고 가장 높은 공산주의적인간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폭넓고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밝히고있는것이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동지관계는 모든 사랑의 기초이며 인류가 도달한 참된 공산주의적인간관계의 최고표현이며 그 진면모이다. 여기에서 수령과 전사, 인민과의 관계가 진수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된 이 숭고한 인간관계의 력사를 담고있는 대기념비적화폭이 바로 총서 《불멸의 력사》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인류가 바라던 공산주의사회의 인간관계의 원형이 바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의 고매한 인품에 의하여 이 땅에 뿌리내리고 그이의 끝없는 심혈과 로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혁명전통이 공산주의적인간관계의 만년초석으로 된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참으로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와 고매한 덕성을 생활그대로 그린 수령형상작품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배워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인간관계의 산 모범이다.

바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이 이것을 력사적사실그대로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감동깊게 그려냄으로써 우리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상상봉에 높이 올라서게 되었으며 그 위용을 누리에 떨치게 되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체확립에서 하나의 력사적인 이정표로 된 유명한 남호두회의방침대로 조선혁명의 일대 고조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력은 바로 그이께서 지니신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와 고

결한 인품과 주체의 방법의 구현이기도 하다.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와 고매한 인품을 떠나서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과 천변만화하는 령군술도 옳게 파악할수 없다는것을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방침관철을 위한 사적에 기초하여 감동적으로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는것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다.

《민생단》협의자라는 감투를 쓰고 사경에 처한 처지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변심없이 복만에 원정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천신만고 눈길을 헤쳐가는 리경준부부, 장기명, 칠녀어머니의 형상, 근거지가 해산되어도 적후에 가지 않고

오직 어버이장군님의 품을 찾아 마안산까지 찾아온 아이들이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배신적인 박해에도 흠어지지 않고 뭉쳐있는 그 험벗고 굶주린 눈물겨운 형상, 《민생단》협의자라고 총알도 세알밖에 주지 않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갖은 확대와 멸시에도 총을 놓지 않고 흠어지지 않고있는 마안산의 수백명대원들의 형상, 이 믿기 어려운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반영하고있는 심각한 인간형상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한결같이 이미 생활을 통하여 어버이장군님의 품을 떠나서, 그이의 신임과 사랑을 떠나서 살수도, 혁명할수도 없는 자기 삶임을 심장으로 더듬한 사람들의 신념과 의리의 아름다움을 말하며 그 신념과 의리를 낳은 위대한 태양의 품, 그 품이 간직한 비상한 견인력을 말한다.

마안산아동단원들과 《민생단》협의자들의 눈물겨운 정상을 대하시며 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며 느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세계는 위대한 인간의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세계였다.

그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아끼지 않으면서 혁명하겠다고 날치는 무지막직한자들에 대한 끝없는 분노였으며 확대와 멸시, 굶주림과 험벗음, 불신과 배척을 당하면서도 흠어질줄 모르고 변심할줄 모르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련민의 정, 인간 공정,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이였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던 때 남자의 주머니에는 바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시며 강반석어머님께서 주신 돈 20 원, 그렇게도 오래도록 간직하시였던 돈을 험벗은 아이들의 옷을 해입히시기 위하여 내놓으신것이였다.

심장깊이 간직한 어머님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깃든 소중한 돈, 의지가 없는 어린 동생들과 리별하시면서도 내놓지 못하신 그 돈이였다.

혁명의 미래에 대한 사랑, 《민생단》보따리를 불태우시고 그 협의자들을 새 대오의 골간으로 받아들이시는 위대한 믿음과 사랑, 그것은 위대

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두달 남짓한 사이에 남호두회의방침대로 조선혁명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기념비적으로 부각해낼수 있었다.

실재인물인 대통령감을 원형으로 한 권학식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다. 그는 한때 량심과 지성의 필봉으로 기자생활도 해보았고 식민지식인의 설움과 멸시도 당해보았으며 초기공산주의운동의 파쟁의 탁류속에서 뼈아픈 고뇌도 맞볼대로 다 맞보았었다.

세상에 대한 환멸과 실망을 안고 은거생활을 하던 사람으로서 그가 소생의 힘과 희망을 안고 혁명의 길에 다시 나서게 한 그 활력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주체의 인간애였으며 숭고한 인품의 비상한 견인력이였다.

권학식이 미혼진골짜기와 마안산에서 겪은 체험과 무송일대에서 겪고 력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 모임에서 겪은 체험으로 하여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조국광복회회장으로 우러러모시고 감격의 눈물을 머금으며 마음속으로 웨친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빛을 잃었던 조선이 주체의 태양을 높이 우러러모신데서 오는 한없는 행복과 긍지였으며 그 위대한 태양의 빛발과 열도를 받아안은 자신과 온 겨레의 기쁨과 자랑이였다.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주체의 인간애,

고결한 인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다함없는 사랑과 예지와 덕망이 평범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만백성을 깨우치고 일떠세우며 하나로 뭉치게 하는 생명력임을 온몸으로 터득한 권학식의 심장의 목소리는 곡절 많은 길을 걸어온 지성인의 량심의 고백이였으며 이를데 없는 사상적 충격이였다.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인간,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의 빛발과 뜨거움은 세상 만물에 생명의 빛을 주는 태양과 같이 사람, 근로인민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무궁무진한 힘의 체현자로 되게 하며 하나의 불패의 힘으로 뭉치게 하는 주체의 태양의 빛발이며 뜨거움이였다. 이것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뚜렷이 확증한 여기에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심원한 철학적깊이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상적감명을 안겨주는 영원한 불씨가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최인관의 형상이 또한 그 진리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그리스도교신자이며 개업의사인 최인관의 머리로서

는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군과 맞서 것처럼 커다란 위력을 과시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알수 없었다.

민족적량심만은 간직하고있었던만큼 그는 당장 손을 써야 하는 부상자를 치료하지 않을수 없어 조선인민혁명군과 행동을 같이하게 되며 그 과정에 심장으로 진리를 체험하고 그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가 하느님을 믿은것은 하느님이 있어 믿은것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였던때문이다. 그리하던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와 자기 온가족의 운명을 맡기고 우러러따르며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이 오직 그이께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그러한 새 신념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원수들의 그 어떤 회유와 무서운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인간으로 높이 발전한다.

이 획기적인 발전에는 이름할수 없는 감격과 사상적충격이 있었다.

돈화원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을 믿고 아끼며 어려운 때일수록 대원들을 더 보살피시며 그들에게서 힘을 얻으시며 대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사랑과 인품이 바로 그것이였다.

전사 한사람 한사람을 아끼시며 특히는 허물이 있는 리성림이와 같은 대원일수록 더 각근히 위하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인간애와 동지적사랑이 또한 그것이였다. 오중훈련대장의 희생을 것처럼 가슴아파하시며 식음을 전폐하시고 오직 혁명의 승리속에서 잃어버린 전사의 영생을 빛나게 해주시며 무슨 일을 하시든 그밑에 소용돌이치는 희생된 전사에 대한 슬픔을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인간세계, 그것은 말그대로 가장 커다란 심장의 감격이었으며 사상적충격이였다.

실로 대부대전회작전의 마지막 시기를 장식하며 파썸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국내에 깊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승리의 총성을 높이 울림으로써 일제의 최후멸망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유명한 흥기대전투의 승리, 일제의 최정예를 자랑하던 《토벌》전문특수부대인 마에다부대를 일격에 전멸시킨 그 승리의 밑바탕에는 오중훈을 못잊으시며 마에다의 손에 참혹한 폐허로 된 한 마을의 참경을 못잊으시는 한없는 사랑과 슬픔, 비길데 없는 분노가 굽이 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인품, 그로부터 뜨겁게 흘러나오는 주체의 인간애와 의리는 오직 그이를 우러러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이것을 감동적으로 확증하고있는 기념비적인

대작이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서도 볼수 있다.

소왕청을 중심으로 갓 태어난 두만강지구일대의 근거지들이 일제침략군의 2 중~3 중의 포위망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다해낸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는 국제당과전원 류현민이가 짧지 않은 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근거지 형편을 직접 체험한 다음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혁명의 영재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모시게 된 한없는 민족적공지를 안고 국제당에 보내려고 작성한 보고서의 구절구절에서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중추로 하여 탁월한 리성과 다감한 감성, 철저한 원칙성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대해같은 포용력, 강철같은 의지와 비범한 예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결합되어 영도자로서의 그의 인격의 총체를 이루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숭고한 사랑과 인품과 지성이 하나로 융합되어 이루어진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한 전인민적인 통일단결, 여기에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있으며 국제파시즘의 침략전쟁으로 암운이 드리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세계혁명의 앞길을 헤쳐갈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진리의 시사가 있었다. 이것을 온몸으로 심장으로 체험한 국제당과전원 류현민의 목소리는 가식없는 진심의 총격이었으며 북받치는 전인류적인 송가였다.

그리하여 류현민이 심장으로 체험한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 민주주의적시책으로 가꾸어진 근거지의 봄은 해방된 조선의 봄의 시원이였으며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자주의 봄의 상징이였다.

주체사상과 주체의 인간애의 빛나는 체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뭉친 전사들과 근로인민대중의 동지적인관계-가장 높은 사랑관계는 주체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의 담보이다.

이 담보는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헌신적인 로고와 끝없는 심혈, 대원들의 가슴아픈 희생과 한없는 심적고통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있는것이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이며 그중에서도 위대한 주체의 해동이력사를 그리고있는것이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이며 《1932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겨레와 조국, 인간, 근로인민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믿음과 사랑은 진정 자신의 모든것을 다 기울이시는 끝없는 헌신성이며 로고이며 심혈이며 헤아릴길 없는 고뇌

와 아프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모든 고매한 품  
모들의 총체이다.

장편소설 《1932 년》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  
혁명의 운명을 결정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첫해원  
정과 그 원정의 승리를 담보한 원동력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의 위대한 어  
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의 끝없는 헌신성과 다함없  
는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중환에 계시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  
집을 떠나시여 원정의 길에 오르시는것은 어머니  
와 다시 만날수 없으셨던 영원한 리별이었다. 다  
시 만나리라고 기약할수 없었던 싸움의 길로 아  
드님을 재촉하여 떠나보내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없이 아프시였으나 자랑스러운 아드님에 대한  
참된 사랑, 자신을 기꺼이 바치신 고귀한 희생으  
로 하여 어머니의 모습은 그토록 빛나고 숭고한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어머니의 그러한 가슴  
아프심과 사랑, 그러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첫해원정의 승리가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하루와 같  
이 기울여오신 어버이사랑의 밑에 깔린 한정없는  
로고와 심혈, 고생과 아프심을 형상적으로 깊이  
그려내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반영  
함에 있어서 수령형상작품의 참다운 가치를 담보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은 력사책으로서서는 그것을 감명깊게 담을  
수도 전할수도 없기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위대  
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그리는 인간학만이 그  
것을 감동적으로 담을수 있고 깊이 전할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그 위력을 발휘해야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기때문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이 요  
구를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공  
산주의인간학의 정화로 될수 있었다.

때문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비교할수도 없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  
로 된다.

우리 문학의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성과의 업적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성과 사명을 깊이 통찰하고  
왕성한 정력과 비범한 예지로 인류문예사상 처음  
으로 수령형상리론을 독창적으로 완벽하게 밝힌  
데 기초하여 그것을 빛나게 구현한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숭고한 높이에서 모신 공산주의인간학의 정화로  
된 영예와 자랑은 전적으로 위대한 주체의 태양  
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인민의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  
의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우  
리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  
에 지닐수 있는 영예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그러했던바와 같이 앞으로  
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있음  
으로 하여 지니게 된 이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의 가치를 고수  
하고 빛내이는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가사

# 만경대의 봄빛은 영원하iera

전병구

이 강산에 이 봄이 언제 왔던가  
이 강산에 꽃들이 언제 폈던가  
만경대에 위대한 태양이 솟아  
인민의 봄 이 땅에 꽃으로 폈네  
만경대를 떠나신 그 아침부터  
헤쳐오신 눈비는 얼마이던가

수령님 걸으신 그 지옥파라  
락원의 봄 이 땅에 만발하였네  
해빛넘친 강산에 꽃들은 피고  
사람마다 행복을 노래부르네  
온 누리에 새세상 꽃피워주는  
만경대의 봄빛은 영원하iera

## 1912년 4월 15일

김윤일

그날은  
꽃이 피어도 꽃을 모르고  
향기를 못느끼던 사람들에게  
꽃을 주고 향기를 알게 하였더라  
그날은  
강물에 노을이 진주처럼 흘러도  
그 아름다움 간직할곳 없던 마음들에  
사랑과 열정을 안겨주었더라.

그날은  
부서진 가랑잎 흘날리는 들판으로  
부러진 날개를 끌며 슬피울던 사람들이  
생의 희열어린 이마 높이 들고  
창창한 하늘아래 살게 하였나니  
그날은  
지샅줄 모르는 어둠을 찢은  
강력한 빛이었고  
무진한 힘이었더라.

빛을 모르고 태어난 목숨들이  
모진 광풍에 뿌리 들리워  
영영 피지 못했을 삶의 꽃들이  
그날의 빛을 받으며  
봉오리 맺히고 잎이 피기 시작했나니

기나긴 어둠, 동토대의 이 땅우에  
마침내 봄바람을 가져온  
아, 그날이 있어

하늘 언제나 맑게 띄여있어라  
그 아래 백가지꽃 만발해  
소년단에 드는 아이들  
충성의 맹세를 그날에 다지고

물길 휘어잡는 떼물이공들도  
그해 첫떼를 그날에 내리워라  
녕변의 나어린 직포공치너  
열두달 짜야 할 비단을 그날까지 다 짜서  
하늘 가득 펼쳐안고  
민족의 존엄과 자유를 위하여

식민지 민족해방투사들  
그날의 하늘에  
총들어 승리의 맹세 다질 때

석양이 내리는 아랍땅  
수수한 농촌뜨락  
순박한 너성이 아들애에게 속삭여라  
-애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란다.

아아, 영원하리  
아름다운 노래속에  
전하고 전해갈 이야기로  
세월 흘러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도  
축복받은 생명을 그날에 두었거니  
오늘 넘어 태일은  
또 얼마나 삶의 환희로 즐거우랴

마치와 낮이 번쩍이는곳에  
그날의 높은 영광이 있고  
평화와 투쟁의 위훈이 있는곳에  
그날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

동굴에서 벗어난 원시사회로부터  
파업과 폭동. 전쟁의 불바다를 헤치며  
수세기 돌진하며 광명을 찾던 세월은  
세계의 운명을  
그날에 맡기었거니

오, 인류에게  
불멸의 광명이 뿌려진  
1912년 4월 15일  
태양이신 **김일성**동지  
그이께서 탄생하신 날

세월은  
빛나리  
그날을  
축으로  
영원무궁한 자기의 궤도를 달리리.



# 영원히 주체의 태양을 우러러

박세영

## 1

세상에 태어나  
가장 영광스럽던 날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 품에  
우리 몸이 안기던 그날이여라

우리 일찌기 불타던 신념속에  
장군님 만수축원을 바라며  
기어이 일제를 타승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시리라  
철석같이 믿었던 오직 한분  
**김일성** 장군님이시기에!

암흑의 세월속에서도  
그처럼 안기고싶던 그 품에 안겨  
그처럼 뵈고싶던 그 영상을 우러러  
우리 심장의 노래를  
지어 읊었더라

반만년 유구한 조국의 력사우에  
위대한 수령님으로 처음 모신  
전설적영웅이신 젊으신 장군님!  
나라는 인민조선 새 나라  
해와 별 빛나는 주체의 조국  
그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이나

간악한 일제로 하여  
무참히 붓마저 꺾이우고  
피멍이 들었던 우리의 손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서  
영광의 붓을 쥐여주시였거니

수령님 펼쳐주시는  
민주개혁, 민주건설을 두고  
춤추는 우리 마음이었더라  
그 모두가 회한하여!

밤가는줄 모르고 성수가 나

붓을 달리고 달리였어도  
쫓아나는 패기와 정열로 하여  
우리 지칠줄 몰랐더라

수령님 가시는 길을 따라  
우리 붓은 즐기차게 내닫고  
변모되는 강산은  
우리 환상의 꽃보라를 날려주었더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인민들속으로 가시는  
한걸음 한걸음은  
그대로 크나큰 우리의 감격이 되고  
그대로 우리의 행복으로 피어나고

공장을 찾으시고  
마을의 들길을 걸으시며  
농민들의 토방에도 허물없이 앉으시여  
농사일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그 사랑

수령님의 레사로운  
인민적사업작풍 하나하나도  
우리 평생 잊을수 없는  
비범하신 위대성으로 남게 되었더라

때로는 집무실로 우리를 부르시여  
나라의 중요한 노래도 짓도록  
영예로운 과업도 친히 주시고  
담아야 할 내용까지도  
환히 밝혀주신 그 손길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무어주시여  
불패의 혁명대오에 세워주시고  
육친적인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해빛을 주시여  
새싹들이 꽃피여날 때에는  
그리도 기뻐하신 우리 수령님

당과 국가의 수많은 일로 하여  
 겨를도 없으시련만  
 우리 작가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려  
 많은 시간 많은 나날을 보내신 수령님  
 항일혈전의 전모를  
 우리 가슴가슴에 심어주시었어라

## 2

잊을수 없어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실천하신  
 오직 인민들을 위한  
 거창한 사랑의 창조물들을!

평평 내리는 함박눈을  
 그대로 맞으시며  
 동쪽길을 걸으시고  
 저수지자리를 잡아주시며  
 이 나라 발판개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신  
 잊지 못할 그 양수장!

양수장 가까운 언덕의 외딴 집  
 수령님 하루밤을 묵으셨다는  
 너무도 소박한 집앞으로  
 돌돌돌 노래하며 물이 흐를 때  
 우리 눈시울은 뜨거웠고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한  
 산우의 산에서  
 수도물을 마셨을 때  
 아득한 끝안을 내려다보며 놀랐어라  
 압록강물 굽이굽이 등판에 올라  
 땅을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셔  
 그만 뜨거웠것이  
 앞을 가렸어라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인민들에 대한 사랑 끝이 없듯이  
 우리의 작품들에 피가 뛰지 못하고  
 새 환경에 따라서지 못할 때

수령님께서선 오랜 시간  
 또다시 우리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전변하는 조국의 숨결을 주시고  
 천리마시대에 맞는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게 하시었어라

그러기 그 사랑  
 그 해빛아래서  
 오늘은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주체의 대문예학원이 꽃피어나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의 해발따라  
 온 세계 온 지구가  
 주체예술의 향기로 차넘치고있어라

아, 그 모든것  
 감회도 깊어라  
 우리 별로 한 일도 없이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다함없는 사랑만을 받으며  
 흘러온 세월

위대한 수령님 탄생  
 일흔ढ을 맞는 우리의 가슴속에  
 따사로운 봄빛으로 흘러넘쳐  
 우리 노래하리라  
 위대한 주체의 태양을  
 심장의 끓는 피를 다하여 노래하리라

3대혁명의 북소리 높은 이 강산에  
 세차게 흐르는 전류소리도  
 대자연개조의 노래높은 개발지에  
 폭풍을 안고 울리는 발파소리도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주체조국의 숨결소리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우리의 노래도  
 조국의 이 숨결과 더불어  
 영원하리라!



# 백두산아, 네 기슭에 들어서니...

김진

그리워 내  
못잇던 백두산에 찾아오니  
혁명의 이 기슭에 한생을 빛내시고  
다시 못가신 일가분들 생각에  
만경대고향집이 더 더욱 그리워라-

내 만경대고향집  
뜨락에 들어섰던 그날에는  
조국을 찾으시려 떠나신  
아버이수령님 일가분들 생각에  
마음은 못견디게  
백두산으로만 달리더니...

아, 잃었던 조국을 찾으시려  
만경대를 떠나신 그분들  
백두산아  
네 기슭에 들어서신 그날로부터  
너의 일만산발들과 천년밀림들은  
비로소 광복의 더운 숨결 받아안았거니

말해다오! 설레는 밀림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양춘의 새조선을 불러 남기신  
저 만경대  
《남산의 푸른 소나무》  
그 노래 길이 전하려  
너 그리도 끝없이 설레는것이나

말해다오!  
장군님 기어이 찾으신 조국-  
광복될 고향 만경대의 언덕을  
꿈결에도 밝고싶으셨던  
어머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  
백두산아  
너의 바람결조차  
만경대 남산봉을 향하는것 아니냐

정녕 그 어데쯤이나  
아버이수령님  
사랑하는 동생마저 마지막으로 리별하신  
그 력사의 가슴아픈 갈림길은

너 백두산 밀림아  
그 산발 그 어느 기슭에 고이 품었느냐

오! 조선이 받아안기엔 너무도 큰 슬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홀로 안으시고  
피비다 불바다를 다 헤쳐오셨구나  
우리 수령님  
청춘시절 스무해를 네 밀림속에 다 바치시여  
누리에 찬란한 주체의 조국  
너의 머리우에 빛내주셨구나

그래서 키를 넘는 눈속의 밀림도  
꽃피는 봄날인듯 즐겨 찾아들고  
찾아오면 연연 높낮은 산발들도  
만경대의 뜨락인듯 정다운것이구나  
너 만경대를 받들어올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여기서 누리에 빛받쳐갔구나  
만경대에서 솟은 주체의 태양은  
그 빛발아래  
만경대의 뜨락은 백두산에 잇닿아  
인류가 들어서는 넓은 마당 되였구나  
혁명하는 세계의 배움터 되였구나

만경대  
찾아가면 백두산이 그리웁고  
백두산  
찾아오면 만경대가 어려오는  
만경대- 네가 있어 백두산에 해가 뜨고  
백두산- 네가 있어 만경대는  
누리에 더욱 찬연커니

오, 만경대!  
백두산!  
너 태양을 받들어올린 그 영광 지너  
만경대의 추녀는 백두산에 잇닿았고  
백두산은  
만경대의 뜨락에 솟은것이구나  
그래서 만경대 백두산은 언제나  
어데서나 함께 있는 하나의 이름인것이구나!

## 진리의 탐구

리 화

## 1

그때.

잠학과학자 계응상은 신다섯이 넘은 나이였지만 어슴새벽부터 밤한시까지 끼때를 내놓고는 단 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연구사업에 몰두하고있었다. 식사를 하는 몇분 안되는 짧은 시간조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상 실험수치들이 가득 적힌 종이쪽지를 들여다보며 수저를 놀리곤했다.

그가 출장을 떠날 때는 늘 소동이 일어나곤한다. 응상은 차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잠실에서 누에를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거나 해부생리실 현미경앞에 한정없이 머물러있곤하여 그를 찾으러 실험공들이 드달려다니고 차표를 사든 서기가 안달이 나서 역사를 들락날락했다.

하여 그는 번번이 양복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채 시험장을 나서서 기차가 역구내에 들어선 다음에야 개찰구를 빠져나가 자욱을 때는 기차의 승강대우에 간신히 올라서곤했다.

《면회사절.》

계응상이 연구사업을 하던 잠업시험장구내의 아담한 단층집출입문에는 이런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이것은 그의 일생의 좌우명과 같았다. 그는 과학사업을 위해 친척친우들과의 일상적인 관계마저 무자비하게 끊어버렸다.

어렸을 때 응상을 업어키웠다는 손우누이 하나를 내놓고는 그 누구도 응상과 일상사에 대한 말을 주고받은적이 없다.

그조차도 응상과 별치않게 주고받은 말 몇마디를 행복에 겨워 옛말처럼 두고두고 얘기하는 형편이었다. 발은 친척들도 하나둘 응상의 집에서 발길을 뺐다.

1947년 늦겨울, X잠사전문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던 아들이 폐열을 앓고나서 안정치료를 하려고 집에 찾아왔었다. 응상은 인사를 하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내려다보며 탓했다.

《거기는 병원이 없대더냐? 따끈한 밥이나 제집아래목만을 찾아가지고서야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하루밤 자고는 당장 돌아서거라.》

아들은 원망에 차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엄한 눈초리앞에 기가 질려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안해는 울상이 되어 남편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여보! 당신의 눈에는 병색이 도는 애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저 몸으루 어떻게 공부를 한다가

그래요.》

《객적은 소리 마오.》

응상은 안해의 손을 떼놓으며 잘라말했다.

《나는 독한 마음을 품고 학문을 파고드는 사람한테 병마가 달라붙는걸 보지 못했소.》

이튿날 응상의 안해는 아들을 바래우며 탄식했다.

《세상에 너의 아버지처럼 괴벽한 사람이 어데 있단말이나...》

이마적 나어진 연구조수 명길동이 응상의 안해를 찾아왔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안타까운 심정을 하소했다.

《아주머님도 잘 아실거예요. 우리는 해부실에서 침식을 하며 현미경으로 누에를 들여다보고있어요. 계선생님이 어찌나 무섭게 다그쳐대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왔단말이에요.》

한데 어제 제가 선생님더러 한 사날 집에 좀 다녀오겠노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겨우 누에 한마리를 들여다보구 몸을 뺄셈인가. 그래가지구 어느 세월에도 누에 해부를 다할셈인가>구 꾸짖는게 아니겠나요. 정말 너무해요. 어찌면 이럴수 있나요. 저와 같이 일하는 연구사동무는 약혼녀한테서 한주일이 멀다하게 편지가 오지만 고향마을에 다녀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어요. 선생님이 갔다오라고 할 때 집에 다녀오자면 예순이 지나도록 가보지 못하고말거예요.》

응상의 안해는 억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남편이 저녁식사를 하려고 살림방으로 건너오자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여보! 집안사람한테는 아무렇게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데리고 일하는 시람들한테만은 제발 너무 모질게 굴지 말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구 뭐라구들 하는지 알아요?》

쓰라린 마음으로 명길동의 말을 뇌이고난 그는 짓적게 계속했다.

《시험장에서는 당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에를 고르듯이 사람을 고른다>느니 누구를 부를 땐 벨을 한번 울리구 또 누구를 부를 땐 벨을 두번 울린다느니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땐 가슴이 아파 못견디겠어요.》

마디마디에 설음을 담아 한참 성품이를 하던 그는 눈살이 쏙뽕해졌다. 응상은 손에 쥐고있는 수첩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는데 그 무슨 상념을 더듬고있는지 빙그레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응상의 안해는 너무도 기가 막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껴울었다.

남다른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마다 이렇게 인간생활에 무관심한다는 법은 없지 않는가. 언젠가 그의 집에 한번 들린 이름난 화학자는 응상의 생활을 빗대고 통조로 말했다.

《우린 휴일날 동부인해서 들놀이두 나가구 일년에 한번씩 가족휴양두 다닌답니다...》

아무렴, 도대체 쇠불이나 목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한생을 줄곧 이렇게 살아갈수 있단말인가.

《당신은 정말 너무해요, 어쩌면 이럴수 있어요...》

응상의 안해는 왈각 쏟아지는 눈물을 건잡지 못했다. 그제서야 응상은 고개를 들고 두눈을 습벽이며 물었다.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있었소?》

이해 1948년 마가을 어느날이었다. 밤사이 비꼬치가 떨어지듯마듯하더니 하늘이 퍼렇게 들리면서 찬바람이 터져나왔다. 시험장구내에는 락엽이 어지럽게 날리었다.

잠실을 나선 계응상은 두눈을 지그시 감은채 뜨락한가운데에 그린듯이 서있었다. 실험공들이며 누에관리공들은 창문가에 붙어서서 불안한 눈길로 응상을 지켜보고있었다.

며칠전 시험장에 《자연》이라는 어느 한 나라 잡지 특간호가 배달되어왔다. 부장장 배명학이 시험장 성원들이 한가득 모인 선전실에서 《자연》 특간호의 중요내용을 전달했다. 이마어마한 소식을 알리는듯 그의 목소리는 한껏 긴장되어있었다.

...X 생물학계에서의 거대한 성과... 종래의 고전생물학의 진상은 날날이 폭로되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불변불멸한 유전의 존재를 집요하게 고집함으로써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반동사상을 끄집어내고있다.

하여 이 세상에는 《고등》인종과 《열등》인종이 존재하며 《생물학적으로 선택된 민족의 꽃》인 아리아족. 앵글로색슨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세계제패론을 정당화하고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사상의 거미줄에 걸려 허덕이고있다...

선전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서로 시선들을 마주치고는 목들을 움츠리는가 하면 휘휘하여 고개들을 내젓기도 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계응상이야말로 그 나라에서도 중지부를 찍은 그것에 일생을 고스란히 바쳐왔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맨먼저 계응상장장한테서 모욕을 당하고 시험장에서 부차적인 일들을 하고있던 사람들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계장장의 리론은 파썸놈들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던 가증스러운 <우생학>이나 <인종론>의 기초로 되고있는 그런게란말인가.》

《그렇네. 나뻥이들을 교배시키고 거기서 나온 후대들을 콩알팔알 세어 비를을 맞춰보는 그의 연구방법도 생물학적인 연구인것이 아니라 형식적-수학적연구방법, 순수한 통계학으로 락인된 셈이지.》

《이제야 알만하네. 그런즉 그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혹하게 대하는것두 우연한 일이 아니었구만.》...

어떤 사람들은 응상에게 가까이하면 안될 유해로운 그 무엇이 묻기라도 한듯 슬슬 그를 피하기까지 했다.

이럴 때 배명학부장장은 아무한테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시험장을 떠났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응상장장 한사람을 내놓고는 그가 잠업시험장사태와 앞으로의 처사를 론의하기 위해 평양으로 올라갔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튿날 급히 되돌아온 부장장은 자못 표표한 기상으로 시험장을 돌아보고있었다. 그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시험장에서는 곧 새 조국 농업과학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있으리란 흥흥한 말이 떠돌고있었다.

하나 응상은 이 모든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회색두루마기를 강쇠바람에 펄럭이며 정원으로 휘적휘적 걸어가고있었다.

《우수수...》

마른나무잎들이 그의 발밑에서 소용돌이치며 날아올랐다. 응상은 오유수나무그늘밑에 놓인 자그마한 의자에 앉아 발밑의 어느 한 점을 골똘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사무실등근창가에 뒤짐을 지고서서 응상장장을 측은하게 내려다보던 부장장은 책 몸을 돌렸다. 단호한 표정을 짓고 방문을 힘있게 열며 복도로 나선 그는 곧장 정원에 앉아있는 계응상에게로 걸어갔다. 응상은 부장장이 자기앞에 다가선것도 감촉하지 못하고 깊은 사색에 잠겨있었다.

《응상선생!》

명학은 갈린 소리로 불렀다.

응상은 눈을 떴다.

《태일 ○○농대로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야지.》

응상은 부장장을 쳐다보지 않고 웅대했다.

《이번에는 가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그건 왜?》

응상의 부드러운 눈에 노한 빛이 어리었다.

《차차 아시게 될겁니다.》

명학은 랭정하게 뇌이였다. 응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장장을 쳐다보았다. 입에 담기도 지겨운듯 눈살을 찌프리며 《자네 지금 시험장에서

돌아 가는 《자연》이라는 잡지 특간호때문에 그러는건가?》 하고 물었다.

《예?》

부장장은 두눈을 흘렸다.

계응상은 품속에 손을 넣어 피봉을 뜯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명학에게 내밀었다. 부장장은 얼떨름하여 그것을 받아쥐고 속지를 뿔아보았다.

《계응상선생!

사정에 의하여 금년겨울에는 선생의 강의를 받을수 없게 되었으니 그리 아시고 조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대학 학장 ×××

편지에서 시선을 땀 부장장은 두눈을 썩뜩채 응상의 벗어진 이마를 바라보았다.

(이쯤되면 사태는 너무도 명백하다. 한데도 군이 대학으로 나가겠다는건 무슨 경거망동인가.)

하나 응상은 흰오리가 섞이기 시작한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답답한 목소리로 친철히 말했다.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것은 내가 더없는 만족으로 여기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선 **김일성** 장군님께서 나에게 친히 맡겨주신 사업이요. 그러니 감히 그 누가 내 앞길을 막는단말이요.》

계응상은 도고하게 쏘아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사무실로 총총히 걸어 갔다.

이해 응상은 잠업시험장 장장사업을 맡아보는 한편 ○○농업대학 잠학학부 학부장의 직책을 겸임하고있었다. 하여 봄, 여름에는 시험장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겨울에 접어들면 농업대학에 나가 잠학학부사업을 지도하며 교수사업을 진행했다.

그는 원래 시험장이나 집안에서 자신의 생활과 감정에 대하여 말해본적이 없었지만 더우기나 자기가 어떻게 되어 이런 위치에서 사업하게 되였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본적이 없었다.

방금전에도 그는 격한 마음을 견잡지 못하여 가슴깊이 간직했던 한마디를 불쑥 터놓았지만 더는 진말을 하지 않았다.

존귀하신 그분께서 베풀어주신 은덕에 만인이 공인하는 귀중한 공적으로 보답하기도전에 그런것을 말하고싶지 않았기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옵고 그분의 은총을 받아안은 사람이라는것을 오직 그이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실 특출한 과학적성과로써만 이야기하고싶은 남다른 생각때문이었는지...

응상은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앞에 마주앉은 다음에도 한동안 산란해진 가슴을 녹찾히지 못하였다. 깍지킨 두손을 책상우에 얹고 창문너머 퍼렇게 되어있는 하늘을 지켜보는 그의 이마우에 잔주름이 일었다.

## 2

해방직후 조선의 유일한 잠업과학자로 알려져

있던 계응상은 남조선수원농사시험장에서 8.15 해방을 맞았다. 때를 맞추었다 할가.

이제껏 그는 생물체의 내부에 깊이 파고들어 가 그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반생을 바쳤다면 바야흐로 그는 자기가 체득한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새 품종의 생물체를 육종하여 새 조국 건설에 여생을 바칠수 있게 된것이 아닌가.

응상은 빈약한 돈주머니를 마지막 한푼까지 깡그리 털어내며 누에원종장을 짓고 거기에 수십년 동안 동양 각처를 방랑하면서 모아들인 누에원종들을 펼쳐놓았다.

소란하고 뒤숭숭한 가운데 두달이 지나고 석달이 지났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겨울이 닥쳐왔으나 불을 때지 못해 원종장이며 잠실들에 넣어놓은 누에고치며 마지막 잠을 자고난 누에들이 멸종할 운명에 처했다.

응상은 두눈에 불이 일어 천방지축 서울로 올라가 내노라 하는 정객들을 찾아다니며 구원을 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와 같이 웬 늙은이가 주제넘게 건국대사를 론하는 신성한 자리에 나타나 벌레의 운명에 대해 씨벌이노 하는 태도들이었다.

응상은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누에원종들을 거둬들여 살림방으로 옮겨놓았다. 차디찬 랭방에 누워 내 조국 잠업의 앞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막해왔다.

진논까비가 질금질금 내리는 밤이었다. 무명목도리를 목에 둘둘 감은 웬 낫선 젊은이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젖은 모자를 벗어쥐고 응상에게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더니 품속에서 편지 한장을 정중히 꺼내놓았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친히 선생님께 전하라고 보내주신 서신입니다.》

《그분께서 저를 어떻게?!》

응상은 두눈을 치뜨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동안 일제마수에 쫓기여 연구자료들을 어깨에 메고 국외로 류랑하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달필로 쓰신 편지를 한자한자 읽어내려가는 응상의 두눈에 정기가 넘치었다.

젊은이는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 서울에서 발간되는 한 신문을 보시다가 <람루를 걸치고 방랑하는 과학자>라는 계응상선생에 대한 기사를 보신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제 나라를 찾았으니 선생님도 마음껏 연구사업을 하시도록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생님을 꼭 모시고 오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응상의 갸느스름한 얼굴에 엄숙한 빛이 서리었다. 그는 세상만사를 그 어느 때나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전에는 믿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마음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싶었다. 웬일인지 수수한 젊은이가 이끄는곳-자기의 존재를 그처럼 귀중히 여겨주시는분이 계시는 그곳이야말로 좋은곳이 틀림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날밤으로 응상은 자기의 전제산인 누에원종들과 연구자료들을 누비솜옷속에 꾸며넣고 고향을 찾아가는 늙은이의 행색으로 분연히 길을 떠났다.

38 선을 넘어 평양에 도착한 응상은 곧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벽차오르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승용차에 올라 누에원종들을 옮겨넣은 가죽트렁크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해방산단덕에 자리잡고있는 북조선공산당조직위원회 청사로 향했다.

그는 발길이 어떻게 놓이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며 이층으로 올라갔다. 서기가 계응상이 도착했다는것을 알리려고 안으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어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젊으신 장군님께서 활달하신 걸음으로 마주나오시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응상의 손을 따듯이 감싸쥐시었다. 응상은 넋을 잃은듯 그이를 우러렀다. 그는 첫눈에 이렇게도 부드럽고 명쾌한 인상을 주는분을 난생처음 보았다.

응상은 그 무엇에 등등 떠받들리운듯 그이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들고온 가죽트렁크를 받으시며 응접탁위에 올려놓으시며 물으시었다.

《이것이 선생님께서 목숨처럼 귀중히 지켜오신 누에원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응상은 서둘러 트렁크를 열고 수원에서 떠날때 종이가 없어 신문지에 렌즈모양으로 종종히 박아 넣어가지고 온 누에알들을 그이께 보여드렸다.

《이건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품종들로 알려진 누에알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응상은 목이 콕 메여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참지에 따로 받은 알락달락한 이 누에알들은 그가 지난 십수년동안 새롭게 육종한 누에품종들이다.

이 하나하나의 누에알들이 수억만의 누에무리들속에서 사금처럼 골라낸 그렇듯 희귀한 품종들이라는것을 그 누가 알수 있었으랴.

장군님께서서는 응상이 고심참담하며 걸어온 탐구의 길을 헤아려보신듯 그의 손을 다시 한번 뜨겁게 잡아흔들어주시었다.

《선생은 단꺼번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백수십여종의 비단실누에품종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여기 앉으십시오.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손수 응접탁밑에 놓인 의자를 끄

당겨 응상에게 권하시었다. 응상은 황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의자에 앉았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지금 나라의 잠업실태가 한심합니다. 우리 나라 기후에 알맞는 누에품종 하나 똑똑한것이 없고 그나마의 누에알도 제힘으로 알박이를 하여 쓰지 못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비단으로 수를 놓은듯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여 금수강산이라고 하여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민모두에게 남부럽지 않게 비단옷을 입히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고견을 좀 말씀해주시지요.》

그이의 열화같은 말씀을 받아안은 응상의 그윽한 눈에 감동의 눈물이 핑하니 고이였다.

(짜아지른 벼랑길을 돌아오르듯 피를 토하고 뼈를 깎으며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온것이 헛된일이 아니였구나. 오직 이날을 맞기 위해 나의 지난 반생도 존재한것이 아니냐.)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응상의 눈에서는 구슬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장군님! 제가 주책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나무람 말아주시지요. 저는 조그마한 벌레를 다루는 이름없는 학자입니다. 십수년동안 누에의 세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사이에 저의 머리가 다 세여 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박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지만 그래도 태를 품은 고향을 잊지 못해 이역살이를 그만두고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일제경찰놈들은 제가 해외에서 정치운동에 참가한적이 없는가 하여 고국에 첫발을 들여놓자마자 저의 손에 쇠고랑을 채워 석달이나 감방에 가두어두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남녘땅에서는 저에게 모멸과 령대박에 던져준것이 없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한 자기의 조국을 찾았습니다.)

응상은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이 없어 장군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싶었다.

하나 그는 흥분을 지그시 누르며 젖은 목소리로 말씀드리었다.

《저는 오늘 뒤늦게나마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드는 사업에 남은 여생을 다 바치자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깊이 감동되시여 두눈을 습벅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응상과 다정하게 눈길을 마주치시며 말씀하시었다.

《계선생! 지금 혈벳은 우리 인민들에게 옷을 입히는게 급합니다. 공리를 거듭해보았지만 목화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까. 모든 농가에서 비단실누에를 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빠른 시일내에 새 누에품종도 육종해내야 하구 잠업일군들도 대대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계선생이 맡아 할일이 산같이 쌓여있습니다.》

응상의 두눈에 영채가 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주어 말씀드렸다.



《장군님! 그게 간절한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응상은 자신이 영명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은후 너무도 한일이 없는것만 같아 송구한 마음을 어찌지 못하고있었다.

(한데 이 어인 청천벽력이란말인가. 내가 하고 있는 연구사업이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우생학》을 뒤받침하는것이라구... 이 무슨 황당한 소리들인가.)

밤새 지동치듯 불어치던 북풍은 새날이 밝아온 뒤에도 죽어들줄을 몰랐다. 계응상은 어느때없이 일찍 집을 나섰다. 그의 한쪽 손에는 그 언제부터 들고다니는것인지 알길없는 낡은 가죽가방이 들려있었다.

아침출근을 하던 시험장사람들은 장장에게 급급히 인사를 하고는 의혹에 찬 눈길로 응상을 돌아다보았다. 계응상은 명주바지저고리우에 회색 두루마기를 걸치고 채색버선에 흰고무신을 받쳐 신고있었다.

그것은 계응상이 왜정때 조선인학자라는 지조만은 굽히지 않는다는 표식으로 늘 입고다니던것으로서 이 근년에는 설날 세배를 받을 때에만 집안에서 차리고있던것이였다.

그의 류다른 차림새며 표표한 기상에는 그 어떤 운명적인 결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서만 찾아낼수 있는 비장한것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의 뒤에는 머리우에 커다란 무명보통이를 이고 한손에 부들구렁을 든 그의 안해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듯 고개를 짓수긋한채 켜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시험장현관안에서 응상의 뒤모습을 시푸녕스레 바라보던 배명학은 곁에 사람들이 몽켜있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얼거렸다.

《불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라더니 참 슬픈 일이로군. 대학에선 자기를 학부장직책에서 해임시킨것두 모르구 부력부력 길을 떠나다니...》

부장장을 힐끔 훑쳐본 명길동은 몸서리를 쳤다. 그는 휘휘하여 저쪽 집모퉁이로 급급히 사라지는 응상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 3

기차는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역에 들이닿았다. 차에서 내린 응상은 안해를 사택으로 들여 보내고 곳곳이 대학으로 향했다.

정문에 앉아있던 젊은 교원이 교문으로 거침없이 걸어들어가는 응상을 발견하자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황급히 달려나와 응상을 멈춰세우고 급급히 섬겨냈다.

《선생님! 지금 학장선생방에는 성에서 내려오신 손님들이 와계십니다.》

《그래서?》

《불결하신대로 수직실에 잠깐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시면 좋겠습니다.》

응상은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수직실로 들어갔다. 한 남학생이 급히 밖으로 달아나갔다.

잠시후 거방진 체구에 후덕스러워보이는 학장이 들어섰다.

《오셨군요.》

학장은 넙죽한 얼굴에 당황한 빛을 그대로 드러내며 응상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저리 가십시오.》

그는 응상을 손잡아 이끌었다. 밖으로 나선 학장은 어둡이 질게 깔린 교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귀나무, 잣나무들이 촘촘히 늘어선 도서관앞에 이르자 그는 걸음을 멈추며 중얼거렸다.

《제 편지를 받으셨겠지요.》

《받았습니다.》

고개를 주억인 학장은 침통하게 뇌이였다.

《며칠전에 교육성에서 X부상을 책임자로 한 겸열그루빠가 대학에 내려왔습니다. 이제야 무얼 숨기겠습니까. 실은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강의 내용들을 정치적으로 문제시하고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런단말이요? 그들이 생물학을 연구하며 그 모든걸 제힘으로 확증들이나 해보고 그런단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데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응상은 달아오른 얼굴을 번뜩이며 몸을 돌렸다.

《계선생!》

학장은 응상의 팔소매를 부여잡으며 만류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쩔수 없을 정도로 형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선생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 역시 생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론에서 의문되는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마디 했더니... 말도 마십시오.》

학장은 거방진 체구를 움츠리며 큰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해방직후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동대학장으로 부임되어온 사람이였다. 도내민민들의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기적과 같이 짧은 기간에 대학청사도 짓고 사처에서 학생들도 모아들였지만 당장 그들을 가르칠만한 교원이 없어 대학문을 열수가 없었다.

특히 농학부나 축산학부 같은데는 그런데로 몇 사람의 교원들을 청해올수 있었으나 잠학학부 같은데는 단 한사람의 교수도 초빙해올길이 없어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이럴즈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시 명망있는 잠학과학자로 알려져있던 계응상을 남반부에서 데려왔다는 소식이 대학에까지 전해졌다.

귀가 번쩍 뜨인 학장은 급히 평양으로 올라가 장군님께 계응상을 자기네 대학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올리었다.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런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계응상선생한테 찾아가 청을 들어보십시오.》

학장은 그길로 계응상을 찾아갔다. 한데 그에겐 이미 우리 나라 최초의 잠업연구기관인 X

잠업시험장 장장의 증책이 맡겨져있었다. 하나 응상은 학장이 자기네 대학에 와서 잠학학부를 지도해달라는 청을 흔연히 접수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벌써 장군님으로부터 그런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응상은 전적으로 대학사업만 맡아 볼수는 없었지만 겨울 한계절만이라도 대학에 나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때 학장은 이런 큰 학자를 자기네 대학으로 데려온데 대하여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했는가.

그는 계응상이 겨울한철만 대학에 나와있지만 그에게 대학가까이에 있는 별장을 하나 구하여 자택으로 쓰게 하고 그가 시험장에 가있는 봄, 여름에도 가정관리인을 두고 그 집을 깨끗이 거두게 했다. 그랬다가 그가 대학으로 나올림박에는 미리 방도 덥히고 집안을 정갈하게 거두어놓군했다.

또한 그에게는 늘 학생들의 주의가 산만해질수 있는 첫시간강의를 피하게 하고 오전 두번째 강의나 오후 첫번째 강의만을 하게 했고 눈이 내리어 길이 미끄러울 때는 집에서 강의실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도 않았지만 학생들을 보내어 자택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게까지 했었다.

이런 학장이 계응상에게 강의를 하러 나오지 말라는 편지를 내기까지에는 얼마나 큰 남모르는 고심을 했었겠는가. 사실 그랬다.

교육성부상은 학장의 사업태도를 엄하게 꾸짖었다.

《…지금 학장동무는 자기가 무엇을 두둔하고있는지 알고있소? 계응상은 일제놈들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놈들의 연구원에서 연구사업도 했으며 지어는 해방직후 미군정에 속해있던 수원농사시험장에서 복무한 일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가 많은 누에원종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므로 그 모든걸 무시하자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시오.》

부상은 응상의 강의록의 어느 한페이지를 긴 손가락으로 꺾꺾 찢으며 내뱉었다.

《…생물체들에 존재하는 이 물질은 생활조건의 변화에는 의존하지 않고 선조로부터 후대로 불변한 형태로 전달된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요?…여기에 그 어떤 비단보자기를 씌운다고 해도 이는 불멸하는 평혼을 주장하는 신학학설의 변종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있단말이요. …고등인종은 영원히 약소민족을 억압할 사명을 띠고 세상에 나타났다는거지.

생각해 보시오. 그래 우리가 악독한 일제놈들에게 자그만치 민족적멸시를 받았소. 그놈들의 발굽밑에서 신음해온 36년이 작다고 생각되는가말이요?》

학장은 어기가 막혀 대꾸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길 없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문제였던것이다. 하긴 그 나라에

서 대학자들 수백명이 다년간 대론쟁을 벌리던 끝에 최종적으로 결말을 지은 문제가 아닌가. 한데 제한된 그의 지식을 가지고서 어찌 그런 문제에 반기를 들어볼수 있으랴.

하지만 학장은 계응상을 일제에 추종한 과학자로서는 볼수 없었다. 응상이야말로 청렴과 결백의 상징이라고 할만큼 순결한 사람이다. 아직 변명이 그 무엇인지를 모르는 유년기의 어린애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그런 정직성을 말년에 이른 오늘까지도 고스란히 간직하고있는 희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밤사이 눈이 흠뻑 내렸다. 길에는 무릎이 잠기게 눈이 덮였다. 응상은 버선 신은 고무신을 눈길에 푹푹 잠그며 대학정문으로 들어섰다.

그는 본관 3 층에 자리잡고있는 잠학학부 교원실로 올라갔다. 젊은교원들은 전에없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책장조차 소리 안나게 넘기며 습들을 죽이고있었다. 응상은 입가에 쓰그운 빛을 띠우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누에해부생리학은 누가 강의를 하오?》

《못합니다.》

《작잠학은?》

《………》

교원들은 뻔히 마주보기만 하며 한숨들을 쉬었다. 교원실에는 숨막힐듯 답답한 공기가 떠돌았다. 응상은 소리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더는 물기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를 따라 소리없이 걸었다.

응성응성하며 첫시간부터 자체학습을 하는 교실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담당했던 잠학학부에서 정수과목이라고 할수 있는 과목들이 쑥 빠졌으니 잠학의 래일을 담당해야 할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찌될건가.

응상의 눈에서는 돌연 섬광과 같은것이 번뜩였다. 그는 성급히 교원실로 되돌아가 두루마기를 벗어 옷걸개에 걸어놓고 결연히 복도로 걸어 나갔다. 교원들속에서 수선수선하는 소음이 일어났다. 그의 등뒤에서 바빠 내닫는 발자국소리가 났다.

응상은 하급학년 교실옆을 지나 상급학년 학생들이 들어있는 어느 한 교실로 불쑥 들어섰다. 교실은 떠들썩했다. 코가 뻐죽한 한 학생이 교탁앞에 나서서 그 무슨 우스개소리를 하고있었다.

쉬쉬하는 소리가 나면서 학생들이 황망히 자리들을 정돈했고 교탁앞에 나섰던 코뻐죽이도 머리를 움츠리고 제자리로 달아났다.

응상은 이 모든것을 못본체하고 교탁앞으로 걸어 나갔다. 학생들은 조심스레 응상의 거동만을 살폈다. 귀가 멍멍할 지경으로 고요했다. 응상은 분필을 들어 칠판에 제목을 크게 썼다.

《누에색고치의 유전에 대하여》

그리고는 연락량모서리를 짝 그러쥐고 교실을 둘러보았다. 한데 놀랍게도 학습장을 펼쳐놓고 강의제목에 쓰는 학생들이 한명도 없었다.



《어찌된 일지요?》

《.....》

응상은 맨뒤줄에 앉은 학급장에게 물었다.

《사실대로 말해보요.》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난 학생은 떠듬떠듬 실로 했다.

《실은 선생님의 강의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받아쓴 학습장들까지 없애버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시정 강의까지 있었습니다.》

응상의 낯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끌어오르는 격분을 진정하지 못하며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뽕뽕한 교실의 공기를 흔들어놓고있었다.

응상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의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어쩔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심은데 콩이 나지 팔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는 격한 마음으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으나 곧 그러기를 그만두고 교실을 나섰다.

그는 학장실로 내려갔다. 그와 함께 성그루빠가 들고있는 방으로 건너갔다. 그는 곳곳한 자세로 부상한테 다가서서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엄연한 자연의 리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칠수 없게 한데 대하여 책임질수 있습니까?》

부상은 쓴웃음을 지으며 싸늘하게 뇌까렸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기전에 당신자신이 학생들 앞에서 반동적인 강의를 한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될것ियो.》

《나는 생물체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법칙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을뿐ियो. 그것을 인종론과 결부시키는 당신들이야말로 주관주의자들이며 기계론주의자들이란말요.》

응상은 리성을 잃고 격하여 선언하듯 부르짖었다. 부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코살을 찌프리며 팔을 내저었다.

《괘변을 늘어놓지 말고 돌아가시오. 당신은 학부장의 직책에서 해임되였소.》

《알겠소.》

응상은 성그루빠출입문을 후려닫고 횡하니 밖으로 나섰다. 차시간은 아직 멀었지만 그길로 안해를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어슴푸레한 연구내에는 찬바람이 몰아쳤다.

《쩍-》

려객렬차가 성난 소리를 지르며 정거장으로 들어서고있었다. 온몸이 찻찻하게 언 학장은 곱은 손으로 응상에게 차표를 내밀었다.

《아무쪼록 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올려주

십시오. 저도 일간 평양에 올라가 장군님을 만나 뵈옵고 여기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요.》

목메여 속삭이는 응상의 가름한 얼굴에는 헤아릴길 없는 고뇌의 빛이 깃들어있었다. 기차는 또 다시 갈린 소리를 내지르며 칙칙뚝뚝 역구내를 빠져나가고있었다.

## 4

대학에서 돌아온 응상은 벌써 며칠째 자기의 사무실에 들어박혀 봄, 여름내 시험장에서 진행한 각종 실험결과들을 분석종합하는 사업에 전심 전력하고있었다.

농대에 나가서 겨울을 날것처럼 차비하고 떠났던 응상이 사흘도 못되어 되돌아오자 시험장에서는 그에 대한 각양각색의 흥흥한 말들이 떠돌았다. 그것은 우선 응상의 연구조수들에 대한 로골적인 압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명길동이! 똑똑한 제정신 가지구 일하라구. 장장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구 해서 덮어놓고 예, 예 했다간 큰코다쳐.》

명학부장장은 해부실에 들러 다른 조수들도 다 들으란듯 울려했다. 길동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남모르는 맘고생을 하느라고 눈만 커다래졌다.

한때 계응상이 인정사정없이 자기네들을 내몬다고 누구보다 입바른소리를 많이 한 그였으나 차마 그가 하라는 실험사업까지 거부할수는 없었다. 그는 반년전부터 응상의 특별지시를 받고 《천잠》이라는 산누에의 생리적특성을 관찰하고있었다. 이 야생누에는 산중에 혼한 상수리나무와 떡갈나무잎을 먹고 자라는것인데 그것이 짓는 누에고치는 천연의 풀색을 띤것으로서 실의 풀림새도 좋거니와 그 질이 유별났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산중에서 천잠을 하고치 두고치 따다가 실을 뽑아서 청주라는 희귀한 비단을 짰는데 천발이 하도 고와 신선이나 입는 비단이라고들 하여왔다.

응상은 이 천잠과 보통누에를 교잡하여 천감이 가지고있는 특별한 형질을 이어받은 새 품종의 누에를 만들어내려고 구상하고있었다.

이제는 그것도 큰 문제거리로 되고있었다. 응상은 이미 만천하에 그의 부당성이 드러난 고전생물학을 리용하여 중간섞불임을 진행함으로써 그의 반동성을 결정적으로 비호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장장이 동무한테 천잠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는 리유가 무엇인지 아요? 동무는 벌써 그의 은밀한 거미줄에 걸려 버둥진하는 가련한 잠자리의 신세로 되고있단말ियो.》

부장장은 명길동을 따로 불러 경고를 했다. 길동은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이렇

게 말썽많은 연구사업을 하느니 고향마을로 돌아가  
가 년로하신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누에를 치는것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길동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계응상에게 청을  
대보기로 했다. 단층집은 고즈넉했다. 출입문유리에  
새겨놓은 《면회사절》이라는 표식은 여진히  
그를 랭담하게 맞이했다.

길동은 주춤했다. 그 누구도 응상을 만날수 없  
는 시간이었던것이다. 하나 길동은 용기를 내어  
출입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응상은 뜻밖에도 길동을 반갑게 맞이했다.

《명길동인가?!》

그는 의자를 내놓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  
다.

(모두들 나를 저버리는줄 알았더니 자네는 그  
래두 이렇게 찾아왔구만.)

그의 눈길은 이렇게 속삭이고있는듯했다.

길동의 가슴은 타는듯 피로왔다. 의자 한쪽에  
걸터앉았지만 선뜻 찾아온 용건을 터놓을수가 없  
었다. 그러나 오직 응상의 연구조수로 일한다는  
그것때문에 못사람들로부터 받던 수모와 비난의  
눈초리를 상기하자 머리를 들었다.

《선생님, 저...》

그는 공공 갑자르며 말문을 열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  
다.》

《뭐라구?》

길동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응상의 그윽한 눈에  
뿌잇한 안개가 서리였다. 그가 어찌 명길동의  
심정을 헤아려보지 못했으랴. 자기의 처지가 이  
런 지경에까지 이르러 그의 조수들까지도 곤경을  
겪고있다는것을...

하지만 그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답답한 목  
소리로 말했다.

《우린 지금 어려운 일을 붙잡고있네. 자네도  
잘 알다싶이 천잠과 작잠 사이는 닭과 꿩, 공작  
과 철면조, 집오리와 들오리간처럼 류연이 먼 관  
계에 있는 종들이 아닌가. 아직은 발전된 나라의  
생물학자들도 이런 중간교잡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네. 이런 전례없는 일을 하자니 남다른 노  
력을 경주하지 않을수 없는게 아니겠나. 머물어  
물하다가는 우리 당대에 해내기가 어려울수도 있  
네. 그런데 자네마저 이 사업에서 물러서면 어떻  
게 되겠나?》

《선생님, 그런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병약한  
어머니 한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겠습니다.》

명길동은 응상의 시선을 피하며 어떻게 하나  
자기를 변명해보려고 했다.

《어머니는 제가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  
다리고계십니다.》

《그래?!》

응상은 안색을 흐린채 한가닥 희망을 품고 간  
청 하다싶이 당부했다.

《물론 어머니두 모셔야지. 하지만 자네가 우리  
인민모두에게 옛날 신선들의 날개였다는 청주와  
같이 희귀한 비단이 골고루 차례지게 하는 큰일  
을 했다면 자네 어머니두 기뻐하지 않을까.》

응상은 꼭진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지 말구 나와 손잡고 이 연구사업을 끝까  
지 해보자구, 응.》

명길동은 가슴이 저려왔다. 이렇듯 절절한 호  
소마저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도록  
피로왔다.

《선생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 역시 선생님결  
을 떠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는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길동은 눈물을 떨구며 응상의 방을 나섰다.

《좌르르-》

미닫이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길동을 병  
하니 바래운 응상의 눈에 한량없이 구슬픈 빛이  
서리였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조수마저 그의 결  
을 떠나고말았다.

방안에는 또다시 그 혼자만이 남았다. 책상 한  
쪽에 풀어놓은 손목시계의 초침소리마저 귀전에  
울려올듯 숨막힐듯한 정적이 깃들었다.

《면회사절!》

과학탐구를 위해 단 한초의 시간마저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만들어놓은 엄한 질서마  
져 이 시각만은 그자신을 질식시키는 함정으로  
되고만듯싶었다.

어느 한순간도 감상에 잠겨 연구사업을 중단해  
본적이 없는 그였건만 이날만은 지혜롭고 주의깊  
은 선량한 눈매에 헤아릴길 없는 슬픔을 담고 오  
래도록 정원을 거닐었다.

스무나무의 잔가지들에서 참새떼가 우짖고 아  
찔한 백양나무우듬지에서 까치가 깍깍 울었다.  
(못새들은 모두 사라지고 향촌의 정다운 새 너만  
이 어느때도 이 땅을 저버리지 않는구나.)

산란한 마음의 한갓피를 무심한 새에 부쳐보기  
도 했다. 그래도 철없는 팔자식들은 집안으로 들  
어온 아버지한테 감겨들며 응석을 부렸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때려줬어요.》

《그래!》

《오늘 학교에서 5점 맞았어요.》

《그래!》

《아버진 그냥 그래그래...》

《허허...》

응상은 딸애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쓸쓸하  
게 뇌이였다.

《사람들이 모두들 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구나. 너희 어머니까지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들만은 그래도 이 아버지가 좋단말이지.》

호수같이 그윽한 그의 두눈에 눈물이 그렇하였다. 안해는 사뭇 놀라움에 차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에게도 인간생활의 고통을 느낄줄 아는 한 심장이 있었더라면말인가.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다. 정원에서 울리는 나무가지들의 흔들림소리도 은은하였다.

응상은 두손으로 얼굴을 고이고 굳어진듯 움쩍하지 않았다. 그는 무서운 고독의 심연속에서 지나온 일생을 돌이켜보고있었다. 불현듯 그의 가느스름한 얼굴은 치명상을 받은듯 무섭게 이그러졌다.

응상에게는 과학보다 더 신성한것이 없었다. 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이바지하게 될 과학적 성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달갑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자랑으로 여겼다.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그는 자기의 이 신조를 추호도 굽혀본적이 없다. 한데 이제 그는 무엇에 마음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의 유일한 벗이며 살붙이나 다름없는 과학적결실마저 사람들로 부터 버림을 당하고있지 않는가. 그는 과학이 아니라 자기의 전존재를 부정당하고있는듯하였다.

그는 문득 악몽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흔들었다. 갑자기 두눈을 습벽이며 놀람에 차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명 어디선가 가장 가까운곳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오고있었다.

《계선생! 무슨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혈벗은 인민들에게 옷을 해입히는게 급합니다.》

응상은 두눈을 번쩍 뜨고 문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아무도 없었다. 하나 다감한 어머니의 애무의 속삭임인양 마음속 가장 깊은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에 심신을 고스란히 맡기었다. 그 무엇도 숨겨본적이 없는 깨끗한 그의 심장은 오직 그 소리만을 귀기울여 듣고있었다.

## 5

계응상은 며칠사이에 눈에 뜨일 지경으로 수척해졌다. 빠름한 턱은 더욱 예리하게 벼려진듯있었고 가무늬한 눈섭아래 까딱하지 않는 두눈은 류달리 날카롭게 번쩍이었다. 하여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비상한 각오를 도사려먹은 사람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레사롭지 않은 인이 찍혀진듯했다. 그는 전보다 더욱 집요하고 완강하게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뿔발우로 떠오른 해가 창문으로 기웃이 얼굴을 들이밀고있었다. 창문 맞은켠 벽을 어루만지던 해빛은 발뼉발뼉 책상위로 기어올랐다.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말소리와 조심스레 옮겨짚는 무거운 신발소리가 났다. 범상치 않은 소음이었으나 그는 여전히 바닥없는 사색의 나락으로 깊이 잠겨들고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미닫이출입문이 가만

히 열리는가싶더니 어느결에 방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하나 응상은 손바닥으로 한쪽볼을 고인채 까딱하지 않았다.

《여보-》

흐느끼는듯한 안해의 목소리에 응상은 머리를 들었다. 안해는 입귀를 실룩이며 간신히 뇌이였다.

《장군님께서 시험장에 와계세요.》

《?!》

《그분께서 방금 당신의 사무실뜨락까지 찾아오셨었어요. 문밖에서 걸음을 멈추신 장군님께서서는 출입문에 새겨놓은 표식을 보시고는 같이 오신 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선생의 연구사업을 방해하지 말고 우선 시험장구내나 걸어봅시다.> 라구 하시면서 신발소리를 죽이시며 발길은 돌리셨어요.》

《국사에 바쁘신 그분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응상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한테 찾아와 그 말을 하오?》

그는 안해를 나무리였다. 그리고는 황황히 무명바지저고리에 털등거리를 걸치고 집안에서 일하던 차림새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 했다.

《여보! 그 옷...》

《그렇지.》

응상은 급히 명주바지저고리로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다.

《응상선생!》

뜨락에서 서성거리던 중년의 남자가 웅글은 목소리로 부르며 다가왔다. 퇴우에 놓인 흰고무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던 응상은 눈가에 가지 주름을 지으며 상대를 쏘아보았다.

거기에는 농업대학에서 만났던 교육성부상이 서있었다. 그는 씩씩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오.》

응상은 그의 차디찬 손에서 자기의 손을 거두며 싸늘하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때문에 날 찾아왔소?》

《.....》

응상은 미간을 찌프렸다. 그들은 얼마간 사이들 두고 묵묵히 정원으로 걸어갔다.

○○농대에 대한 지도사업을 끝마치고 평양으로 올라간 부상은 그에 대하여 곧 경애하는 수령님께 보고를 드릴 생각이였다. 그러나 이때 수령님께서서는 황해도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 현지지도를 나가시고 계시지 않았다. 부상은 후날 조용한 틈을 타서 그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리리라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에 달라붙었다.

한데 뜻밖에도 엿저녁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주시였다. 급히 의논할 일

이 있으니 왔다가라는 것이었다. 부상은 대학에 나갔던 그루빠성원들과 함께 총화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책상우에는 그이의 비준을 기다리는 문건들이 무더기 쌓여있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그 모든 중요한 문건들을 한쪽으로 미루어놓으시고 과학잡지들을 들여다보고계시었다.

그 잡지들의 표제에 눈을 준 부상은 흠뻑 놀랐다.

《농업 생물학》, 《자연》 특간호... 그리고 얼마 전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생물학자들의 국제대회에 대한 통보자료들...

그이께서는 그 잡지들에서 시선을 떼시고 신중한 기색으로 물으시었다.

《동무가 ○○농대에 지도사업을 나갔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 대학 학장동무두 나한테 왔었습니다. 그리고 잠업시험장 부장장동무가 나한테 계응상동무의 사업작품에 대한 편지를 보내온것도 보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동무의 견해를 자세히 듣고싶어 이렇게 찾았습니다.》

부상은 한껏 긴장해졌다. 그는 사업수첩을 펼쳐 놓고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성에서는 ○○농대에서 최근에 내내 <고전생물학> 강의를 하고있다는 놀라운 소식에 접했습니다. 실태가 너무 엄중한 것이었기때문에 긴급히 성 자체로 그루빠를 조직해서 대학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예견했던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생물체를 지배하는 그 어떤 기전이 존재한다는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리론이 공공연히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되고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어 대학내에 잠학연구실까지 꾸려놓고 그 리론을 확증하는 실험사업까지 진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강의를 직접 담당하고있는 계응상에게는 온갖 특혜까지 베푸는 참을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제때에 나가보았기에 망정이지 큰 정치적 손실을 입은번했습니다. 그래서 계응상을 학부장직에서 해임시키고 그가 이미 진행한 강의내용들에 대해서도 똑바른 견해들을 가지도록 시정강의를 여러차례 조직하였습니다.》

부상의 말을 끝까지 주의깊게 듣고나신 수령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그이께서는 책상 한쪽에 놓인 시험장에서 보내온 편지에 다시 눈길을 주시었다.

《...우리는 더는 그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사업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장 전체 성원들의 일치한 견해입니다.》

수령님께서 그 편지를 부상에게 내미시었다.

《보시오.》

부상은 편지를 읽고나서 뒷볼였다.

《제가 료해한데 의하면 그는 전형적인 자본주

의식 연구방법을 시험장에 확립해놓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박한 생활태도에 대해서는 머리를 찢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창가에 다가서신 그이의 얼굴에 정원등의 은은한 빛발이 어룡이였다.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사무상앞에 다가앉으시여 빼람에서 한편의 책을 꺼내시여 부상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었다.

《이 책을 보았습니까?》

책표제에 눈길을 준 부상은 두눈을 금박이였다. 그것은 얼마전 북조선인민위원회 농림국 농림연구부에서 우리 나라 농림수산연구론문 제 1 호로서 출판한 계응상의 논문 《가잠의 유전에 관한 연구》였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부상은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보지 못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물으시었다.

《동무는 누에가 동물계에서 어느 목, 어느 파에 속하는지 알고있습니까?》

《예?!》

부상은 어리둥절하여 떠듬떠듬 지구상에는 150만종의 동물이 있는데 그중 70만내지 100만종이 곤충으로 조사되어있는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그것이 어느 파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렇것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나도 이번에 생물학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야 이런 문제도 정확히 알게 되였습니다.

누에는 몸과 다리가 여러개의 마디로 되어있으므로 절족동물문이고 그의 성충은 세쌍의 다리가 있으므로 6각류 즉 곤충강에 들고 곤충강가운데서도 날개가 있기때문에 유시아강에 들며 또 날개에 비늘이 있어 린시목에 속하고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활동하는것이라구 해서 밤나비목에 들어있습니다. ...

내가 왜 이런것을 렬거하는지 압니까. 현대생물학은 오래전에 생물체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과학자가 누에의 세포속에서 그의 형태와 성질을 지배하는 인자가 있다는것을 확증했다면 그것은 벌써 밤나비목에 속하는 누에에만 한한것이 아니라 절족동물문 전체에도 해당하는 문제, 나아가서는 모든 동식물과 관련되는 문제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응상선생은 그 논문에서 지구상에 번식하고있는 수백종의 누에를 출발재료로 리용하여 수천수만번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그속에서 그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백여가지의 형질을



찾아 냈다고 강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그의 이론이 반동적이라고 규정할수 있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부상의 등실한 얼굴에서 눈길을 떼이지 않으시였다. 부상은 어안이빙빙하여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물론 제가 이러한 결심을 내리게 된것은 제 자신이 과학적실험을 통하여 체득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저는 수천수만의 과학자집단을 가지고있는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있기 때문입니다.》

수령님의 안광에 엄한 빛이 어리시였다.

《그 모든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의 특수한 조건에서 산생된것입니다. 내가 리해한데 의하면 그 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산생된데는 반파쑸적인 깊은 감정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여 다 정당한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새것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속에 있습니다.

부상동무! 동무는 큰 잘못을 저질렀소.》

《예?!》

《그렇소. 계응상선생의 이론이 어떤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요.》

수령님께서서는 두눈을 번쩍이시였다.

《그가 과학연구에서 착오를 범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과학적론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를 정치적비난의 근거로 삼는것을 반대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과학적론쟁에 대해서는 절대로 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식적인 론의로 보는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피로운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시였다.

《동무는 시험장에서 보내온 그 편지를 보고 생각되는게 없습니까? 동무의 그런 조치로 인하여 시험장에서는 계응상선생의 연구사업이 끝장난것으로 여기고 그의 지도를 받을수 없다고 들고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수령님!》

부상은 안타까이 말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군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 나라에서 그렇게도 중대한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수 없다고 믿었을뿐입니다.》

《?!》

수령님께서서는 놀라우신 눈매로 부상을 이윽도록 보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진것만큼 문제를 해명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우선 우리 과학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래일

아침 잠업시험장에 함께 나가봅시다.》

하여 부상은 이날 아침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이렇게 평양에서 사백여리나 떨어진 잠업시험장까지 찾아오게 되었던것이다.

## 6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서리가 채 녹지 않은 시험장정원의 나무그늘밑을 천천히 거닐고계시였다. 그이께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연가랑잎 밟히는 소리가 울리였다.

《...그렇기때문에 동무는 응상선생을 고립시켜 놓았던말이지요?》

배명학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발밑에서는 락엽 부서지는 소리가 더 자주 일었다.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부장장과의 담화를 끝맺으시였다. 이때 계응상이 발끝으로 돌부리를 차는것도 의식하지 못하며 정원으로 황망히 다가오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마주 걸어나가시여 응상의 손을 힘있게 잡으시고 수척한 그의 얼굴을 지켜보시였다.

《시험장구경을 왔습니다. 실험잠실들을 좀 돌아볼수 없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예.》

응상은 너무도 흥분하여 몸들바를 모르며 누에 교잡시험장으로 그이를 안내했다.

시험장 깊숙이 들어앉은 회색지붕의 기다란 교잡시험장안에서는 바야흐로 고치짓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자그마한 칸들의 덕대우에 빈틈없이 얹어 놓은 잠박마다에는 각양각색의 누에고치들이 오골오골했다.

으능한 복도를 거쳐 1호잠실에 들어선 응상은 수령님께 잠박들우에 따로 갈라놓은 금색고치와 풀색고치들을 보여드렸다. 이것이야말로 생물체의 《환경지배설》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비과학적》인 연구방법이 적용된것이었던 것이다.

뒤따르던 일행들도 모두 그것을 눈치채고 조마조마해하는 기색들이였다. 부장장은 눈망울을 휘둘리며 응상을 흘겨보고있었다.

응상은 그런데는 눈꼬리 하나 돌리지 않고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이 시험잠실에서는 서로 계통이 다른 누에들을 교잡하여 2대, 3대의 후대들을 얻어내고있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1대잡종은 물론 그 다음 후대에서도 규칙적인 갈림비를 나타내고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연구방법을 비과학적인 수학적-통계학적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입니다.》

응상은 부상과 부장장쪽을 피곳 바라보며 도전적으로 뇌이였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누에에서 나오는 이것을

부인할수는 없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잠구형으로 생긴 금색고치와 풀색고치들을 일일이 세여보시고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명학은 두눈을 썩뜨고 《수령님!》 하고 기여드는 목소리로 교잡결과가 규칙적이 아닌것도 볼수 있다고 두서없이 몇마디 했으나 그것은 누에형질의 각이한 유전에 기인하는것이라고 응상이 단마디로 일축해버리자 목을 움츠리고 말았다.

수령님께지는 두눈을 빛내이시며 같은 실험을 진행하고있는 잠실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었다. 잠실마다에는 흰색, 붉은색, 살색, 풀색 고치들이 가뿔이 차있는데 그것들도 약속이나 한듯이 일정한 비율로 갈라져나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신기할 정도였다.

응상은 활기를 띠우고 넓은 방으로 수령님을 모시었다. 천정과 벽이 온통 유리로 덮인 방안에는 해빛이 넘치는데 방한쪽에는 길이 넘는 피마주가 싱싱하게 자라나고있었다.

그 이쪽에 종종히 없어놓은 잠박에서는 연록색을 띤 실한 누에가 피마주잎을 와삭와삭 먹어대고 있었다.

《수령님께서 금년봄 우리 나라 누에로 만들어 보라고 보내주신 남방누에입니다.》

《그래 가능할것 같습니까?》

《예, 실머리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었다.

《흥미있는 비단실누에입니다. 이 누에를 고치를 짓고 겨울을 날수 있는 품종으로 만들기만 하면 대단할것입니다. 온 나라의 빈터마다에 피마주를 심고 비단실누에를 키울수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결 마음이 누긋해진 응상은 신심에 넘쳐 대답을 드리었다.

《또 무슨 잠실이 있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나머지 잠실들을 모조리 다 보시자고 하시었다. 다음은 천잠을 키우던 시험잠실이었다. 응상은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릴가봐 그 앞만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물으시었다.

《이 방에서는 무슨 누에를 시험하고있습니까?》

《저 천잠이라고 하는...》

《알만합니다.》

그이께서는 맨뒤쪽에 낫없이 서있는 부장장에게 물으시었다.

《이 방이 고향으로 가버렸다는 나 어린 연구조수가 책임지던 그 잠실입니까?》

《예.》

부장장은 잦아드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들어가봅시다.》

수령님께서서는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응상은 출입문을 열었다. 잠실은 어수선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안으로 성큼 들어 서시었다. 은근하면서도 파르스레하고 기막히게 물색고운 천잠누에고치를 손에 드신 그이께서는 숙연한 빛으로 말씀하시었다.

《이 야생누에고치를 보니 백두산에서 있는 한 가지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궁벽한 산골마을에서 살고있던 한 화전민이 나한테 희귀난 비단으로 만든 조끼를 선물로 보내여왔습니다. 그 조끼의 색깔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게 다름아닌 이런 천잠이었겠습니까. 다른 색고치는 물에 담그면 다 색이 날지만 천잠은 아무렇게 해도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그런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이채로운 비단을 뽑을수 있는 새로운 누에품종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흥분하시고 격동되시여 잠실을 나서시었다. 잔물결인양 조심스레 불어오는 바람이 시험장구내의 나무가지들을 가볍게 흔들었다.

좌- 높이 솟은 백양나무가지에서 마지막 나무잎들이 새떼처럼 날아내리었다. 샘물처럼 청신한 공기를 한껏 호흡하시며 걸음을 내짚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낮추 드리운 나무가지를 휘여잡으시고 응상에게 말씀하시었다.

《여름철이면 여기에 록음이 짝 들어차겠습니까.》

《예.》

그이께서는 정원에 총총히 들어선 스무나무, 상수리나무, 황경피나무, 가죽나무들을 오래도록 눈여겨보시며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었다.

《저 정원수들도 모두 누에와 인연이 있는 나무들 같군요.》

《그렇습니다.》

응상은 깊은 감동에 잠겨 대답을 드리었다.

시험장이층 민주선전실에는 당번을 서는 잠실관리공 몇사람을 제외한 시험장전원이 모여앉았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모임은 시작되지 않았다.

시험장구내를 부살같이 빠져나갔던 수령님의 승용차가 바람같이 시험장마당으로 들어섰다. 차에서는 뜻밖에도 어리둥절한 명길동이 내리었다.

그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야 수령님께서서는 선전실로 들어서시었다. 자신의 옆자리에 계응상을 앉히신 그이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장내를 둘러보시었다.

부장장은 고개를 수긋한채 맨앞자리에 앉아있었다.

《어느 동무가 명길동동무입니까?》

수령님께서 물으시었다. 부름을 받은 길동은 두눈이 둥그래서 《예.》 하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님의 병환은 좀 어떻습니까?》

당황하고 흥분한 길동은 수령님의 물으심조차 알아듣지 못했다. 옆에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일깨워주어야야 그는 남의 소리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별고없습니다.》

길동이 자리에 앉자 수령님께서서는 계응상에 게로 몸을 돌리시며 말씀하시였다.

《응상선생! 선생이 하고계시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이 동무들에게 자세히 좀 말씀해주시시오.》

《제가요?!》

엉거주춤 몸을 일으킨 응상은 문득 옆에 앉은 교육성부상과 눈길을 마주치였다. 낮이 벌개진 부상은 굳어진듯 껄긔해서 앉아있었다. 한데 얼마전 까지도 부상이 금지시켰던 그 말을 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선생! 이 동무들에게 누에에서 실지 나오는 그 모든것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응상은 목구멍을 확 메우는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며 생물학연구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새로운 누에품종육성의 가능성에 대하여 격동에 차서 터놓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온대지방의 기후조건에 맞는 똑바른 누에품종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공도태에 의한 품종개량사업이 거의나 진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 분야는 미지의 처녀지와 같아서 새 품종의 누에육종에서 변이의 가능성이 무진장하다. 실지로 그것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에 알맞는 새 품종을 육종하는 과정에 우리는 도태의 방법에 의하여 누에들을 개량할 때 도달할수 있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교잡시험들에 의하여 유연이 먼 종들간의 교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신심을 굳히였다.

이미 우리가 손아귀에 거머쥔 백여가지의 누에의 형질을 우리의 요구대로 결합시켜나간다면 우리가 희망하고 념원하는 각양각색의 비단실누에를 수없이 만들어낼수 있다. 실제로 그 결실이 손에 잡힐듯 눈앞에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시험장사람들은 경의에 찬 눈으로 계응상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응상장장이 사람들앞에서 연설을 하는것을 아직 보지 못했으뿐만아니라 그가 이처럼 설득력있게 감동적으로 자기의 연구사업에 대하여 말할줄 아는 사람이라는것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기들의 장장이 그런 사람이였다는것을 다름 아닌 수령님께서 깨우쳐주셨다고 생각하니 가슴들이 뜨거워지였다.

출렁이는 장내를 한눈에 일별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어떤 리론이든지 그의 진리성이 확증되자면 그렇게 인정할만한 충분한 론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론거들중에서도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고 인민들에게 파악된 진리보다 더 위력한것은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계응상선생은 새 조국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훌륭한 비단실누에품종을 수없이 육종하여 우리의 수백만 농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부장장동무!》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맨앞줄에 고개를 꼭 숙이고있는 배명학을 부르시였다.

《농촌에 더러 나가봅니까?》

《예, 이따금씩 나가봅니다.》

명학은 떠듬떠듬 대답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농민들이 계응상선생이 육종한 <국잠 47 호>나 <국잠 43 호>와 같은 비단실누에품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들 하는지 알아보았습니까?》

명학은 목까지 벌개가지고 기여드는 소리로 대답했다.

《고치를 잘 틀고 병에 견디는 힘도 크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것 보시오. <국잠 43 호>나 <국잠 47 호>를 농민들이 모두들 좋다고 합니다. 농촌에 나가면 농민들이 나더러 그런 누에알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제기해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 동무들은 휴일날이나 명절날 거리에 나가보면 그 결과를 뚜렷이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나들이옷차림으로 명주옷 한벌씩은 다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민들이 비단옷을 입고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도록 하는데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과학자를 반동학자라고 합니까?》

배명학은 상이 하얗게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수령님께서서는 목단추를 풀어놓으시고 천천히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오늘 시험장을 돌아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선생은 지금 자기의 과학연구사업에서 풍요한 수확기에 살고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금 진주와 보석들이 한벌씩 깔려있습니다. 선생은 지금 그 보석들을 남김없이 거둬들이려고 조급해하고있습니다. 눈 한번 팔새없이 자기의 목표를 향해 줄곧 내달라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야흐로 산이 많은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무진장하게 자라나는 활엽수들에서 비단실고치를 딸수 있는 새 품종의 누에를 눈앞에 보고있으며 한해살이 식물을 도처에 심고 누에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키울수 있는 세계의 온대지방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새로운 누에를 만들고있으며 지어 희귀한 야생누에고치를 집누에로 만들



기 위한 대담한 연구사업까지 하고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의 일부 과학자들이 떠돌고있는 데 의하면 웅상선생의 이론으로써는 생물체의 본성을 파악할수도 없고 육종해낼수도 없다고 비방중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계선생은 그 이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생물육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있습니다.

그들이 더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세포핵속에서 생물체를 지배하는 귀중한 인자를 매일과 같이 보고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물변증법입니다.》

웅상은 확 달아오르는 가슴을 진정할길이 없었다.

(아, 어쩌면 수령님께서 제가 더듬고있는 그 깊은 과학세계까지도 이렇게 속속들이 헤아려주십니까!)

웅상은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더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그저 끝없는 행복감에 심신을 맡긴채 어디론가 가없는 환희의 광야로 훨훨 나래쳐가듯만 싶었다.

수령님께서 정색하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들, 제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의것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웅상선생의 연구사업을 지연시키면 그만큼 귀중한 진주와 보석들을 어이없이 잃게 되고 맙니다. 그가 파고드는 황홀한 과학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가 얼마나 큰 자기희생을 하고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처럼 가혹하면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그러한 생활을 거둬할 비상한 각오를 품고 과학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일찌기 과학탐구에 성공한 그에게는 거액의 재산과 안락한 생활이 약속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조국으로 돌아올 때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껴여진 무명옷 한벌밖에 걸친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이런 청렴결백한 과학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약점들을 트집잡아 그의 뒤다리를 잡아당기고 괴롭히는 참을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장내에서 《혹》하는 흐느낌소리가 터졌다. 수령님께서 부관을 보내시여 데려온 명길동이 두팔에 얼굴을 묻은채 어깨를 들먹이였다. 여기저기에서 빠져린 자책의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부상도 못볼것을 본듯 고개를 떨구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끝으로 장내를 둘러보

시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 자리에서 동무들에게 중요한 한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웅상선생이 이룩한 과학적업적들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우리 나라의 첫 농학박사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시험장사람들도 모두 따라 일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로 계웅상을 축하했다. 웅상의 두눈에서는 불구슬같은것이 번쩍이고있었다...

그후에도 일부 나라 생물학계에서는 《환경지배설》을 내놓은 사람들이 지도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자기네 이론의 경이적인 《성과》를 요란하게 떠들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과학원을 창립하시면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일부 사람들이 반동학자라고 하던 계웅상을 우리 나라 농업과학원 초대원장으로 내세우시었다.

웅상은 그 믿음에 보답했다. 그는 당시 세계 생물학계가 의문에 붙이던 중간교잡에 성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누에품종이며 주체적인 잠업발전의 밑천으로 된 귀중한 누에품종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과학적판단은 력사의 흐름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증명되였다. 《위대한 발견》을 성급히 내두르던 생물학자들은 과학의 위조자, 속이 텅빈 사변철학가들이었다는 것이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것이다.

× ×

저명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일생에 대하여 추상기, 일기 등으로 기록을 남긴다. 세월이 흐르면 그것 역시 그들이 수행한 업적과 더불어 후대들에게 전해질 귀중한 재부로 된다.

그러나 계웅상은 우리들에게 그자신이 저술한 선집들, 새로 육종한 비단실누에외에는 남겨놓은 것이 없다.

그는 일생동안 단 한페지의 일기도 쓰지 않았다. 마지막 한초까지도 오직 창조를 위한 실천에 바쳤다.

하나 그의 심장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는 생의 최후의 순간에 남긴 말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나의 과학연구사업과 인간됨을 깊이 이해해주신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뿐이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간의 깊은 이해와 이끄심을 받은 오직 그 때문에 나의 일생은 무한히 행복하였다.

이것은 내가 일생동안 탐구해온 그 모든것보다 한없이 귀중한 나의 진리였다.》

# 창광거리에서

계훈

이렇게 거닐게 해다오  
거리여, 창광거리여  
생각깊은 창문들이여

너의 아름다움에  
너의 그 장엄함에  
가슴은 설레이고 설레어도  
끝없이 걸기만 하는 이 마음

조화롭고 우아한 건물들이  
파도처럼 펼쳐질 때면  
마음은 그 어떤 노래가락에 취한듯  
수려한 금강의 메부리인양  
힘있게 솟구쳐오른 수십층의 건물들  
그앞에 조심히 다가설 때면  
이 가슴 후련히 열려  
저도 몰래 소리치며 일떠서는 마음

은근한 연청색 벽체들이  
부드럽게 웃어주기도 한다  
그때면 마음은 꿈나라에 실린듯  
진한 노을빛에 젖어  
번쩍이는 창문들을 바라보며  
어느덧 생각은 깊어져...

무엇이나 이것이  
무엇이나 이 마음이  
거리여, 빛나는 창문들이여  
너와 함께 생각깊은 이 마음은...

건설의 조화만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킬수 없거니  
여기에 든 귀중한 재부와  
여기에 든 로력과 재능만으로  
우리를 이처럼 놀래울수 있으랴

돈도 재부도 기술도  
우리에게만 있는것 아니거니

먼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한 창조물이  
어찌 한둘뿐이라

그러나 이것만은 명백하거니  
구름우에 솟았다는 마천루는  
허세와 위선을 위한것이었고  
고대의 왕궁이며 사원의 침탑들  
그 번쩍이며 화려한것들은  
하나의 군주와  
속된 자랑과 위엄을 위한것 아니었던가

하나 창광거리여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거리를  
인간존엄의 큰 자욱으로 디디고 일어난 거리!  
너의 이 우아하고 장엄함도  
인민을 위한것  
로동하는 우리를 위한것

거리여, 노래하자  
우리함께 이야기하자  
너를 일떠세워주고  
나를 이 거리의 주인이 되게 해주기 위해  
여기에 대담한 구상의 작전도를 펴고  
창조만능의 손길을 얹은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을!

어디에 서보아도  
걸어보아도  
목메이는 그 사랑  
층계를 올라보아도  
벽을 쫓아보고 쫓아보아도  
가슴에 젖어오는 그 사랑

하나를 만들어도  
인민을 위하여  
하나를 건설해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어  
낮에도 밤에도  
이 거리에 빛발친  
우리 당의 그 불빛

내 오늘 이 거리를 걸으며  
주체라는 그 심원한 진리를  
가슴치며 다시한번 새겨넣거니  
인간존엄이란 말-  
아, 그것은 정녕  
로동하며 사는  
나를 위해 태어난 말이었구나!

끝없는 생각이여, 바람결이여  
젖어드는 이 불을 어루만져다오

거리여, 창문들이여  
너희들도 나와 함께 웃으며 번쩍이자  
이제는 거창한 네앞에  
인간존엄의 큰 날개를 펴고  
내 마음 수십층 건물보다 더 높이 날으거니

지구우의 모든 거리를 향해  
곧추 뻗어간 이 거리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으로  
힘차게 뻗어나간 이 거리에서

웨치고싶구나  
창광거리여  
너는 향도의 태양이 밝게 빛나는  
조선의 공지가 넘치는 거리  
너는 사람들이 그리던 리상의 거리  
나는 그 거리를 활보하는 첫 공민이다!

##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6월 4일문학상》이 나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 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1977년 6월 4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군중문학창작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었다.

당중앙이 취한 조치에 의하여 군중문학창작사업에서는 전례없는 양상이 일어났으며 날을 따라 그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광범한 군중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창작적열의를 적극 고무하여 사상예술적으로 더욱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중앙에서는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6월 4일문학상》을 새로 내오도록 하여주었다.

문학상은 해마다 6월 4일을 계기로 한해동안 창작발표된 문학통신원들의 작품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작품들을 각각 1편씩 선정하여 작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수여한다.

문학상을 수여받는 문학통신원들에게는 금메달과 함께 증서를 수여한다.

모든 문학통신원들은 사상예술적으로 특출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천암산

## 백보흠

《대체로 사람은 로년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자기의 한생을 놓고 자주 깊은 회억에 잠기게 된다.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인생의 교훈을 주고싶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광산개발에 일생을 바친 광업가 박종환 로인이 쓴 《교훈사》의 첫머리이다. 그는 평생에 많은 광맥을 찾아내여 조국과 후대 앞에 업적을 남기였으나 90 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의 한생을 반성하는 립장에서 《교훈사》를 썼었다. 90 평생의 생활체험을 기록한 그 의미있는 글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 ×

머지않아 새벽 4시가 된다.

은하수는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별들은 조금씩 빛을 바래며 어디론가 점점 멀어져가는듯싶었다.

나는 딱따구리마치가 달린 등산용지팡이를 짚고 명상에 잠겨 천천히 마당을 거닐었다. 이제는 내 나이 아흔한살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기력이 정정하고 눈귀가 밝아 삼라만상의 움직임과 모든 음향이 력연히 감촉된다. 웬일인지 이 새벽엔 주변에서 들려오는 미풍의 속삭임과 풀벌레소리에도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것 같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신록이 질어가는 이해의 봄은 왜 이다지도 생각이 많아지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수양버들이 우거진 편못가로 걸어가서 의자에 걸터앉았다. 지팡이손잡이에 두손을 얹고 먼 하늘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젊은 시절처럼 탐사의 길을 따라 산발로만 달려갔다.

문득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깊어가던 나의 명상은 깨어졌다. 로친이 양털덧저고리를 들고 밖으로 나오고있었다.

《아니 령감, 왜 밖에 나와계시우? 그러다 감기에 들리겠수다.》

《평생 산바람에 여문 몸인데 감기에 들리다니. 괜한 걱정 말구 썩 들어가우.》

나는 어깨우에 얹혀진 덧저고리를 밀어제꼈다. 내 나이보다 열다섯살이나 아래인 로친은 피뻘스러운 령감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터여서 허를 찰뿐이지 아무 대책도 없이 덧저고리를 그냥 안고 서있었다.

우리 내외는 잠시 담장밖을 내다보았다. 붉고 푸르고 누른 색전등의 여광속에서 거리는 포근히 새벽잠에 들어있었다. 저앞에 바라보이는 공원은 무릉도원의 황홀경이다. 기암괴석에서 뿜어오

르는 분수며 무성한 수풀, 수중궁이 비낀 편못의 붉은 수면... 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수도의 새벽풍경을 바라보면서 로친에게 말을 건네었다.

《저 황홀찬란한 불빛들을 보느라니 생각이 깊어 지누만. 지난해 봄에 내 생일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우리 집에 찾아오시여 밤거리를 내다보시면서 <로인님, 참 좋지요! 저 아름다운 전등불속에도 로인님이 찾은 광석들이 들어있을것입니다.>하고 말씀하셨지... 음, 내 죽기전에 큼직한 보물을 하나 더 찾아서 수령님께 드려야겠는데...》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 순간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한생을 보람있게 결속지을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랬으나 로친은 허서픈 웃음을 웃으며 시답잖게 응대하였다.

《아직 속은 살았구려.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구 백살이 가까와오는 늙은이가 방안에 앉아서 어떻게 보물을 찾는다구 그러시우.》

《모르는 소리! 나는 방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땅속을 환히 들여다본단말이야. 로친도 저기 천암산 이라는데를 알고있겠지?》

《천암산이라니요? 령감이 해방초에 샘물을 찾으러 다니시던 그 산말이시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여기서부터 서북쪽으로 수백리 떨어진곳에 천암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다. 로친의 말대로 나는 1947 년 가을에 천암산에서 마을사람들의 음료수로 쓸 샘물을 찾았었다. 나는 지금도 천암산의 샘물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린다. 광산개발에 평생을 바쳤다는 늙은이가 샘물이나 찾아놓고 30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흥분하고있는것이 어찌보면 가소롭다 하겠지만 나에게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것이다. 나는 서북쪽하늘가를 바라보며 로친에게 장담하였다.

《바로 그 천암산밑에 수억톤의 석탄이 묻혀있소. 그놈의 석탄을 두고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버리었는데 요즘에 와서 드디어 용단을 내리게 됐소.》

로친은 눈이 둥그래졌다. 그도 그럴것이였다. 나는 천암산석탄에 대하여 이십여년동안 사색을 거듭하면서도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다. 《백번 보고 백번 생각한 끝에 말하라!》 이 《백견백상》의 신중성은 생활의 교훈으로부터 얻어진 나의 철저한 지질탐사관이며 좌우명이였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야 우리와 집을 나란히 하고 지내는 지질총국 부총국장에게 그 사실을

말했었다.

《입이 빠른 로친이 소란을 피울것 같아서 내 여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며칠전에 벌써 내 도면을 탐사대에 올려보내도록 했소. 이제 오늘래일 소식이 올게야. 염라대왕이 나한테 호출장을 보내기전에 탐사를 빨리 서둘러야겠는데...》

《그 산에서 정말 석탄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 수령님께서 령감을 또 얼마나 칭찬하시겠수. 령감은 그전에 거기서 샘물자리 하나 보아놓구두 큰 치하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수.》

로친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속이 그들먹하여 고개를 수긋한채 묵묵히 앉아있었다.

천암산, 잊을수 없는 천암산- 바로 그 산우에 나의 마지막탐사의 중지부를 찍게 되려니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해졌다.

《아마 그 천암산이 내 마지막탐사가 될거야. 거기서 샘물을 찾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군...》

나는 스르르 눈물 감고 추억에 잠기기 시작했다.

천암산에서 샘물을 찾던 해-1947 년은 내가 미국놈들이 동지를 틀고앉은 남조선의 괴뢰통치에 환멸을 느끼고 북반부로 넘어왔던 운명적인 해였었다.

나는 그때 지질도와, 광석표본들을 가득 집어넣은 대짜배기 등산배낭을 지고 38 선 장벽을 넘어왔으나 어지간히 마음은 불안해있었다.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제시기에 개인광업을 경영한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것인지 몰라서였었다.

《파연 나를 어떻게 대해줄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대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찾아갔다. 접수실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딱따구리 마치를 들고 배낭을 진 나의 유별난 행장을 보고 엄하게 단속하였다. 나는 수상쩍어하는 젊은이에게 화를 내었다.

《무엇이 그리 수상해서 이 배낭을 자꾸 넘겨다보우. 여기엔 조선의 보물산이 들어있소. 내 북조선에서 광산탐사를 하고싶어 왔으니 어서 웃어른들께 그렇게 아뢰어주시오.》

젊은이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다가 웬일인지 갑자기 눈이 둥그래지면서 내 얼굴을 뚫히 바라보는것이였다. 이윽고 누런 승마복을 입은 건장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천만뜻밖의 꿈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후 나는 자기가 어떻게 그이의 집무실까지 걸어갔는지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 나는 그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고 너무나 감동하여 신문에 인상기를 발표하였었다.

...일만대군도 일검에 추풍락엽의 패병으로 전락시키시던 백두산의 명장-**김일성**장군님을 우리

르는 찰나 나는 감격의 극치로 심장이 파열될것 같았다.

장군님께서는 예지로 빛나는 자애의 안광으로 나의 온몸을 애무하시듯 오래오래 바라보시다가

《우리는 선생을 잘 알고있습니다. 선생은 조선의 광업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웠고 자신은 직접 일본놈들의 광물략탈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천신만고의 노력을 기울여 은밀히 조선광물분포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놈들의 억압으로 도면을 완성할수 없었지만 그것은 귀중한 나라의 재산입니다. 이제는 조선이 해방되었으니 삼천리를 활보하면서 마음껏 탐사하십시오.》 하시고 나를 위해 탐사승용차까지 마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감격하고 죄송스러워 솟구치는 오열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내가 조선의 기술인재양성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고 치하해주셨지만 그 학교에는 부유한 가정의 몇몇 자제들만이 들어갈수 있었다. 나는 학생들이 바치는 학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광업을 경영하였다. 나는 그 학생들에게 외래의략탈로부터 조선의 금은보화를 고수하라고 피라게 절규하였으나 그들은 강압에 못이겨 거의나 일본놈들의 광물수탈의 리용물로 전락되었었다. 그리하여 일제말기에 와서 나는 학교도 제자도 광업도 다 잃어버리고 불우한 늙은 방랑아가 되어 쫓기우며 돌아갔다. 그런데 이 얼룩진 나의 과거를 너그럽게 리해하여주시니 어찌 눈물을 금할수 있겠는가... 나는 장군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사죄하였다.

《장군님의 이 은정으로 무엇으로 갚아드리겠습니까. 장군님! 저 북쪽의 봉학산에는 백만톤이상의 ㄷ광석이 묻혀있습니다. 저에게 자금과 로력만 대주시면 이달음으로 달려가 한주일안팎으로 광산을 일궈세우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시자부터 큰일을 하시겠더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은 우리 나라 탐사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국장과 같은 위치에서 고문격으로 사업을 하셔야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시며 이렇게 신임을 주시고 나의 소원을 쾌히 들어주시였다....

이것이 그날에 쓴 나의 인상기의 한 대목이다. 바로 이렇게 되여 세상에 큰 소문을 내며 봉학산 탐사가 시작되었다.

이깁술이 무성한 넓은 덕을 광열에 거느리고 웅장기묘하게 솟아있는 봉학산의 깊은 골안에는 삽시에 수백명의 탐광로동자들이 모여들었다. 탐사가 시작되기 앞서 탐광로동자들은 《ㄷ광-100만톤》이라는 예상대장량이 기록되어있는 나의 봉학산지질도를 앞에 놓고 위대한 장군님께 맹세문을 드리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이시여! 우리는 이미 장군님께 맹세한대로 기어이 단시일내에 100 만톤의 ㄷ광석을 확보하여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어느 탐광로동자가 이렇게 격조높이 맹세문을 낭송할 때 나의 가슴은 궁지로운 그 무엇으로 울렁거리었다. 나에게에는 백만톤의 광석을 확신할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네가 이 산에 대하여 탐을 내기 시작한것은 1936 년부터였다. 그때 나는 《조선의 광물분포도》를 만들기 위해 북부지구를 돌아다니다가 봉학산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었다.

그것은 봉학산의 광상징후와 외부의 지질조건들이 우리 조상때부터 수백년의 ㄷ광석개발력사를 가지고있는 동점광산과 쌍둥이라 할만치 신통히도 같았기때 문이었다. 하지만 그마적에는 일본놈들이 조선의 산을 모조리 가로타고앉은 형편이여서 서둘러 손을 대다가는 공연히 아까운 내 나라의 보물을 놈들의 아가리에 처넣을수 있겠기에 말없이 머리속에만 깊이 새기두었던것이었다. 10 여년의 세월이 지나 잊지 못할 봉학산을 다시 찾아와보니 과연 그 산에는 매혹적인 광상징후들이 넘쳐있었다.

나의 붉은 연필이 가리키는 모든곳에서 팽이날이 번뜩이고 발파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주일은커녕 한달이 지나도록 한톤의 ㄷ광석도 나오지 않았다.

수백명의 의혹의 눈동자들이 화살처럼 나의 몸에 쏘리었다. 나는 무서운 실책을 예감하면서 공포에 떨었다. 봄철부터 시작된 봉학산탐사는 그해 가을에 와서 실패로 끝났다. 봉학산탐사를 책임지고 나왔던 김태선이라는 늙은 광업일군은 어찌나 분했던지 내 도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여보시오, 당신이야말로 천하에 못된 허풍쟁이요. 우리는 당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나라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었소. 저 로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했소. 나는 령감태기를 재판에 넘길테요!》

로동자들도 리승만이 보낸 반동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나를 의심하였다. 언제인가는

**김일성** 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읽었던 젊은 로동자가 내앞에 나타나서 떡살을 틀어쥔듯이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여보 령감! 우린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고 맙시다. 새빨간 거짓말을 써서 **김일성** 장군님께 맹세문을 올린 우리들을 누가 용서해주겠소. 그런 무도한 일이 어데 있단말이요!》

나는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억센 주먹이 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으면싶었는데 그는 제 두가슴을 두드리기만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봉학산을 버리고 가버렸다. 착암기소리 발파소리로 흥겨웁던 봉학산은 쥐죽은듯 고요한데 어디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인지 그것

만이 애처로운 너인의 흐느낌처럼 이 가슴을 허비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숲속으로 골짜기로 목적없이 방황하다가 굴속으로 찾아들어갔다.

차거운 석수가 눈물처럼 떨어지고 박쥐들이 날아다니는 캄캄한 굴속에서 나는 홀로 밤을 새웠다. 나는 해방전에 조선총독부산하의 지질기사가 한번의 실책으로 십년징역의 처형을 받은 사실과 군사지형도를 잘못 그려 사형을 당한 측량기술자의 비극을 회상하면서 치를 떨었다. 나는 그런 언벌이 무서운것은 아니었다. 나는 다만 해방된 조국 땅에서 장군님의 믿음을 받고 시작한 첫 탐사가 그렇게도 무참한 실패로 끝나게 된것이 분하고 원통했던것이다.

《이 걸과 속이 다른놈아! 이 망할놈의 산아!》

나는 굴바닥에 주저앉아 이렇게 부르짖으며 몸부림을 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정신이 혼미해있던 나는 저벅저벅 발자국소리에 소스라쳐놀랐다. 서너명의 사람들이 간데라불을 휘저으며 굴안으로 들어오고있었다. 나는 갱벽에 잔등을 기대고앉아 멍청하니 그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가까와오자 나는 아예 죽은듯이 눈을 감고있었다. 발자국소리가 똑 멎었다.

《여보! 종환선생!》

나는 낮익은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다. 김태선광업일군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서있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선생을 부르시오. 어서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하였지만 나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전과는 달리 그 어떤 편민과 동정의 빛이 짙게 어려있는것 같았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났으나 인차 몸의 균형을 잃고 굴바닥에 쓰러졌다.

우리는 날이 꺾 어두워져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번에도 승마복을 입은 구면의 그 젊은이가 나를 수령님의 저택으로 안내하였다. 이제 무슨 면목으로 수령님을 만나뵈울가 생각하니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나는 그이의 저택앞으로 들어서자바람으로 바위돌처럼 굳어져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택 옆으로 길게 펼쳐진 강냉이밭기슭에 서계신것이였다. 수수한 회색옷을 입으신 그이께서는 뒤집을 지신채 북쪽하늘을 지켜보시는것 같았다. 강냉이밭건너 검푸르게 우거진 숲속 어디선가 부웅-부웅- 하고 밤새가 연거퍼 세번이나 울어댔다.

나의 가슴은 터지는것만 같았다.

《장군님께서 선생님을 아까부터 기다리셨습니다.》

승마복젊은이가 어서 가자고 재촉했으나 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마침 하늘가를 지켜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었다.

《가만, 종환선생이 아닙니까?》

수령님께서는 벌써 나를 발견하시고 은정깊은, 그러면서도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시었다.

《장군님, 저울시다. 이 몸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손을 땅에 짚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수령님께서는 급히 나의 손을 잡아일으키시었다.

《광업에 생소한 우리 동무들때문에 선생이 큰 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도 그렇지, 한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광맥을 찾는 일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것입니까.》

수령님께서는 은행나무가 서있는 야외의자결로 나를 데려가시었다.

《어서 거기 앉으십시오. 쇠돌물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시적흥분으로 선생앞에서 버릇없는 행실을 보인것 같은데 널리 양해하시고 노여움을 푸셔야겠습니까.》

《장군님, 그렇게 아니올시다. 저는 정말…》

나는 무르팍을 콧 움켜쥐고 부들부들 온몸을 떨었다. 그이께서는 내 두손을 따뜻이 감싸주시었다.

《그만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중학교에 다닐 때 많은 과학책들을 탐독하였는데 지금도 <실패를 모르는 광업가는 무위도식하는 광업가다.>라고 한 글도 있었습시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이 한주일동안에 광산을 일구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ㄷ광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수십년동안이나 조국이 없어 광산을 마음껏 개발하지 못했던 선생의 한을 풀어주자는 생각이 더 간절했습시다. 절대로 주눅이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봉학산탐사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주뿔거리기만 하였다. 생각같아서는 그놈의 산을 다 들창내야 속이 풀리겠지만 이제 무슨 체면으로 로력과 자금을 더 대달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이윽히 생각에 잠기셨다가 내 손을 더 힘껏 그러쥐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봉학산탐사를 시작했던바치고 아예 끝장을 봅시다. 그래서도 정 없다면 비석을 세웁시다. 그러면 후대들이 다시 손을 대지 않게 되니 좋고 지질탐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니 좋습니다. 천변만화의 조화를 가진 땅속의 비밀을 알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것인가를 우리의 봉학산이 말해줄것입니다. 일년이고 이년이고 선생의 속이 풀

릴 때까지 탐사를 합시다.》

《장군님-》

나는 감격이 복받쳐올라 큰 울음을 터뜨리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깊은 인간애와 넓은 도량애, 자원개발의 심원한 철리에 탄복하여 아이들처럼 흐느끼었다. (지금 봉학안에 있는 ㄷ광산은 바로 그렇게 나의 실책으로 인해 예상의외의 많은 자금과 로력을 투하하여 생겨난 값비싼 광산인것이다. 지금도 그곳 광부들은 나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지만 그때마다 나는 오히려 그날의 실책이 회상되어 가슴이 아프다. 《백견백상》의 나의 신중성은 이때부터 생긴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밤 친히 저택에 나의 잠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래일부터 한 열흘동안 해변가에 가서 쉬시면서 기분을 좀 전환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당분간 봉학산탐사는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물탐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까. 얼마전에 내가 천암산이란 곳을 가보았는데 그 마을사람들은 거의나 다 토질병이 있고 예순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명하는 그 이유가 분명 물때문인것 같습니다. 선생이 어디 천암산에 가서 모든 마을사람들이 백년장수할수 있도록 맑은 샘물을 얻어내십시오.》

이렇게 되어 나는 그때 천암산에 가게 되었다.

그후 한달나마 지나서 내가 천암산에서 깨끗한 지하수를 찾아냈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마치 억만톤의 금은보화라도 얻으신듯 무던히도 기뻐하시며 나의 눈이 보배눈이라고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은정깊은 그 사랑앞에서 나는 량심의 가책을 느끼며 머리를 들지 못했다. 나라의 공업발전에 그리도 긴요한 ㄷ광석을 찾지 못한채 한갓 풍수쟁이도 잡아 낼수 있는 우물자리를 발견하고 그런 높은 치하를 받는것이 너무도 분에 넘치고 렬치가 없는 일같아서였다.

이와 같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천암산밀에 나는 지금 수억톤의 석탄이 묻혀있다고 확신하고있는 것이었다. 그리고보니 해방후 지질탐사사업에서 나의 《첫 발견》이 있었던곳에 나의 한생을 총화짓는 마지막탐사를 장식하게 된셈이었다....

깊은 회억에 잠겨있던 나는 머리를 쳐들고 천암산이 있는 서북쪽하늘을 다시금 지켜보았다. 못별들이 가물가물 조울고있는 그 하늘밀에 천막을 치고 누워있는 젊은 탐사대원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조만간에 그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날아 올것 같은 예감으로 가슴이 울렁거리었다.

나는 새별이 사라질 때까지 련못가 의자에 그냥 앉아 하염없이 그 하늘을 바라보았다.

예감이란 참으로 신비스러운것이였다.

내가 아침식사를 마치고 수많은 광물표본과 도면뭉치들로 가득찬 《지질연구실》로 들어가고있



을 때였다. 웬 사람이 반가이 나를 부르며 《연구실》로 대뜸 뛰어들더니 기다란 두루마리를 원탁 위에 올려놓았다.

《탐시대에서 보낸것입니다.》

천암산소식을 기다리던 나는 여간 기쁘지 않았다.

《소식이 왔라우?》

로친도 역시 입이 벌글사한채 허둥거리며 올라왔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그 사람이 서두르며 결봉을 뜯는 일에 도와나섰다. 노르끼레한 기름종이안에 돌돌 말리웠던 물건이 헤쳐지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며 외마디비명을 내질렀다. 며칠전에 내가 보냈었던 천암산지질도가 되돌아온것이였다. 도면이 되돌아왔다는 그 사실은 나에게 매우 불쾌하고 절망적인 예감을 주었다.

《천암산지질도》라고 붓글로 쓴 표제, 조밀한 등고선과 무수히 그려진 절벽기호들... 수십년의 정성이 깃들어있는 나의 도면이 그 누구에게선가 버림을 받고 돌아온듯싶었다. 두루마리안에는 도면과 함께 글종이 하나가 있었다. 신사회답용지였다. 나는 경련이 일어나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선생님의 도면을 잘 보았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도 조국의 지질도를 그리고계시니 진정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은 천암산의 심부지질을 추리하는데서 착오를 범하시였습니다. 선생님은 천암산심부에 (현재 천암산은 중생대 화산분출암에 뒤덮여서 심부지질을 전혀 볼수 없게 되어있다.)고생대 평안계지층(이 지층속에 석탄이 있다.)이 묻혀있다고 예상하시고 1천미터의 시추탐광을 요구하시였는데 천암산밑에는 평안계지층이 아니라 그보다 고기 지층인 원생대 상원계지층이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천암산밑에는 석탄이 있을수 없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마저 읽지 않고 획- 던져버렸다. 불현듯 가슴이 어지럽게 뛰놀고 팔다리의 맥이 쭉 빠져나가는것 같았다.

《음. 덜된녀석! 뉘앞에서 지질강의를 해! 뉘상원계라구!》

나는 너무 분해서 주먹으로 원탁을 탕 내리쳤다.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서있던 로친이 겁먹은 눈으로 원탁위에 펼쳐진 지질도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석탄이 없라우?》

《거 어느 아이가 써보냈는지 헛대기가 분명하구만.》

나는 방바닥에 떨어져있는 종이장을 다시 집어

들고 회답자의 이름을 지름펴보았다.

《천궁탐사대 군중탐사소조 오철림》이라고 써여있었다.

《흥, 누가 저만큼 살펴보지 않고 평안계지층이 있다고 생각하는줄 아는게지.》

사실 나는 1949 년부터 천암산의 지질을 연구하였을뿐아니라 최근에는 그곳에 평안계지층이 있다는것을 고증할수 있는 위력한 증거품까지 가지고 있는것이였다. 나는 어찌나 격분하고 흥분했던지 그 즉시로 입맛을 췌쳐버려 점심을 건네고 저녁도 먹는등마는등하였다. 지평이를 질고 부총국장의 집을 몇번이나 찾아갔으나 종시 그를 만나지 못했다. 로친은 내가 안정을 못하고 들락날락하는것을 보며 여간 근심하지 않았다.

《령감, 이제 그만 마음을 쓰시구 집에 가만히 계시우. 젊은이들이 어련히 할라구요.》

《뭘, 어쨌다구. 나라의 탄광이 땅속에 묻혀버리는걸 보구 가만 있으란말인가!》

《그러구 자꾸 돌아가면 옆에서들 로망을 한다구 그래요, 로망을...》

《뭘 로망?!》

기세가 등등했던 나는 그 말에 그만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풀이 죽어버렸다.

나는 그때 새삼스럽게도 자기 나이가 91 살이라는것을 상기하면서 커다란 벽저울앞에 슬그머니 얼굴을 비쳐보았다.

보통키에 통통한 몸집, 머리에는 은발이 덮여있으나 아직도 허리는 꼿꼿하다. 주름잡힌 둥그런 얼굴과 길게 자래온 풍신좋은 흰턱수염은 오히려 위엄을 돋우고있다. 나를 마주 쏘아보는 거울속의 눈이 땅속을 꿰뚫어보며 일생을 살아온 지질가의 투철성을 시위하듯 맑고 예리하다. 작고 날카로운 그 눈에는 사나운 대자연속에서 다스려진 나의 담찬 기질이 아직도 고스란히 비껴있다.

(내가 로망을 한다구!)

나는 새 용기를 얻고 《연구실》로 들어갔다. 나는 밤이 깊도록 일대오만과 일대이십만 축척의 도록조사자료들을 비롯한 일체 기술자료들을 다시 확인해보았다.

《령감, 그러다 몸져눕겠수다.》

지질탐구에 심혈을 기울이던 나는 로친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로친이 보약을 끓인 약사발을 원탁위에 올려놓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로친의 안경밑에서 구슬같은것이 반짝거리는것을 보게 되자 나는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지질학에 미치고 쇠돌만을 사랑했던 나는 서른여덟살에 와서야 처음으로 한 처녀를 사랑하였었다. 다도해의 섬마을에서 딱따구리마치로 바위돌을 까고있을 때 금돌을 가지고 찾아왔던 스물두살의 아름다운 바다가치녀가 이제는 저렇게 늙은

것이다.

《그건 무얼하려 훑어가지고왔소. 내가 뭐 그 약덕으로 장수하는줄 아는지. 난 우리 수령님께서 친히 꾸려주신 이 <연구실>이 있기때문에, 이런 <쇠돌>이 있고 지질도가 있기때문에 기운이 펴릴한거야. 뭐, 로망을 한다구!》

《원 령감두, 어찌다 한마디 한 말을 두고 그리 노여움을 타시우. 령감의 속을 내가 왜 모르겠소. 어서 약물을 잡수시우.》

로친이 나를 이렇게 달래고있는데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방문을 열어보니 서른살도 되나마나한 새파란 청년이 마당에 서있었다.

《여기가 박종환선생님의 댁이 옳습니까?》

《그렇게. 바로 내가 박종환일세.》

《안녕하십니까. 천궁탐사대에 있는 오철림입니다.》

젊은이는 각뚱이 절을 하고 무엇인가 황송해하면서 두손을 맞잡고 주물럭거리었다. 나의 머리에는 아침에 날아온 도면이 떠올랐다.

《음, 임자가 오철림인가? 오철림이면 가게! 지질도를 받았네.》

나는 군말없이 문을 쾅 닫아버리고 돌아섰다. 그러자 로친이 이제 무슨 실례인가고 허둥거리며 문쪽으로 걸어갔다.

《가만 못있겠소!》

나의 불같은 호령에도 무가내로 로친이 끝내 마당으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손님이 들어오기를 삼가하는것 같았다.

나는 다시 문을 벌컥 열었다.

《이보게 임자, 가라는데 왜 아직 거기 서있나 영!》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버릇없이 그냥 보내서...》

《여보게, 나는 요령을 모르는 사람이야. 전보를 쳐두 일없단말일세. 석탄이 없다는 사람을 내가 만나 무얼하겠나. 그래서 가라는게지 임자의 처신이 나무라워서 그러는게 아니야... 나는 바쁜 석양길을 걷는 사람이니 임자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네.》

나는 차갑게 말끝을 맺고 이번에도 역시 탕-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다. 밖에서 오철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석탄개발문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해볼 필요가 있어서 왔습니다.》

《석탄개발문제를 토론하자고 왔다? 좋네, 그렇다면 내 한쪽문이 아니라 랑쪽 미닫이를 다 열어 놓겠네... 자 어서 들어오게.》

오철림은 그제사 한손에 들가방을 든채 활짝 열려진 문으로 천천히 걸어들어왔다.

《어서 앉게.》

나는 원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손님의 얼굴을

유심히 훑어보았다. 길둥그런 얼굴이며 부리부리한 눈이 사내답게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원탁 위에 놓여있는 약사발을 던지시 내려다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영광스럽게도 방금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오는길입니다.》

《임자가 수령님을?》

나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흠칫 놀라며 철림의 얼굴을 뻘히 건너다보았다.

《정말 꿈같은 일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슨 일로 저같은 사람을 불러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도 알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천암산석탄문제때문에 저를 부르셨...》

오철림은 문득 말끝을 흐리며 머리를 푹 수그리었다. 나는 한층 더 놀라게 되었다. 수령님께서 어떻게 벌써 그 문제를 알고계시는지 모를 일이었다. 알고본즉 수령님께서 오늘아침에 지질탐사 사업을 료해하시는 과정에 천암산석탄탐사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그 모든 사실들도 아시게 되셨다는 것이었다.

수령님께서 오철림이가 천암산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접수하지 않고 그대로 도면을 내려보낸 그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친히 철림을 부르신것이였다. 하찮은 나의 도면때문에 그 처럼 마음을 쓰시는 수령님의 은정에 나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웃짓을 여미고 눈을 습벅거리면서 철림에게 물었다.

《그래 수령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시던가?》

《저... 선생님의 지질도에 대한 저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비록 어린 학생아이가 돌 한덩이를 들고 탐사대에 찾아와도 조국의 재부를 생각하는 기특한 마음을 먼저 보고 머리를 쓸어주면서 <어디서 이 돌을 찾았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하고 따뜻이 맞아줄줄아니라 그의 소원이 깃들어있는 그 돌을 금덩이처럼 다루어야 하는건데 하물며 한생을 광산개발에 바친 로인의 지질도를, 많은 생각이 쌓여있을 그 무거운 지질도를 어떻게 보통종이장처럼 날려보낼수 있는가고...그러시면서 해방후에 선생님이 찾은 광산과 쇠돌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꼽아가시며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가슴이 뻘근하여 스프르 눈을 감았다. 우리는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었다.

《그러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천암산석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들어주시었습니다.》

《임자는 수령님께도 석탄이 없다고 말씀올렸나? 상원계라고 여쭙었나?》

나는 저도모르게 어성을 높이며 철림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그는 두볼을 실룩거리며 한참이나

바재이더니 갑자르는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저... 사실대로 말씀올렸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란말인가? 그거야 입자의 주관적견해이지 어떻게 사실이 되겠는가? 그래 수령님께서 청맹파니가 말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던가? 천만일제! 인정하지 않을걸세.》

나는 약사발물이 튕겨나오도록 원탁을 탕탕 두드리었다.

《물론 수령님께서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적문제를 함부로 결론하실수 없다고 하시며 저더러 선생님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기술집단이 달라붙어 진지하게 논의하면 자연히 해결방도가 서게 될거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입자하구 좀 답판을 해야겠네.》

60 년의 세월로 간격은 둔 우리 두 세대의 지질기술자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 마주보았다. 준엄한 답판을 앞둔 긴장한 침묵이었다. 나는 젊은 혈조가 어려있는 철림의 붉은 불을 음미하듯이 지켜보며 조용히 먼저 입을 열었다.

《입자 지금 몇살인가?》

《스물아홉살입니다.》

《좋은 때로군! 장가들었나?》

《총각입니다.》

철림은 점직한듯 얼굴을 약간 붉히며 눈을 내리 깔았다.

(한장 훌라닥거릴 때로군!) 하고 나는 생각하면서 눈을 쪼프리었다.

《언제부터 탐사대에서 일했나?》

《1974 년부터입니다. 그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사대밥을 이제 겨우 3 년 먹었구만...》

일생을 지질탐사사업에 바친 나에게 있어서 3 년의 경험을 가진 오철림이가 갓난애기처럼 느껴지었다.

나는 방벽을 의지하여 당반처럼 만들어놓은 광물표본대에서 거무튀튀한 식물화석표본 한덩이를 들고 돌아왔다.

《이걸 좀 보게. 이게 무슨 화석인가?》

오철림은 화석표본을 받아들고 직업적습관대로 입김을 훑 불었다. 입김에 씻긴 물기오른 겉은 돌에 나무잎사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것은 <레피토펜드론> 입니다.》

그는 국제공용어로 쓰이는 화석의 이름을 류창하게 외었다.

《음, 화석감정은 꽤잘게 하누만.... 그게 어느 시대의 화석인가?》

오철림은 모욕감을 느끼는지 미간을 찌프리면서서도 공손히 대답하였다.

《고생대시기의 화석입니다. 이 <레피토펜드론>

이 우리 나라에서는 평안계지층을 확증해주는 표준화석으로 됩니다. 바로 이런 나무들이 묻혀서 석탄이 되었지요.》

《만약 이 화석을, 석탄의 종자라고도 할수 있는 이 화석을 천암산에서 얻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겠나?》

흠칫 놀라는 철림의 얼굴에는 세찬 파문이 지어졌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의 부리부리한 눈에는 여전히 의혹의 그늘이 비끼었다. 방금 철림이가 뇌인것처럼 《레피토펜드론》과 같은 거대한 나무들이 땅속에 묻혀 석탄이 된것이었다. 그러니 이 화석이야말로 석탄이 형성된 고생대시대를 확증하는 증거품인것이다. 하기에 우리의 지질기술자들은 이 《레피토펜드론》을 가리켜 《석탄의 씨》 또는 지어 《석탄의 화신》이라고 하는것이다. 오직 이 화석은 무궁무진한 석탄을 품고있는 고생대 평안계지층에서만 볼수 있으며 따라서 이 화석을 발견하는곳에서는 틀림없이 석탄층을 가지고 있는 평안계의 기름진 땅을 보게 되는것이다.

나는 화석을 붙들고앉은 철림을 향하여 입을 비쭉거리며 조소하였다.

《천암산의 심부지질을 구상하는데서 착오를 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입자일세.》

《아닙니다. 선생님, 천암산에서는 절대로 이런 화석을 얻을수 없습니다.》

오철림은 불현듯 고개를 쳐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나의 말을 부정하였다. 알고보니 오철림이가 바로 이년전에 시료채취공 한명을 데리고 천암산 주변에 대한 세부지질조사를 한 기사였다. 결국 그렇게 놓고보면 천암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질조사를 한 기술자는 이 세상에 오직 두사람밖에 없었다. 나와 오철림이뿐이었다.

이 두사람중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아마도 그것때문에 지금쯤 기술자들속에서 은연중 논의가 벌어지고있을것 같았다. 더구나 중생대 화산분출암에 뒤덮여 육안으로써는 볼수 없게 되어있는 천암산심부지질에 대한 문제인만큼 누구도 그것을 쉬이 략착지을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표면에 로출된 암석이라 할지라도 수억 또는 수백만년전에 형성된 말못하는 그 암석층의 나이를 정확히 알아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암석층의 시대를 결정하는것이 광물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때문에 지금의 우리처럼 학계에서는 《평안계냐? 상원계냐?》하고 논쟁을 벌리는것이다. 이 치열한 논쟁을 략착시킬수 있는 위력한 존재의 하나가 동식물화석이다.

나는 철림의 눈앞에 화석덩이를 바싹 내대었다.

《다시 말하네만 나는 이것을 천암산에서 얻었네. 자네가 상원계층이 깔려있다고 하는 그 천암

산 밑바닥에서 얻었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인가 외국하고있습니다.》

오철림은 힘껏 머리를 내저었다. 나는 너무도가 막혀서 화석을 거머 쥔 손을 후들후들 떨다가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이녀석! 외국이라니?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단말이냐! 화석을 얻었다는게 거짓이란말인가?》

그제야 철림은 기가 눌린듯 한숨을 쉬면서 물끄러미 화석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분김에 책계를 열어놓고 수십년전에 쓴 야외수첩들을 꺼내었다.

《임자가 그렇게 정 민질 못하니 내 아무래도 자초지종 얘기를 좀 해야겠네. 자, 이 조사야장을 좀 보라구 나는 1947년 9월 20일부터 썸물을 찾느라고 천암산주변을 살살이 훑었네. 47년이니까 임자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전이야. 그때당시에는 나도 천암산의 화산분출암밀에 과연 어떤 시대의 암석층이 묻혀있는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의문부호를 쳤네. 자 좀 똑똑히 들여다보게!!》

나는 조사수첩에 그려놓은 물음표를 손가락끝으로 연방 찢어댔다. 불시에 정력을 쏟은탓으로 나는 어지간히 기운이 진했으나 철없는 고집쟁이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이 수첩 저 수첩을 번저가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때 나는 천암산에서 썸물을 찾은 이후 인차 봉학산을 거쳐 성천, 수안, 홀동 등 여러 광산구역들을 다니면서 유색금속광물을 탐사하였었다. 그러면서도 천암산심부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것이 늘 마음에 걸리어 기회만 있으면 자주 그쪽을 들러보곤했었다.

이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에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구체적인 가르치심 속에서 지질탐사사업을 활발히 벌려 기념비적인 지질도를 많이 그렸었고 적지 않은 광맥들을 찾아내었다.

특히 1953년부터 1956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개화기였으며 지질탐사에서 청춘기라고 말할수 있었다. 나는 그 4년동안에 동점령에서 대규모의 ㄷ광산을 발견하였으며 수십개의 기존광산들의 전망을 열어놓았었다. 내가 해방초에 큰 실책을 범했었던 잊을수 없는 산-봉학산에 광산을 일궈세운것도 바로 그무렵이었다.

1956년 9월에 나는 크나큰 기쁨을 안고 평양으로 돌아가는길에 천암산에 다시 들러서 산기슭의 암석들을 훑어보았다. 그런데 이때 나는 놀랍게도 개울가의 흙타구니에서 《레피토덴드론》 화석전석을 얻게 되었다.

《아니 이게 웬 떡이냐?》

나는 환성을 지르며 주변을 더욱 세밀히 관찰하였는데 얼마후에는 또 《레피토덴드론》과 동시

대의 식물표준화석이며 석탄의 《종자》인 《코르다이테스》의 전석을 두개씩이나 더 얻게 되었다.

《음, 네놈이 석탄층을 팔구았아있으면서도 시침을 떼는게 아니냐! 이 능청스러운놈, 누굴 속이겠다구.》

나는 기쁨이 복받치는 가슴을 안고 먼발치로 물러나서 천암산을 향해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울려다보니 금강석처럼 해빛에 번쩍이는 까마득한 봉우리가 소리치며 나를 부르는듯하였으나 야속하게도 나에게는 그 봉우리를 포옹할 기력이 없었다. 그때 내 나이는 벌써 일흔한살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전석으로 나타난 화석의 출처를 정확히 해명하기 위해 신들메를 동이고 산을 톱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힘이 진해서 그만 벼랑길에서 굴러떨어졌다. 나의 일생에서 단 한번 있어본 산길의 락매였다. 그로 인하여 나는 산길을 더 타지 못하고 평양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하게까지 되었다. 그런데 며칠후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에게 국가훈장은 수여하시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일군들과 함께 친히 병원에 찾아오시었다.

그이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속에서 나의 가슴에 친히 금별의 훈장을 달아주시고 수원들을 돌아보시며 은정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박종환선생은 조국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이 선생은 늙은 나이에도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서 험산준령을 타고다니며 술한광맥을 찾아내었습니다. 1951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앞으로 전후복구건설을 하자면 무엇보다도 유색금속광물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더니 이 선생은 저 북부오지대인 개마고원에까지 들어가서 유색금속광물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애국자들이 있기때문에 지금 우리의 전후복구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나를 돌아보시었다.

《선생이 정말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산을 그만 타시고 집에서 쉬셔야겠습니다. 산을 더 타겠다고 선생이 아무리 고집을 써도 우리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수령님-》

나는 순간 목메인 소리를 내며 수령님의 손을 두손으로 붙잡고 어깨를 떨었다.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사정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참으로 늙은것이 얼마나 한스러운지 몰랐다. 그전날 나의 젊은 시절은 민족없는 설움과 낡은 사회의 락류속에서 어지럽게 흘러갔었다. 나는 60대에 와서야, 이를테면 인생의 석양길에 다달아서야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락류에 오염됐던 몸을 씻고 인간답게 보람있게 살수 있었다. 나의 입당을 보증해 주시고 금별의 훈장을 달아주시고 큰 실



책을 범해도 리해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그래서 나는 주축을 모르고 동 서 남 북을 나래치며 다녔었다. 허나 22 만평방키로의 이 땅에는 저 천암산과 같이 탐사할곳이 너무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늙은것이였다. 우리 수령님의 높은 은정에 마땅한 보답을 드리지 못한채 늙어버린 그것이 한스러워 나는 더욱 오열을 그칠수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나의 심중을 헤아리시고 창밖을 오래도록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늙었다고 너무 서러워 마십시오. 비록 몸이 늙어 산밭은 타지 못해도 이제부터 선생은 방안에 앉아서 젊은이들에게 이래라저래라 시키면 됩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고싶은 탐사를 다 해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새삼스레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표본대우에서 번쩍이는 아름다운 광석들은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따라 걸어간 나의 보람찬 답사로정을 말해주고있었다. 내가 찾은 광맥을 대표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표본들에는 한마디로 말할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나는 이제 저 표본대우에 천암산의 기름진 석탄표본도 올려 놓게 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철림을 다시 바라 보았다.

《그때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오니 이런 <연구실>이 꾸려져있었네. 조국의 광물을 보면서 여생을 보내라고 수령님께서 친히 꾸려주신거네. 나에게는 지금도 지질탐사부문의 최고지휘일군과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어있네. 그러나 나는 임자네들을 아직 한번도 시켜먹지 않았네. 천암산의 지질을 완전히 해명하지 못했기때문에 설수도 없었네. 그래 일흔여덟살까지 천암산을 자주 왕래하며 내 눈으로 직접 암석들을 관찰하였네. 여든살이 넘은 다음에도 몇번 차를 타고 가보았네. 그러면서도 나는 천암산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지켰었네. 운전사까지도 내가 무엇때문에 천암산을 자주 찾아다니는지 알지 못했지. 왜 비밀을 지켰겠는가? 서둘러 말을 꺼내면 임자같은 헛내기들이 철없이 날치다가 큰 실수를 할것 같아서였지. 틀림없이 화석을 얻었지만 그것이 전석이라는데 아직 문제가 있거던… 그런데 4 년전이었네. 다시말해서 여든일곱살때 천암산과 골짜기 하나를 사이두고있는 까치산 협곡에서 포로암형태로(지각운동으로 인하여 어떤 암층이 다른 시대의 암층속에 마치 포로처럼 외토리로 끼여있는것) 나타난 평안계 흑색혈암층을 발견하였네. 그속에도 식물화석과편들이 들어있었네. 까치산 협곡에 포로암으로 약간 나타난 이 평안계지층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겠는가고 도면을 놓고 단면도를 잘라보니 천암산밑으로 빠진것이 확신하였네. 나는 너무도 기뻐 그때 개울가에 서서 만세 삼

창을 불렀네. 운전사가 웬일인가싶어 눈이 둥그레 졌지.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비밀을 지켰네.

천암산밑에 평안계지층이 있다는것은 확실하지만 그 속에 석탄이 얼마나 있겠는지 그것이 미지수였기 때문이야. 괜히 덤비다가는 모기를 보고 대포를 쏘는 맹랑한짓을 할수 있거던… 그리던중 최근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는가? 천암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삼십리, 서쪽으로 오십리 지점에 중소규모의 탄광이 생겼지! 이제 더 무엇을 의심하겠나. 그 탄광들이 천암산과 연관되어있을뿐아니라 탄상의 중심지, 다시말해서 부탄대를 이루는 닭알노란자위가 바로 천암산이라는것을 확신할수 있게 하였네. 량쪽 탄광의 가운데에 끼운 천암산, <레피토덴드론>화석!… 이십년만에 용단을 내리게 된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네… 아 이젠 더 말할 기맥이 없네… 맥이 쭉 빠졌네…》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꼭 감았다. 정력을 쏟으며 긴 이야기를 한탕에 이마에 진땀이 내똥치고 가슴이 팔팔무처럼 들먹거리였다. 금시 쓰러질것 같았다.

《나를 좀 부축해주게, 누워야겠네.》

건장한 젊은이는 나를 건듯 안아서 원탁옆에 있는 간이침대우에 눕히였다.

내가 어렴풋이 잠에 들렀다가 눈을 떴을 때 오철림은 원탁우에 팔굽을 고인채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있었다. 나는 그가 자기의 실책을 놓고 고민하고있다고 생각하였다.

《여보게 젊은이, 임자는 아마 까치산협곡에 나타난 평안계의 포로암을 못본 모양이지? 하기는 그걸 보기란 쉽지 않아. 덤불속에 묘하게 숨어있으니까…》

오철림은 고개를 쳐들고 음울한 눈빛으로 나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임자같은 사람한테 보물산을 맡기고야 어디 한시인들 마음을 놓겠나… 좌우간 누우쳤으면 됐네. 어서 내 도면을 가지고 도로 가서 땅을 뚫러 보게!》

오철림은 그런듯이 앉아있다가 무겁게 자리를 일더니 원탁우에 놓여있는 나의 도면과 화석들을 정성스레 모두어서 가방안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다. 그리고나서 나를 바라보며 무슨 말인지 하려는듯 입귀를 실룩거리더니 한숨을 쉬였다.

《뭐 물어볼게 있으면 서슴지 말고 물어보게.》

오철림은 부리부리한 눈에 무엇인지 알수 없는 간절한 빛을 띠고 떠들거리였다.

《저… 선생님… 선생님은 저… 거짓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모든 일에서 솔직한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사설이 그리 많은가?》

《선생님! 석탄은 없습니다. 천메터가 아니라 만메터를 뚫어도 천암산밑에서는 절대로 평안계지



층을 보지 못할것입니다. 선생님은 확실히 착오를 범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다더니…»

부드럽게 떨리면서 우리는 오철림의 녹녹한 목소리는 날카로운 쇠끌처럼 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참을수 없는 분격으로 부질부질 끊는 피가 머리끝으로 확 물려올라오는것 같았다. 그랬으나 나는 내색을 하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르듯이 말했다.

《그럼 됐네. 어서 가게. 그 도면은 도로 내놓고 가게.》

오철림은 침대결으로 달려와서 내 바른손 팔목을 두손으로 모두어쥐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었다.

《위낙 임자한테는 그런 귀중한 산을 맡길수가 없네.》

《선생님이 진정 소원하신다면 당장 래일부터라도 탐광작업을 하도록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합니다. 석탄이 아니라 <비광물>이 나오것입니다.》

《<비광물>이 나오다니 저런 뼈꾸기가 있나!》

나는 그만 부아통이 터져 벌떡 일어나앉았다. 물과 불이 함께 존재할수 없는것처럼 석탄과 《비광물》은 서로 삼극적인것이다. 그런데 《비광물》이 나오다니!...

《임자 그제 진짜소린가 아니면 심술을 부리는 건가?》

《선생님, 저희들은 사실 하반년도부터 <비광물>을 탐광하도록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선 이제 당장...석탄이나? <비광물>이나? 우선 그것부터 《재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철림은 심한 진통을 느끼는 사람처럼 이마살을 찡그리더니 맥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저런 도깨비가 어디 있나. 《레피토텐드론》을 보고도 《비광물》이 나온다니...)

나는 오철림에 대한 절망적인 환멸을 느끼며 원탁앞으로 걸어나갔다.

《좋네. <재판>을 하자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들이 탐광작업을 해야 될걸세. 천궁탐사대에서는 아예 손을 대지 말게...》

《선생님의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게. 이 <재판>에서 지는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걸세. 난 임자의 기사자격증을 떼버리겠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우리들의 일을 알고계신다니 아마 틀림없이 이 <재판>을 굶어 보실거네.》

우리들은 엄숙하게 서로 마주보았다.

조국앞에 그 무엇을 책임지는 이 엄숙한 정적속에서 벽시계가 의미심장하게 땡-하고 새벽 한 점을 울리었다.

그 며칠후, 유능한 기술집단이 강력한 과학설

비들을 가지고 천암산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나에게 전달되었다.

이날부터 나는 더욱 안정을 못하고 노상 서성거리며 돌아갔다. 밤마다 천암산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부총국장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를 한번도 만날수가 없었다. 알고보니 그 사람도 천암산에 가있었다. 생각갈아서는 천암산으로 달려가서 탐광작업장들을 일일이 살펴보고싶었지만 운전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천암산으로 가보겠다는 말을 하자 로친도 한사코 만류하였다. 그야말로 속을 부직부직 태우며 일일천추로 소식을 기다리였으나 좀처럼 부총국장은 나타날줄을 몰랐다. 시간은 마치도 천천히 그리고 무겁고도 힘겹게 흘러가는것 같았다.

《내 십년만 젊어도 좋지 않겠나!》

나는 이 말을 몇번이나 곱씹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시간은 틀림없이 흐르고있었다. 마당귀에 서있는 복숭아나무에는 벌써 진분홍꽃이 만발하고 련못가의 울긋불긋한 꽃밭에는 꿀벌이며 나비들이 분주히 날아들었다. 날이 갈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문밖에서 발자국소리만 들려도 나는 와뜰 놀라며 가슴을 울렁거리었다.

그러던중 어느날 밤이었다. 누구인가 《연구실》문앞에 와서 조심스레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순간 그 어떤 예감으로 하여 나는 심장이 툭 떨어버리는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보름달이 환하게 내리비치는 넓은 마당에 웬 사람이 어깨를 늘어뜨린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있었다. 오철림이었다.

《음, 난 누군가 했더니 임자가 왔구만!》

나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있는 그를 보는 순간에 누가 《재판》에서 승리했는가를 즉시 판단하였다.

《우리 집 문턱이 그리 높지 않으니 겁내지 말고 어서 넘어오게.》

오철림은 손에 집어든 가방을 떨어뜨릴듯이 비칠거리며 《연구실》로 들어왔다.

우리는 무엇때문인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멍청하니 바라보았다.

《어서 앉게, 그래 <재판>이 끝났나? 판결이 났나?》

《예, 끝났습니다.》

《끝났단말이지?!》

나는 철림이 들고온 까만 렬행용가방을 내려다보며 저안에 분명 천암산의 석탄표본이 들어있을게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눈길은 인차 표본대로 옮겨졌다. 천암산의 석탄을 기다리는듯 맨 왼쪽끝에 큼직하게 빈자리가 남아있었다.

《이제는 판결이 났다니 누가 이겼든 졌든 상관말구 우리 서로 화해하자구.》

나는 로친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였다. 우리는 방안에 음식상이 들어올 때까지 웬일인지 서먹서먹한 기분에 싸여 덤덤히 앉아있었다.

《자, 마주앉게.》

나는 원탁 가까이 놓여있는 음식상앞으로 가서 올방자를 틀고앉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 술병을 들수가 없었다.

《선생님, 저는 술을 마실줄 모릅니다. 제가 선생님께 한잔 부어드리겠습니까…》

《그럼 한잔 붓게.》

나는 석탄을 찾은것이 정말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여 갑자기 환희의 현훈증을 느끼었다.

오철림은 과연 패배자처럼 무릎을 꿇고앉아 술병을 기울이었다. 졸, 졸, 졸… 소리를 내며 술잔이 가득 넘쳐났다. 나는 술을 단숨에 쪽 들이키고 턱수염을 내리쉴면서 오철림을 건너다보았다.

《임자는 그 고기라도 집게… 그럼 석탄표본을 좀 구경할가.》

나는 극도의 자제력을 가지고 침착성을 유지하였다.

오철림은 오래도록 눈을 내리깔고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석탄은 없습니다.》

《왜? 표본을 안 가져왔나?》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물었다.

《천암산에는 평안계지층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구?!》

나는 거뿔하게 질려있는 철림의 얼굴을 얼빠진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임자 무슨 허튼소리 하고있나!》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

나는 점점 온 천지가 캄캄해지는것 같았다. 모든것이 헤여날수 없는 미궁의 나락으로, 의혹의 심연속으로 깊이 찾아들어가는듯싶었다. 이때 오철림이가 그전날 가지고갔던 식물화석 세덩이를 가방안에서 꺼내놓았다. 나는 그 순간 시꺼먼 화석덩이를 두손에 움켜쥐고 부르짖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뭐냐? 이 <석탄의 화신> 앞에서 너희들이 무슨 쓸개빠진 소리를 하고있느냐!》

《선생님!》

오철림이 안타까이 부르는 소리가 아득히 먼 하늘끝에서 들려오는것 같았다.

《선생님, 그것은 천암산의 화석이 아니라 까치산에서 흘러내려온 화석일것입니다. 즉 까치산의 <포로>가 내려보낸 화석일것입니다.》

《물론 나도 그것이 천암산의 돌에서 떨어진거라고는 생각지 않아! 까치산에 그런 화석이 있기 때문에 천암산밑에 반드시 평안계지층이 있는거

야.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과학이며 법칙이야!》

나는 책꽂이에서 그전날의 그 탐사수첩을 꺼내여 지질의 법칙을 도해한 지질단면도를 내보였다.

오철림은 그것을 내려다보며 비통하게 중얼거리었다.

《물론 그것은 법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이 좀 더 젊은 시절에, 마음대로 산을 밟고다닐수 있는 그 시기에 화석전석을 얻으셨다면 그 모든 엄연한 과학의 법칙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은 신기하고 미묘하고 특이한 지질구조선들을 발견하셨을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오철림은 갑자기 울대뼈를 움썹하더니 떨리는 손길로 내앞에 자기의 탐사수첩을 펼쳐놓았다. 나는 그의 탐사수첩을 음미하는동안에 자신에 대한 환멸로 온몸의 전율을 느끼었다. 그 수첩은 나의 이십년의 사색을 무색케 하는 이십대 젊은이의 비범한 재능과 놀라운 관찰력을 보여주고있는것이였다. 나는 커다란 떡메에 가슴을 얻어맞는것 같은 강한 충격으로 하여 눈을 꼭 감았다. 나의 손에 들려있던 화석들이 제멋대로 음식상우에 떨어졌다. 나는 결코 늙어서가 아니라 충성심과 기술에서 젊은이보다 훨씬 뒤떨어졌기때문에 《재판》에서 패배했다는것을 가슴아프게 자인하였다.

젊은이의 탐사수첩 첫장에는 이런 글이 씌여있었다.

《우리는 지질탐사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찰하기 위하여 올해에 다섯가지 전투목표를 세웠다. 나는 이 전투목표들을 달성하기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버이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야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가리라!…》

수첩의 갈피마다에 쏘아박은 충성의 탐사로정들… 나는 그것을 통해 천암산의 진짜 심장을 들여다보았고 사람도 기술도 몰라보게 발전한 조국의 변천을 새삼스레 느끼었다. 이 슬기롭고 깨끗한 젊은이앞에서 나는 패배하였다. 나의 마지막 지질탐사사업이 《실패》라는 수치스러운 글자로 종지부를 찍게 된것이 너무도 확실하였다. 이미 다 늙어버린 나에게는 이제 그 실패를 만회할 힘도 시간도 없는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 다시 한번 내 손으로 땅속의 보물을 바치려던 그 간절한 념원은 영원히 이루어질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음식상우에 널려있는 화석덩이들을 다시 건어쥐었다.

《여보게 젊은이, 문을 좀 열어주게!》

오철림은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나를 지켜보다가 하나 둘 발자국을 세어보듯이 한걸음한걸음 옮겨가서 문을 열어놓았다.

《너는 지질의 <법>을 속이고 태어난 사생아같은 놈이다!》

나는 자기로도 알수 없는 무서운 힘으로 화석

덩이를 멀리 내뺐다.

오철림이가 방바닥에서 쓰러진 나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히었다. 나는 그제야 원탁우에서 설판처럼 빛을 뿌리고있는 하얀 《비광물》을 발견하고 철림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이게 천암산의 땅속에서 나온건가?》

《…………》

《음, 임자는 개선장군인데 왜 어깨가 그리 처졌나… 자 이 늙은 패잔병을 어서 묶어가게.》

나는 철림의 가슴팍을 향해 두팔을 뻗치며 소리쳤다.

《나는 워낙 10 년전에 벌써 죽었어야 했을 늙은이야. 정말 로망을 했어!… 이 사실을 이제 수령님께서 아시면… 아!-내 마지막에 와서 이 무슨 실수를 했는고!》

나는 가슴을 두드리고 무르팍을 쥐어뜯으며 자신을 원망하였다. 오철림은 의자우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나의 몸을 꼭 껴안으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수령님께서서는 오늘 친히 천암산탐사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획 돌리고 물기에 젖은 철림의 부러부러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슴이 막 터지는것 같았다.

철림은 열려진 방문으로 둥근 보름달을 내다보며 똑바로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희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래 석탄이 아니라 <비광물>이 나왔단란이지? 천암산에서 <비광물>이 나왔으니 정말 기쁘오. 그건 석탄에 못지않은 귀중한 보물이니…>하고 차꾸 뇌이시며 오래도록 명상에 잠기시더니

<그전에 이고장사람들은 토질병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어. 그러던걸 중환로인이 맑은 지하수를 찾아내서 이제는 토질병도 없어지고 마을에는 칠순이 지난 로인들이 수도룩하오… 후날 여기로 <비광물>을 캐러 찾아오게 될 광산마을사람들도 그 물을 마시면 모두 무병장수할게요. 그러니 그 샘물은 귀중한 생명수라고 말할수 있소. 이 하나 만으로도 로인은 천암산탐사에서 큰 공적을 세웠소. 그렇지 철림동무?> 하시며 저를 바라보시였습니다. 저는 막 처녀들처럼 소리를 내며 흐느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니 어쩐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저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면서 눈이 똑바로 박인… 당에 충실한 새형의 기술자라고… 칭찬을…》

떠들거리던 오철림은 끝내 울어버릴듯 흑-하는 소리를 내며 말을 삼켜버렸다.

그는 한참만에야 긴숨을 쉬며 머리를 쳐들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러시고 <어서 로인을 찾아가서 천암산의 소식을 전해주오. 이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로인이 기뻐할게요. 석탄이 아니라

<비광물>이 나왔기때문에 기뻐할게요.>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눈이 둥그래졌지요. 선생님이 어떻게 기뻐할수 있겠는가요요.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근엄하신 표정으로 저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시고 말씀을 계속하시었습니다.

<중환로인은 우리가 보증한 당원이고 해방후 30 년동안 같이 혁명을 한 나의 전우요. 로인의 마음은 우리가 잘알고 우리의 심정은 또한 로인이 잘 이해하오. 로인이 왜 기뻐하겠는가? 그것은 <비광물>이 석탄에 못지않은 귀중한 보물이라는데도 있지만 그보다도 조국의 땅속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튼튼한 탐사후비가 마련되었다는 그 사실을 놓고 더욱 기뻐할것이요. 반대로 만약 이 산에서 석탄이 나왔다면 로인은 기쁨을 느끼면서도 한편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할게요. 후날에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그렇게 나라의 보물을 흘러버릴것 같은 그 걱정때문에… 그러나 철림동무의 말대로 석탄이 없고 <비광물>이 있으니 로인은 젊은 세대들의 정확한 눈을 믿게 되었고 미래의 조국의 탐사를 믿게 되었소. 공산주의애국자인 로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 이 불민한 로인을 그처럼…》

나는 원탁을 손으로 짚고 일어나서 목메여 중얼거리었다. 나의 눈에서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나는 총검을 손에 쥐고 조국을 지켜 싸운 혁명가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다. 나는 나라의 과학발전에 큰 공적을 세운 그런 뛰어난 학자도 못된다. 나는 그저 한갓 경험만을 가지고있는 평범한 광업가이다. 그런데도 수령님께서 자신의 전우로, 공산주의애국자로 나를 높이 불러주시니 어찌 여린 감정이 다 쇠여버린 아흔한살의 로인인들 눈물을 참을수 있으랴.

나는 비칠거리며 어디론가 걸어가다가 두팔을 한껏 벌리었다. 그러자 오철림이 나의 품으로 달려와서 심장이 뛰고있는 나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었다. 나는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그의 커다란 머리를 애무해주었다.

《이 늙은게 주체과학으로 무장된 너희들을 믿지 않은게 나의 큰 실책이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교훈으로 될게다.》

90 대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교훈을 가지게 된 것이 참으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 나의 그 교훈은 휘황한 조국의 미래를 말해주고있는 것이다. 진정 내 이제 다 늙은것이 천암산탐사의 《재판》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커다란 비극이 되는 일이었다. 정녕 그렇게만 됐다면 내가 누구에게 사랑하는 그 모든 광산땅을 마음놓고 맡겨줄수 있겠는가!

아, 천암산아, 너는 진정 내가 잊을수 없는 귀

중한 보배산이구나. 너는 눈빛같은 그 귀중한  
《비광물》로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새세대의 심장을  
나에게 보여주었고 내가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밝은 눈을 가진 나의 후손들을 세상에 자랑  
하고 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어버이수령님을 길이 받  
들어모시며 조국의 탐사를 빛내여가리라 생각하  
니 나는 참으로 기쁘다, 천암산아!...

나는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철림의  
머리를 쓸어만지었다.

《철림이, 내가 정말 망령이 들었겠지. 내가 왜  
너희들을 믿지 못하고 20 년이나 화석을 지리끼  
고 있었을가? 왜 진작 일찌기 그 말을 못했어  
가?》

오철림은 나의 얼굴에 더운 김을 뿜으며 흐느  
끼듯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저희들을 왜 믿지 못  
했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너무  
사랑했기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예순이 다 된 자  
식도 어린애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어디 가서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근심을 하지  
요.》

《이녀석이 땅속만 잘 들여다보는줄 알았더니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누만!》

우리들은 힘껏 포옹하였다.

열려진 방문으로 둥근달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초여름의 부드러운 밤바람이 술렁술렁 불어와서  
나에게 다정히 속삭이는듯싶다.

자애로운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품이 있어 우  
리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재능 있으며  
우리 시대는 이처럼 보람차다고, 그래서 래일은  
더욱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영생의 행복  
을 누릴것이라고...

그렇다.

나는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해방후 30 년동안에  
평생을 두고 갈망하던 모든 소원을 다 풀었다.  
한가지 소원이 더 남아있다면 남쪽절반땅을 보람  
있게 밟아보지 못한것이다. 그러나 그 절반땅도  
값있게 빛나게 될 그날은 올것이다. 그래서 삼천  
리 은금의 자원과 함께 나도 영원히 빛을 뿌리며  
숨쉴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교훈을 통해서  
더욱 굳어진 나의 신념이다.

× ×

그때로부터 4 년이 지난 어느날 박종환로인의  
사망에 대한 부고가 신문에 실리었다. 그 부고와  
함께 로인의 탐사활동을 소개한 기사가 발표되  
었는데 그것은 로인이 쓴 《교훈사》와 대조적이  
었다. 거기에는 로인의 빛나는 업적만이 기록되  
여있었다.

## 만경대

리호일

만경대 만경대  
부르고 불러보고  
내 한생을 두고 부른다 해도  
못다부를 노래의 요람  
아- 조선의 제일강산  
주체의 등대여

만경대 만경대  
부르고 또 불러도  
다시 부를수록 더욱  
정다워지는 어머니의 품  
그대 살뜰한 가슴이 짓밟혀  
일제의 칼에 맞아 피흐를제  
백두산의 눈보라속에서도 혁명투사들  
그대 이름 부르며 젖어오는 가슴에  
광복의 봄 읊트며 노래하던  
아 조국의 이름  
희망의 등대여

만경대 만경대  
그대를 떠나 머나먼 남쪽나라  
푸른 호수가 꽃속에 묻혀도  
아 내 마음 가는 맑은 나라, 조선  
꽃피는 락원의 언덕  
주체의 봄등대여!

만경대 만경대  
언제 어디 가나 부르고 또 부르며  
죽어도 내 마음 두고 갈  
영광의 땅  
아 인류의 태양 솟아 온 누리를 밝히는  
주체의 등대여

만경대 만경대  
조선이 가고  
새세계가 따라가고  
주체시대가 우리러 노래하는  
인류의 등대여!

## 인민과 재능

문재건

이 땅 그 어디, 그 어느곳을 찾아보아도 바라보아도 솟구치는 궁지와 자부로 하여 가슴 들먹임을 금할수 없다.

이 땅이 생겨 이 민족이 생겨 그 언제 오늘처럼 이토록 인민의 재능이 활짝 꽃피고 무성한 때가있었던가.

우리 시대-주체시대 세인을 경탄시키며 눈부시게 솟아오른 위대한 창조물들.

그것은 주체의 태양이 이 땅우에 키워낸 귀중한 창조의 열매이며 위대한 인간개조의 값높은 결실일것이다.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을 기초로 삼으시고 70 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우에 자라나고 태어난 크나큰 재부,

그것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민의 힘인것이다.

...미묘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아오른 빙상관을 찾아도 그렇고 푸른 창공에 나래치듯 남산재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의 청기와 지붕을 바라보아도 그렇고 우아한 창광거리를 거닐어도 그렇다.

보아라, 이 땅에 솟아오른 시대의 기념비들과 기적의 그 모든 창조물들을.

보아라, 이 땅우에 펼쳐진 인민의 모든 재부들을.

이 모든것,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에 우리 인민의 비상한 재능과 뜨거운 충성심이 빛을 뽐고 있지 않는가.

잠을 깨고일면 어느 공장에서는 평범한 노동자가 아직 세상에 없는 새로운 자동기계를 설계하였다는 이야기, 어느 농장에서는 농산기사가 동화에서나 들을수 있는 그런 신기한 콩종자를 새로 육종해내었다는 이야기, 어느 탐사대에서는 아직 세계지질계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대에서 놀라운 매장량을 가진 새로운 광산후보지를 발견하였다는 이야기...

참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세찬 불길로 타번지는 이 땅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발명들이 끝없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주체의 기치 따라 자주성과 창조성을 향유하는 자랑찬 인민으로 자라났음을 웅변으로 말하여주는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노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누구나 다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 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노동생활에서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자.

해방직후 이 땅에는 일제가 굶어가고 쓸어간 빈 금고와 낡은 장부책 몇권에 싸늘하게 식어간 용광로, 헐벗은 산림과 여기저기에 마구 파먹다 버린 물고인 광산들과 탄광밖에는 남은것이 없었다.

그때 우리에게 몇명의 과학자가 있었던가. 몇명의 변변한 기사, 기능공이 있었던가.

일제는 우리 민족을 《센징》이라 모욕하며 그 어떤 기술도 지식도 가질수 없는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고 우리 인민을 오직 하나의 값싼 상품으로, 노동력을 바치는 도구로만 간주하였을따름이었다.

백두의 험준준령을 주름잡으시며 눈보라 만리, 불바다 만리를 헤치시여 조국광복의 새아침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 가난하고 헐벗은 조국, 사랑하는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강철의 의지로 새 조국건설의 초행길우에 건당, 건국, 건군의 광활한 대로를 열어주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광활한 대지를 이 땅에 펼쳐주시신것이다.

억압과 천대에 시달리던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강의한 의지와 깨끗한 성품을 지닌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무지와 몽매를 박차고 이 땅우에 반드시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크나큰 확신에 넘치시여 인민의 눈을 띄워주고 힘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사업에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앞길을 밝히시고 새 조국 건설의 주인으로 인민을 내세워주신 그 위대한 손길 따라 우리 인민은 충성의 한길을 걸어왔다.

자각된 인민대중의 힘은 이 세상의 모든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변혁하고 개조하여나갈수 있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의지, 그것은 이 땅우에 가져온 모든 기적의 출발점으로 되었던것이다.



간고한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낫놓고 기옥자도 모르던 대원들에게 몸소 공책을 매여주시고 연필을 쥐여주시며 《가, 가》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시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이 땅 위에 배움의 큰 대문을 열어주신 아버지사랑.

아버이수령님께서 갓 조직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에 상징시키신 의제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다름아닌 연필생산문제였다.

글을 배우자 해도 연필 한자루 제것이 없던 내 나라였다.

문맹퇴치운동을 하자고 해도 연필 한자루 구할 수 없는 내 나라였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처음으로 쥐여본 그 연필.

그것은 칠감이 없어 아무런 색깔도 돋치지 못한 나무결이 그대로 드러난 연필이었다. 거기에 검은 등사잉크로 새긴 《삼천리》라는 우리 말 자호.

정녕 그것은 내 것이었으며 해방된 내 나라의 첫 제품이었던만큼 우리에게 그것이 더없이 귀중하고 소중하였다.

거기에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이신 뜻이 깃들어 있었고 민족의 긍지가 스며있었다.

《삼천리》연필, 거기에는 삼천리강산의 주인인 우리 인민이 삼천리강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가꾸가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기대와 높이신 뜻이 담겨있었다.

이 연필을 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맹의 처지에서 벗어나 새 조선 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라났던가.

이 연필을 잡고 해빛밝은 창가에서 새별눈 반짝이며 글을 쓰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늙은이들이 장군님 초상화를 우러러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가.

그 시기 어디에 가나 이런 구호들을 볼수 있었다.

《지식은 광명이요, 무식은 암흑이다.》

《아는것이 힘.》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이 모든 구호는 사람을 창조의 중심에 놓고 인류의 재부를 창조할수 있는 인간의 재능을 키우기 위한 웨침이며 호소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학교들이 일떠서고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 가나 성인학교의 밝은 창문들에선 언제나 밤늦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교육사업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시고 다 돌려주신 위대한 사랑을 우리 어찌 글로 써 말로써 다 전할수 있겠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우리 나라의 첫 종합대학에 깃든 사연만을 생각해보자.

장군님 주신 땅에서 첫해농사를 지어 풍년을 마련한 농민들이 알알이 정성담아 고르고고른 애국미를 달구지에 싣고 평양에 올라왔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의 애국심을 높이 치하하시며 이 쌀을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고 일군들에게 물으셨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쌀을 팔아 다른 나라에서 트랙토르를 사다가 농사일에 쓰면 좋겠다고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계를 사다가 공장을 차려놓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먼저 종합대학을 세워야 앞으로 우리 손으로 트랙토르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수 있다고 하시며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대학의 터전을 몸소 잡아 주시고 그 애국미로 이 나라의 재능있는 인재들을 키워낼 과학의 전당을 일떠세우셨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장 쌀이 나오는 사업도 아니며 당장 철이 나오고 기계가 쏟아져나오는 사업도 아닌것이다.

교육은 한두해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며 몇년동안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다.

교육은 인간성장의 전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미래를 위한 사업인것이다.

참다운 교육이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형성시켜주는 사업이며 자주의식과 창조의식을 키워주는 장기적인 과정이라 할것이다.

결국 사람이 자기와 사회와 자연을 인식파악하고 자기의 창조적힘을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사업인것이다.

때문에 재능은 교육을 통해서만 키울수 있고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재능이 저절로 꽃핀다고 생각지 말라.

재능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가정과 사회와 교육의 융합속에서 형성되는 개성적인 사람자체가 발휘하는 창조적능력의 값이라 할것이다.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광야에 타오르다 꺼져버린 우등불마냥 나타났다 사라졌던가.

밤하늘의 별찌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그 무수한 재능들은 종교와 독재자의 무지한 재판과 교수대 앞에서 한점의 불꽃으로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오늘도 노예들의 그 재능을 보여주는 스프링그스와 피라미드의 돌조각들을 보라.

제왕과 귀족들의 부귀와 향락의 룡락물로 된 그 무수한 재능을 왕궁의 내실과 사원의 대리석에 새겨놓고 속절없이 사라지지 않았던가.

황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를 보라.

사람의 존엄도 재능도 돈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저 암흑사회에서 어떻게 인민대중의 창조적재능이 빛을 볼수 있겠는가.

그 음산한 자본주의사회의 그늘밑에서 간신히 피어난 흔치 않은 재능의 꽃마저 자본가들의 밑페넌 온상속에서 향기 없는 꽃으로 스러지고마는 세상.

얼마나 많은 재능있는 사람들이 리성을 마비시키는 공허하고 단조로운 노동, 한조각의 빵을 동냥하기 위한 직업전선에서 자기의 재능을 소모하며 실업의 진창속에서 헛된 정력을 소모하고있는 것인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감하고 쾌기있는 우리 민족은 인류의 과학과 문화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옛고분들과 문화층들에서 발굴되고있는 거푸집들과 정교한 솜씨로 부어낸 청동주조품들을 살펴 보라.

비상한 환상력과 슬기를 자랑하는 고구려 고분의 생생한 벽화들에 눈을 주라.

근면하고 재능있는 목수들과 대장쟁이들이 만든 어넌 세계최초의 철갑선들과 독특하고 위력있는 거북선들과 같은 병선들을 생각해 보라.

하지만 이 모든 인민의 재능들이 유교경전이나 외우고 음풍영월로 세월을 허송하던 력대의 무능한 통치배들과 봉건사대부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혀지고 말살되었었다.

재능은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한 재능, 힘은 있어도 기술일곳이 없는 힘을 두고 가슴을 치며 또 치며 통탄하던 인민이었다.

그러한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에 안기여서야 비로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영원한 광원을 받아안게 되었으며 만발한 재능의 대화원을 펼쳐갈 휘황한 대지를 바라보게 된것이다.

민족의 재능을 그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고 그 누구보다 인민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기울이시여 우리 인민의 재능을 키워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바치시었다.

어제날 빛을 잃었던 조선이 오늘 주체의 조국으로 만방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 식민지노예의 치욕만을 강요당하며 기를 펴지 못하던 인민이 오늘은 가슴을 짝 펴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머리를 번쩍 쳐들고 그처럼 씩씩하게 활보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행복이며 긍지이며 자랑인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도달한 고상한 사상정신적높이, 투철한 수령관과 인생관은 그 어느 시기, 그

어느곳에서도 있어본적 없고 도달한적 없는 그러한 상상봉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우기를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와 사랑의 결실인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아버지사랑이라고 한다.

그러한만큼 우리모두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인간의 존엄을 빛내일수 있는 힘을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이의 뜻을 따르며 받드는것은 인민의 도리를 다하는 본분이며 숭고한 의리로 되는것이다.

식민지 반봉건사회의 빼격이는 소달구지가 굴러가던 이 땅우에 오늘 사회주의공업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솟아오른 철의 기지들과 기계의 바다를 생각할 때 아버지수령님의 로고의 자욱자욱을 가슴 뜨겁게 더듬게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모든것을 사람중심의 철학으로 정치를 펴시고 혁명도 건설도 사람을 중심으로 령도해나가신 그 길우에서 우리 인민의 재능은 꽃피었으며 그 위대한 사랑은 바로 이 땅우에 무에서 유를 낳는 20 세기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이 과정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민으로 성장하게 된것이다.

재능은 옥이라 할것이다.

아무리 귀중한 옥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다면 그 옥은 빛나지 못할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은 땅속에 묻혀있는 그 옥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찾아내시여 자애로운 손길로 닦아주시고 빛내여주시여 밝은 태양의 빛발아래 그 진가를 만세상에 떨쳐주신다.

옥을 찬란히 빛내이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회주의 제도가.

우리 인민들속에서 빛을 뿜는 재능이 그러하다.

연필문제를 푸는것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새 조선 건설이 오늘은 얼마나 거창한 창조의 기념비들을 이 땅에 일떠세웠는가.

우리앞에 한 건축가가 있다.

그의 손에는 우리의 연필 《첫외정》이 쥐여져 있다.

그는 《삼천리》연필을 쥐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또박또박 적어가던 어제날의 머슴군의 아들이다.

그는 오늘 《첫외정》의 연필로 인민대학습당의 설계를 하였고 계속하여 웅장한 새로운 대상들을 설계하고있는 우리 당이 키워낸 재능있는 설계가이다.

참으로 그 애국미로 지은 종합대학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100 만의 재능있는 지식인대군을 가지게 되었으며 오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도 척척 만들어낼수 있는 재능있는 인민

을 가지게 된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삼천리》연필이 있음으로 하여 암흑속에서 헤매던 이 나라 인민들이 현대문명의 최첨단에서 자기의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되었다.

한명, 한명, 하나하나의 재능을 몸소 찾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정을 생각한다.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나 새 기술혁신과 창고안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거기에서 발휘된 사소한 싹이라도 제일먼저 치하하여주시고 고무를 주시며 그것이 경제건설에서 은을 내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신 사랑의 손길.

한 노동자의 미숙한 창안품을 앞에 놓으시고 그리도 만족하시여 오래오래 자리를 뜨시지 못하시던 어버이수령님.

한 과학자의 연구사업을 위하여 준엄한 포화속에서도 실험기구와 시약들을 구하시여 몸소 보내주시고 그의 재능이 활짝 꽃피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하여주신 크나큰 사랑.

그가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면 그리도 기뻐하시며 주체가 선 과학자라고 사대가 없는 재능있는 과학자라고 하시며 크나큰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고귀한 은정.

농촌 현지도의 길에서 한 예술소조원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고 천재적인 예지로 그의 음악적 재능을 헤아리시여 음악대학에 보내주시고 오늘날은 인민배우로 인민의 사랑받는 재능있는 가수로 키워주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고 많은가.

이렇게 몸소 찾아내시고 키워주신 이 나라의 무수한 재능들을 생각한다.

## 가사

# 꽃피는 봄명절

## 홍기품

봄날에 망울진 꽃송이들도

이날 반겨 활짝 피었나

따사론 봄빛이 가슴에 흘러

마음에도 꽃이 피었네

아 화창한 봄명절

축원을 안고 기쁨을 안고 꽃물결 설레이네

꽃피는 봄날의 명절이 있어

모든 행복 넘쳐나고

조국의 미래도 우리 희망도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가장 재능있는 인민으로 되었고 그 재능이 이 땅우에 거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우지 않았던가. 그것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가장 높은 발현이다.

때문에 주체의 조국에 사는 우리 인민의 재능은 그토록 황홀한것이라.

얼마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의 손길에 떠받들려 평양미술대학에 입학한 김하경학생의 서예 재능을 헤아리시여 그를 뛰어난 수재라고 높이 평가하시었을 때 그 소녀가 한자한자 충성의 글발을 새겨간것은 무엇이었던가.

《새해를 맞으며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절절한 축원의 인사였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민의 재능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대견해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인민의 절절한 축원의 마음이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만 피어나고 피어나는 인민의 재능이여 만발하라!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비상한 재능을 지닌 인민으로 될수 있으며 비상한 재능을 지닌 인민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나가는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것이다.

주체의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창조적인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시대를 주체시대라고 소리높이 칭송하며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또 축원하는것이다.

이것이 인민의 귀중한 모든것의 시원이시며 영생의 삶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인민이 올리는 다함없는 축원의 인사인것이다.

이 땅우에 펼쳐지네

아 꽃피는 봄명절

축원의 노래 영광의 노래 하늘땅에 넘쳐나네

만경대 봄빛이 강산에 흘러

은혜로운 삶은 꽃피네

인민의 가슴엔 간절한 소원

꽃바다로 물결치네

아 영원한 봄명절

축원을 안고 기쁨을 안고 꽃물결 설레이네

## 푸른 잎사귀

-한 료양소장의 이야기-

한웅빈

…그날도 그는 낚시터에 앉아있었다. 누구나 모두 제 2 차 7 개년계획수행의 세번째년륜을 새기고있던 바쁜 때였으나 그만은 구태의연하게 낚시터에서 세번째 여름을 맞이하고있었다.

근식은 사회보장을 받은 때로부터 벌써 3 년세월을 낚시터에서만 살아왔다. 이제는 낚시질이 휴식이나 오락이기를 그만 둔지가 이미 오래다. 허나 낚시질밖에는 할일이 없었다.

어느 일터나 좋았지만 그는 송구스러웠다. 자기가 부담으로밖에 될수 없다는것을 잘 알게 되었다. 하여 그는 3 년세월을 계곡의 물소리속에 흘러보냈다…

낚시터는 조용하였다. 옷골짜기에서 폭포 쏟아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으나 하도 변함없는 소리여서 소란하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다.

폭포에서 떨어진 물은 진달래가 드문드문 박힌 바위벼랑 밑에서 휴식이라도 하듯 푸른 소를 이루었다. 이쪽 기슭에는 도토리나무들과 흰꽃송이들이 눈처럼 소복이 덮인 짙레꽃덤불이 우거졌다. 그속에 수삼나무와 은행나무 두그루가 유묘하게 솟아 있었다. 3 년전 어느 봄날에 근식이 길에서 얻었던 나무모들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근식에게는 일주일가운데서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었다. 물론 로동일 없는 그에게 토요일도 월요일도 일요일과 마찬가지였지만 일요일이면 영예군인공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낚시대를 메고 나타나곤하였기때문이었다.

그들은 어릴적부터 함께 자랐다. 친구는 근식이 보다 두살 이상이었다. 어릴적에는 그것이 주먹과 몸집의 차이로 굉장해보였었으나 마흔고개를 훨씬 넘어서는 오늘에는 동갑나이처럼 되어버렸다. 하기는 그들은 1951년 여름 군사동원부 마당에서 벌써 동갑나이가 된적이 있었었다.

하여 근식은 일요일이면 일찌감치 낚시터에 나와 앉아 미끼도 마련하고 물고기밥도 뿌려주며 그를 기다리곤했다.

그날도 친구는 한손에 낚시대를 들고 다른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어김없이 나타났다. 게다가 그는 두명의 낚시군을 더 데리고 왔다. 40 여년의 긴 로동경력을 가진 체소하나 단단한 풍년기계공장의 주물공과 그의 로동경력만한 나이를 가진 풍년 기계공장의 지배인이었다.

그들을 맞이하는 근식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다. 그들이 낚시터에 나타났다는것은 이날이 풍년기계 공장의 《명절》임을 의미했다. 근식은 그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생각했다.

(우리 풍년기계가 이달 계획을 앞당겨 끝냈구나.)

《자- 빨리 자리들을 잡읍시다. 시간이 아까운데, 난 여게 앉겠습니다. 비서동문 저 옆이 어떻습니까?》

하는 지배인의 말에 주물공은 근식을 쳐다보며 룡담을 했다. 무척 흥겨운 기분들이었다.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될가.》

낚시터에는 빙 돌아가며 앉을 자리들이 만들어져있었다. 근식이 해놓은것이였다. 어떤 날에는 돌을 몇개 굴러다놓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거치장 스러운 폴대들을 뽑아버리기도 했었다. 3 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였다. 낚시터는 공들여 꾸려놓은것처럼 알뜰해졌다.

주물공과 지배인은 낚시터로 자주 올수 없는것을 무척 애석해하였다.

《이렇게 좋은 낚시터를 두고도…》

하고 지배인이 한숨을 쉬자 주물공은 위안하듯이 말했다.

《월 다음달에도 계획을 하세나.》

《합시다. 참, 난 그런데 일요일에 낚시질도 안하는 사람들은 리해 못하겠더구만요. 길거리를 공연히 왔다갔다하지 않으면 창문이나 내다보고, 무슨 재미들인지, 강동무, 그렇지 않소?》

근식은 대답대신 미소를 지어보였다. 친구는 그의 미소에서 서글픈 빛을 읽은듯 소리를 높여 투덜거렸다.

《이제 무슨 미끼람. 다른 미끼는 없나?》

근식은 새 미끼를 넘겨주며 아침에 아들과 딸애가 주고받던 말을 생각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전업인 낚시질에 적의까지 품은듯했고 낚시대를 메고 다니지 말라고 몇번이나 간청했었다.

《무슨 재미로 그걸 할가. 하루종일 한자리에 돌부처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아유, 답답해!》

《별수 있니?》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녀석은 요즘 부지런히 읽어치우는 소설책들에서 끄집어낸듯한 소리로 유식하게 결론지었다.

《남시군들이란 <인생의 패배자>들이니까!》

근식은 못들은척하고말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녀석을 끌고와 세사람앞에 세워놓고싶었다.

《바라. 이녀석아, 어떤 사람들인가.》

그의 친구와 주물공 그리고 지배인-그들은 밝은 후광에 싸인 인생행로를 걷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체소하나 단단한 로주물공, 온 공장사람들이 그를 알고있었다. 회의때면 주석단에 앉곤했다. 남시터에서 지배인은 그를 《비서동무》라고 불렀다. 근식은 자기가 떠난후에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게 된것이라고 짐작했다.

언제나 그와 함께 있는듯한 젊은 지배인, 전격력이 있고 혈기왕성한 일꾼이었다. 동정심도 부족 많았다.

근식은 풍년기계공장에서 일할 때 자주 병원생활을 했고 일을 남만큼 할수 없었다. 어느 직장, 어느 작업반에 가나 마찬가지였다. 몇달동안 병원생활을 하고 나오면 대체로 다른 직장, 다른작업반으로 옮겨져있었다. 그의 힘에 알맞을곳이라고 생각하여서였다. 1년에 직장을 두번 작업반은 세번 옮겼다. 옮길 때마다 근식은 한마디 의견도 없이 수긍했다. 자기에게 돌려주는 관심이 고마웠다. 그러나 그는 어데 가나 남만큼 해낼수 없었다. 직장의 짐, 작업반의 부담이었다. 일쉬운 직종으로 보내주는 일은 계속되었다. 끊임없는 그 관심이 근식에게는 더없는 피로움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날 근식은 지배인과 마주앉게 되었다. 지배인의 책상에는 로동불가능이라는 병원의 감정서가 놓여있었다. 그는 한동안 다른 말을 하다가야 사회보장을 받는것이 어떤가고 힘들게 물었다. 근식은 묵묵히 앉아있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럼- 강동무...》

하고 지배인은 감정서를 내려다보았다. 해야 할 말이 거기에 써여있기라도 한것 같았다. 근식은 감정서를 끌어다쥐고 일어났다. 지배인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 보조금증명서가 있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오시오. 어떻게 제공장이 아니요?》

지배인은 그런 사람이였다. 나이젊은 지배인으로 존경을 받았다.

근식은 그보다 불과 네살우였다. 그러나 벌써 사회보장자로 되었고 동인민반 녀인들의 떠들썩한 이야기와 웃음소리에 파묻혀버렸다. 그렇게 된 남편을 보는 안해의 눈길은 한없이 서글펐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으면 얼굴부터 붉

히며 대답을 못하곤했다. 웃고 떠들다가도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시무룩해져서 입을 다물어버린다.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부모가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허나 근식은 아이들에게 자랑과 긍지를 조금도 주지 못했다!...

수면은 자그마한 파문도 없이 잔잔하다. 소리도 없고. 허나 수면밑의 세계는 고요하지만 앓을 것이다. 근식은 조용히 앉아있었으나 마음의 괴로움은 커지기만 했다.

...가장 큰 괴로움은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자신이 아무 유익한 일도 못하는 우리 사회에 얹힌 짐이라는 생각, 신문을 읽고 방송을 듣기가 괴롭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두렵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공로보장자도 사회보장자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공로를 세웠거나 수십년간의 성실한 로동으로 사회를 장식한 사람들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공로를 세운적도 없고 성실한 로동을 바치지도 못했다.

허나 달마다 보조금은 변함없이 나오고 의사가 찾아와 진찰하고 약을 준다.

물론 이 땅에는 사회적복리만을 받는 존재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나의 아들들만해도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를 위하여 공로를 세우거나 성실한 땀을 바칠 빛나는 래일을 가지고있다.

나에게는 그러한 래일이 없다. 래일도 모레도 역시 오늘과 같을것이다. 나의 생활은 이미 열여섯살 때에 《오늘》을 맞이했다. 30년전에 생활의 흐름은 정지되어버린것이다...

근식은 문득 자기 집의 맞은편 3층에 사는 한 사나이를 회상했다. 그 사나이는 아침이면 거의 언제나 단추도 채 못채우고 뛰어나왔고 부리나케 걸으면서야 단추를 채우곤했다. 때로는 3층 창문 안에서 그의 머리로 모자가 날아나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 때면 근식의 아들과 딸애는 방안이 떠나가게 웃어대곤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눈길이 미치면 언제 웃었던가싶게 조용해져버린다....

《앗따!》

주물공의 남시대가 활동처럼 휘여들었다. 커란 은빛몸통이가 수면에 떠오르더니 철썩 꼬리를 치고는 다시 물속으로 박혀들어갔다. 지배인이 도와주려고 달려왔고 근식의 친구는 지평이를 찾으며 소리질렀다.

《당기면서 놔주오, 당기면서!》

지배인도 소리쳤다.

《바람을 먹이지우. 너무 늦춰주지 말구요!》

떠들썩한 충고와 유감의 웨침끝에 팔뚝같은 고기가 땅우에 나떨어졌다.



《히야! 이렇게 큰놈도 있는가!》

하고 지배인은 그물주머니에 걸어넣으며 어린애 같은 환희에 싸여 부르짖었다. 근식의 친구는 조금도 감탄하는 기색이 없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난 전번날에는 더 큰놈을 잡았댔소. 낚시대가 부러지는줄 알았다니까.》

하고 그는 공정을 바라며 근식을 건너다보았다. 이것이 낚시군의 심리라는것이다.

그때 아래쪽에서 길게 뽑는 노래소리가 잡지기 들려왔다.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망태기를 둘러멘 총각이 작대기로 잡판목을 탁탁 갈겨대며 올라오고있었다. 옷풀짜기에 있는 양방목지로 매일 한두번씩 오르내리는 농장총각이었다. 근식이와는 이미 구면이었다. 지꼴을 정도로 호기심 많고 엉뚱한녀석이었다. 며칠동안은 낚시질하는 근식의 곁을 지나다니며 코만 쿵쿵거리더니 하루전에는 맹랑한 물음으로 접근해왔다.

《아바인 뭘 연구하는가요?》

《연구?》

《노상 물만 들여다보고있거던요.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하더니 얼마후에는 제 이마를 탁 때리며 묘한 발견을 끄집어냈다.

《우리 군에 장편소설을 쓰는 작가가 왔다던데- 아바이가 아니예요?》

이날은 또 무슨 물음으로 접근해올지 몰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청껏 높아지던 노래소리는 똑 끊어지고 도토리 나무들사이에서 코가 넘죽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코구멍이 무슨 냄새라도 맡은듯 벌름거렸다.

《오늘은 수태 많이 왔는데!》

하고 총각은 버릇없이 한마디 던지고는 근식의 옆에 와서 털썩 주저앉았다.

《많이 잡았어요?》

근식은 물에 잠그어놓은 주물공의 그물주머니를 보라고 손짓했다. 그러나 총각은 거기를 흘깃 보았을뿐 다시 근식에게 얼굴을 돌렸다.

《아바이도 소식을 들었지요?》

《무슨 소식인가?》

총각은 깜짝 놀랜듯 입을 딱 벌렸다.

《물라요? 판세상이네!... 자, 이거 정말!... 어버

이수령님께서 우리 도에 현지지도 나오셨대요!》

《뭘라구?》

《우리 관리위원장동지가 도에 회의갔다가 어제 밤차로 부랴부랴 내려왔어요. 혹시 우리 농장에 도 오실는지 모른대요.》

주물공은 그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관리위원장이? 정말인가?》

총각은 노염을 탔다.

《이 아바이 정말! 우리 관리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농업대회에까지 참가했었어요!》

《그래?》

《흥!》

총각은 코방귀를 끼며 그들따위는 상대가 안된다는듯 벌떡 일어나 궁둥이를 탁탁 털었다.

《에- 가고말아야지!》

그는 훨훨 올라가버리고말았다.

주물공은 잠시후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그럴수가 있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외국대표단을 접견하셨다는 소식이 실린게 어제 신문이 아니였소. 지배인동무?》

《어제였지요.》

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 휴식도 하시지 못하구 또 떠나셨구만.》

대기는 류달리 신선하였다. 폭포근처는 분수가와 마찬가지로 산소가 많은법이다. 어린 도토리나무와 짙레덤불로 가리워진 그쪽에서는 신선한 대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있었다. 그속에서 더덕과 독활의 독특한 냄새가 산의 체취처럼 생생하게 감촉되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러구있소?》

하고 주물공이 벌떡 일어섰다. 지배인과 근식의 친구도 따라서 일어났다.

《빨리 갑시다!》

그들은 낚시대를 거두기 시작했다.

근식은 꼼짝않고 그대로 앉아있었다. 세사람이 한없이 부러웠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터로 같것이며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게 되리라는 믿음을 안고 일손을 잡을것이다. 그들의 한초한초는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기쁨을 마련한다는 흥분과 열정속에 흘러갈것이다.

근식은 언제인가 이런 노래를 들은적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 가시는 길에 목란꽃송이 되여 피고 싶어라.》 저 사람들의 뜨거운 땀방울은 목란꽃송이로 되여 영광의 길우에 피여날것이다. 그것은 최상의 기쁨이며 행복이다.

허나 그는 그대로 앉아있어야 했다. 세사람이 한없이 부러웠다.

근식은 물론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또한 그를 불행하다고 할 사람도 없었다. 가정과 살림살이를 보면 오히려 부러울것 없이 산다고 말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불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생활의 첫문어귀에서 그를 기다려준것은 불운이었다. 그는 그곳에 멈추어서야 했다. 그때부터 그는 한발자국도 더 내디디지 못하였고 마침내는 로동일과 함께 휴식일도 잃어버렸다. 생활의 궤도에서 떨어졌다.

그가 어찌 40 여년의 경력을 가진 로동계급의 로세대,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린 영예군인, 혈기왕성한 젊은 지배인-그들과 한자리에 설수 있단 말인가...

길을 걸을 때면 그는 저도모르게 머리를 수그린다. 걷는 길이 웅장하고 화려해질수록 머리는 무거워졌다. 앞으로 앞으로 내달리는 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신에 대한 피로움은 커만 갔다.

.....

그는 낚시대를 거두는 세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잘 가시오. 내 축원을 받아주시오. 부디 동무들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끝없이 부러웠다.

세사람이 마치도 아버지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인것 같았다.

세사람이 떠날 차비를 거의 했을 때 상류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농장총각이 내려오는줄 알았는데 귀를 기울여보니 여러 사람인것 같았다. 어린 도토리나무와 짚레덤불에 가리워 보이지는 않았다.

세사람은 이미 낚시도구를 다 꾸러들었다. 수면은 마치 종이장을 편것처럼 반반해졌다. 낚시동동이는 파문 하나 일지 않는 수면에 녹아붙은듯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푸른 하늘, 흰구름, 햇빛은 수면에서 정착되어버렸다.

《물이 참 맑구만!》

하는 말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며 짚레덤불이 흔들리는것이 아련하게 바라보였다.

물위에 드리운 짚레덤불아래로 두손이 나타나 물을 한웅큼 떠올리는것 같았다. 분명 손에서 물이 흘러내리며 쟁쟁한 소리를 냈다. 잔잔하던 수면은 잠을 깬듯 파문으로 가득차고 햇빛은 물위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며 뛰놀기 시작했다.

그 손은 그대로 떠나기 아쉬운듯 다시한번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듯했다.

《물이 아주 좋소!》

《약수라고까지 소문났습니다.》

열렬히 긍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만하오. 진짜일수도 있지. 우리 나라는 어데 가나 약수가 있소.》

《저쪽 골짜기에선 약수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량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짚레덤불의 옷부분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으로 두손을 허리에 올려짚고 선 모습을 멀리에서도 알아볼수 있었다.

《물 좋고 경치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런데서 살았으면 좋겠소!》

《여기서 며칠 쉬고 가시면 안됩니까? 물고기도 많습니다.》

《군당비서가 말꼬리 잡을줄 알거던!》

커다란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와왔다. 낚시터의 네사람은 저으기 놀랜 눈길로 서로 마주보았다.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간부들인것 같았다.

《여기에 휴양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소. 낚시질도 하고 등산도 하고 덕수도 맞고... 근로자들의 휴식에 아주 좋을것ियो... 저길 보오. 벌써 낚시질 하는 사람들이 있구만.》

짚레덤불이 쳐들리며 허리를 굽힌분이 이쪽으로 나오시었다. 어린 도토리나무들이 흔들렸고 짚레꽃의 흰다발이 그분의 어깨우에 소담하게 얹혀졌다.

순간 근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발은 못박혀버린듯했다. 너무나도 낮익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시었다. 산과 강, 하늘 모든것이 그분의 모습만으로 꼭 찬듯했다.

(아니?! 설마... 아니 그럴수야 있나. 하지만 설마...)

의외의 장소에서 뜻밖의 일에 부닥치면 자기라는것을 깨닫기전에 놀래기부터 한다. 이때가 그런 경우에 가까웠다. 더우기 그분의 모습은 자신보다도 수십수백배로 더 가깝고 친근해진 모습이시었다. 짚레꽃의 흰다발이 다시 물위에 휘청 드리웠을 때에야 그들은 일시에 부르짖었다.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근식의 손도 잡아주시었다. 크고 따뜻한 손이시었다.

《고기가 잘 물리오!》

《예, 큰 고기들도 많습니다.》

하고 지배인은 주물공이 잡은 물고기를 높이 쳐들었다.

《정말 큰데-! 솜씨가 있구만!》

군당비서는 그가 풍년시계공장지배인이라고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동무네 공장이야기는 들었소. 일만 잘하는줄 알았더니 낚시질도 잘하누만.》

지배인은 얼굴을 붉혔다.  
《전 잘못합니다. 이젠 우리 세포비서동무가 잡  
은겁니다.》

근식은 지배인이 너무 당황하여 세포비서라고  
잘못 말한줄로 알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주물공쪽으  
로 얼굴을 돌리시었다.

《세포비서사업을 하오?》

《예. 주물작업반 세포비서로 일합니다.》

《비서사업을 한지 오랬소?》

주물공은 웬일인지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같았다. 지배인이 초조하게 발을  
이리저리 저격디디다가 대답을 올렸다.

《32년째 하고있습니다.》

《32년? 대단하구만!》

수령님께서서는 감탄하시었다.

《그러니 동무는 우리 당의 한 세포를 책임지고  
우리 혁명의 모든 단계를 거쳐왔구만. 2개년계  
획도, 3년간 전경도, 전후복구건설도, 사회주의공  
업화도,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한 초소에서 공  
명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훌륭하오. 동무야말  
로 숨은 영웅들중의 숨은 영웅이요.》

로세포비서는 목매여 부르짖었다.

《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지배인에게 물으시었다.

《동무는 지금 몇살이요?...마흔둘! 그러니까 동  
무가 열살때부터 이 동무는 세포비서로 일한셈이  
요.》

《그렇습니다. 저의 첫 세포비서였구 입당보증  
인입니다.》

《그렇소?》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대견스럽게 내려다보시  
었다.

《이것이 당일군의 보람이지...》

그분의 시선은 근식의 친구가 짚고선 지평이  
에서 벗어나었다. 그는 얼른 자세를 바로잡으며 영  
예군인공장에서 일하는 누구라고 말씀올렸다.

《어느 전투에 참가했소?》

《339고지에서 싸웠습니다.》

《339고지? 그때 몇살이었소?》

《스무살이었습니다.》

《스무살... 그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동무의 머  
리에 흰 머리칼이 섞였구만. 늙지 말아야겠는  
데...》

영예군인은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수령님! 수령님께서 더는 늙지 말아주시시오.》

《고맙소. 우리야 모두 늙지 말아야지.》

수령님께서서는 싱싱하게 자라는 수삼나무를 매  
만지시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소.》

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는 은행나무를 살  
펴보시었다. 흥미있어하는 표정이지었다.

《이 나무들은 언제 심었소?》

그 물으심에는 누구도 대답을 올릴 사람이 없  
었다. 누구나 원래부터 있었던 나무로만 알고있  
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대답은 기다리고계셨다. 근식은  
앞으로 나서며 나직이 대답을 올렸다.

《3년전에 심었습니다.》

《동무가 심었소?》

근식은 머리를 숙였다.

《예.》

《여기를 이렇게 꾸리게 동무였구만. 잘 꾸려놓  
았소. 깨끗하고 보기 좋게... 얼마나 좋은 일이요.  
모든 우리 사람들이 동무처럼 자기 주위를 가꾼  
다면 우리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와지겠소?》

수면에서 뛰노는 은빛해살이 얼른얼른 근식의  
눈속으로 비쳐들었다. 눈부시게 밝은 해살이였다.

《그래 어느 공장에서 일하오?》

근식은 머리를 떨구었다. 대답이 차마 입밖으  
로 나오지 않았다. 어데선가 딱따구리의 나무쫓  
는 소리가 귀아프게 따르륵따르륵거렸다. 그의  
친구가 수령님께 대답을 올렸다.

《풍년기계공장에서 일하다가 3년째 집에서...  
사회보장을 받습니다.》

지배인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주물공이 팔을 다  
쳐서야 진정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시었다.

《지금 몇살이요?》

《마흔여섯살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찢레꽃가지를 잡아당겨 잎사귀며  
가시돋친 줄기를 유심히 들여다보시었다.

《영예군인이요?》

《.....》

또다시 딱따구리소리가 초조하게 들려왔다.

《저는... 군데복무를 못했습니다.》

특하고 찢레덤불이 세차게 흔들렸다. 수령님께  
서는 덤불에서 떼여낸 찢레꽃가지를 손에 들고계  
시었다. 작고 날카로운 가시들은 해빛을 받아 은  
빛숨털처럼 보였다.

《내가 동무의 아픈곳을 다쳤구만.》

수령님께서서는 찢레꽃가지를 어떻게 할가 망설  
이는듯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다시 오른손에서 왼  
손으로 옮겨주시었다.

《아이들은 몇이요?》

《넷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찢레꽃잎사귀를 조심스레 뜯어내  
여 유심히 들여다보시었다. 파란 잎사귀의 앞면  
이 푸른 유리조각처럼 반짝거렸다.

《집살림은 어떻게?》

《괜찮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배려로 아무 근심걱정없이 살아갑니다.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

동그란 찰레잎사귀는 그이의 손에서 흰 자갈우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래도 동무의 얼굴에는 그들이 저있소.》

근식은 흰 자갈우에 내려앉는 파란 잎사귀만 내려다보았다. 동그란 푸근 잎사귀는 점점 뿌연 안개속에 휩싸여갔다.

《수령님, 저에게는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일도 해놓은것 없이...》

또 하나의 파란 잎사귀가 떨어져내렸다.

《앓기 시작한지 오랬소?》

근식의 친구가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전쟁때 적들의 폭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웃쪽에서 폭포 쏟아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딱따구리소리는 사라지고 가까이 어데선가 뻐꾹새가 명상에 잠긴듯 천천히 뻐꾹-뻐꾹- 거렸다. 두번... 세번...

《입대하여 전선으로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하고 근식의 친구는 말씀올리기 시작했다.

뻐꾹-뻐꾹-... 근식은 그대를 회상했다.

...모든것이 남으로 전선으로 달려가던 1950 년 여름이었다. 마을북판의 조선지도는 하루하루 공화국기발로 넓어져갔다. 그와 함께 적비행기들이 미친듯이 날치였다. 마을은 불탔고 근식의 부모들도 폭격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젊은 피는 뚫어올랐다. 복수하리라 천백 배로, 가자 전선으로, 전선으로 가자, 허나 나이가 모자랐다. 그는 열여섯살이었다. 전선은 미래의 환상이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7 월 8 일 방송연설이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더는 참을수도 기다릴수도 없었다. 허나 나이는 의연히 열여섯살. 물러서지 않으려면 단번에 두살을 먹어야 했다. 하여 그는 군사동원부마당에서 단번에 두살을 불구었다. 신체 검사장으로 들어갈 때는 학질이라도 걸린듯 오한이 났다. 마침내 합격되었다. 자동차를 타고 전선으로 떠났다. 주먹을 흔들며 목이 터지게 노래를 불렀다. 심장은 몇십배로 커져 가슴을 가득 채운것 같았다.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승리자로 돌아오든가 영웅으로 죽으리라. 쿵쿵 포소리에 대지와 대기가 진동했다. 그것은 근식을 부르는 소리였다. 전선이, 위훈이 그를 부르는 소리였다!

허나 그날밤 그는 도중에서 적비행기의 폭격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친구는 의식없는 그를 불안고 통곡했다.

《근식아, 이자식아, 눈을 떠라! 이렐려구 같이 떠났니?》

그때 영원히 감겨진듯 띄워지지 않던 근식의 눈가에 분한 눈물이 맺혀있었다고 친구는 후에 이야기했다.

이것으로 근식의 첫걸음은 끝났다. 두번째걸음은 없었다. 너무도 짧게 끝난 걸음이었으나 근식의 일생에서는 유일하게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추억이었다.

아, 모든것이 남으로 남으로 굽이쳐나가던 전선길, 조명탄이 활활 타고 고사기관총의 예광탄이 류성처럼 하늘로 헤여 올라가던 그날밤!... 수십년 지난 오늘도 그 추억을 더듬을 때면 근식의 눈에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고이군했다...

어깨우에 크고 따뜻한 손이 놓였을 때에야 근식은 이미 친구의 말이 끝난지 오랬음을 깨달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시었다.

《그렇게 됐구만. 알겠소. 알겠소.》

수령님께서는 마치도 근식의 추억을 모두 헤아려보신듯한 음성이지었다. 근식은 머리를 들었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의 눈가에 잡히신 부드러운 잔주름살들을 보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을 가리웠다. 그는 어린시절 모욕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 모든 사연을 알아주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설음에 겨워 목놓아 울듯이 흐느껴울었다.

《저는... 저는... 아무것도 한일이 없습니다.》

《동무는 큰 일을 했소. 열여섯살 어린나이에 당과 조국을 위하여 나이를 불구어가면서 총을 메고 미국놈들과의 싸움에 나섰던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소? 소리높이 자랑하시오. 우리는 미국놈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소. 동무의 마음까지 합쳐서말이요.》

주위의 모든것이 정적에 잠겼다. 줄기찬 폭포소리는 정적을 더 깊게 할뿐이었다.

《나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영웅칭호를 주고 싶소.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총을 잡았던 사람도 후방에 있었던 사람도 모두 영웅이라고 부르고싶소.》

잔잔하던 수면에서 동그란 파문이 일었다. 파문의 북판에서 하늘잠자리 한마리가 쌍엽기처럼 유유히 떠오르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시계를 보시었다. 그리고는 시계유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리시었다.

수원들은 아까부터 초조한 기색으로 서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근식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었다.

《건강을 빨리 회복하도록 하시오. 낚시질은 건강에 아주 좋소. 건강을 회복하면서 자랑스럽게

땀땀하게 사시오.》

수령님께서서는 차에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한걸음, 두걸음... 허나 수령님의 걸음은 수원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몹시 무거워지시었다.

《1950년 여름이었다고 했지... 그래 그때가 바로 50년 여름이었지...》

...1950년 7월의 밤, 조선전선에 미제침략군 지상부대의 본격적인 투입이 시작된 준엄한 여름의 무더운 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으로 나가고계시었다. 길은 거센 숨결과 높은 발구름소리로 진동했다. 총창과 철갑모들이 번쩍거렸다. 배낭을 멘 정치공작원들, 선전원들, 교원들, 탄약달구지와 함께 걷는 늙은이들과 녀인들, 소년들, 온 나라가 전선길로 펼쳐나온것 같았다.

항공신호총이 울리면 삽시에 캄캄칠야로 변했다가 다시금 불빛이 번쩍이며 노래소리와 발구름소리 울리는 전선길의 밤, 불타는 밤, 정열의 밤이었다.

한곳에서 길이 막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차는 잠시동안 멈춰섰다. 수령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셨다.

앞에는 포탄상자를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자동차가 서있었다. 빙산같은 그 꼭대기에 여라문명의 전사들이 편안하게 붙어앉아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밤이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가오시는것도 몰랐다.

노래가 잠시 멎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사들에게 물으시었다.

《전선으로 가는길이요?》

《예, 전선으로 갑니다!》

애된 목소리가 호기있게 대답했다. 옆에서 담배를 붙이는 불빛에 너무도 어려보이는 얼굴이 드러났다.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물으시었다.

《동무, 지금 몇살이요?》

《열여덟살입니다!》

손안에 감아쥔 담배불이 어린 전사의 얼굴옆에서 병긋거렸다.

《팍포를 놓지 말게. 여긴 군사동원부가 아니니 걱정말라구.》

《왜 팍포라 그래요?》

《자네가 하루아침에 세살씩이나 먹은걸 누가 모를줄 아나?》

차우에서 웃음이 터졌다. 수령님께서도 웃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허물없이 전사들과 이야기할수 있는 이밤의 어둠이 더 마음에 드시었다.

어린 전사는 쨍쨍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놈들의 침략을 반대한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할 땐데-》

웃음소리가 멎었다. 열다섯살소년의 대답으로는 너무도 뜻밖이어서였다. 책이라도 읽는듯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말을 어데선가 들으신듯하시였다.

《열다섯살이건 열여덟살이건 무슨 상관있어 요?》

담배연기에 석땀해진 목소리가 너그럽게 그를 달랬다.

《누가 아니라나, 같이 가세나.》

다시 웃음이 터졌다. 수령님께서서는 또 물으시었다.

《그래 미국놈과 싸워이길 자신이 있소?》

《예!》

어린전사가 대답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현듯 그가 이제 무슨 말로 대답하리라는것을 깨달으시었다.

《그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일어난 우리 인민은 꺾을수 없어요!》

전사는 7월 8일 방송연설의 글줄로써 대답하고 있었다. 그는 차우에서 벌떡 일어섰다. 별무리 흐르는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가냘픈 작은 몸집이 솟아올랐다. 그는 부르짖었다.

《우린 꼭 이긴단말이에요. 이겨요! 이겨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보이지 않는 어둠속에 서계시었다. 손을 쳐들어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고맙소. 전사동무.》

멀어지는 차우에서 노래소리가 울렸다.

정의의 총칼로써 원수를 무찔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차에 오르시었다. 노래소리는 사라졌으나 수령님께서서는 계속 들으시며 마음속으로 함께 부르고계시었다. 우리는 이긴다. 기어이 이긴다.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났다. 허나 어린전사의 모습은 소이탄연기 오르는 폐허의 지하실에서 전승행진곡을 짓던 작곡가의 풍금소리와 《수상님! 얼굴이 많이 축간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 어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었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넘려마십시오. 우리는 수장님을 지지합니다.》  
하던 할머니의 얼굴과 그리고 6만톤분피압연기에  
서 12 만톤의 강편을 밀어낸 강선로동계급의 모  
습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  
져있었다.

그런데 어제날 가장 준엄하였던 시절의 그 전  
사일수도 있는 전상자가 그늘진 얼굴로 살고있는  
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아프시였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행복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땅에 태어  
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저 전사는  
어제나 래일이나 마찬가지로 낡시터에 앉아있을  
것이다. 지난날에 대한 긍지가 행복을 줄것인가.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행복이란 그런것이 아니다. 행복은 결코 고요  
한 안정이나 아름다운 추억에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이란 어데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폭포 쏟아지는 소리... 뻐꾹새의 울음소리는 여  
전히 호수가의 고요를 흔들고있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당비서를 가까  
이로 부르시였다.

《약수터를 찾아냈다고 했지?》

《예, 그런데 무척 량이 적습니다.》

《고맙소.》

군당비서는 수령님께서 무엇을 고맙다고 하시  
는지 깨닫지 못했다.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돌아서시였다. 낡시터에 이  
르신 그이께서는 근식에게 말씀하시였다.

《저쪽 골짜기에 자그마한 약수터가 하나 있다  
고 하오. 우리는 거기에 료양소를 꾸리려고 하오.  
이뎡소? 약수터를 관리해보지 않겠소?》

《예? 제가말입니까?》

《이 낡시터를 꾸린것처럼말ियो.》

《해보겠습니다.》

근식은 덤벼치며 고쳐 대답을 올렸다.

《아니, 꼭 하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크게 웃으시였다. 모두 웃었고  
근식이도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심장은 쿵쿵 울  
뛰었다. 그는 료양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다는 몰랐으나 자기 생활에 닥쳐온 크나큰 전환  
은 똑똑히 예감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다.

《웃는구만.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럼 난 가겠

소.》

수령님께서서는 다시한번 《그래야지.》 하시며 돌  
아서시였다. 이번에는 걸음이 그렇게 무거워보이  
지 않았고 저으기 가벼워지신듯했다.

근식은 못박착힌듯 서있다가 한걸음두걸음 따  
라갔다.

《수령님!》

부름은 가슴속에서만 올랐다. 한없이 귀중한  
영상, 태양과 같이 승엄한 모습을 깊이깊이 새겨  
두려고 애썼다. 그러나 눈앞은 걸잡을수없이 흐  
려들어 주위가 온통 짙은 아지랑이에 휩싸인것  
같았다.

아지랑이는 끊임없이 피여올랐다. 아지랑이속  
에서 승용차는 멀어져갔다.

근식은 오래도록 서있었다. 골짜기에서 들려오  
는 폭포소리, 그것은 차바퀴굴음소리같기도 했다.

조용히 슬렁대며 흘러가는 물, 하늘과 땅, 대  
지...

흰 자갈우에는 찢레잎사귀가 푸른 반점처럼 덮  
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잎 또 한잎 뜯어놓으  
신것이였다. 근식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하나  
하나에는 그의 이제까지의 고민과 피로움을 합  
친것보다 몇십배로 더 큰 심려가 깃들어있었다.

《강동무!》

근식은 머리를 들었다. 세사람이 그를 둘러싸  
고 서있었다. 40 여년의 로동경력과 32 년간의 세  
포비서인 주물공, 그의 손에서 자라난 지배인, 33  
9 고지의 영웅인 영예군인- 친구는 울고있었다.

근식은 아직 자기에게 닥쳐온것을 다는 깨닫지  
못하였다. 다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였다는것  
을 느꼈고 눈앞에는 웬일인지 여름이나 겨울이나  
밖으로 나와서야 단추를 채우며 뒤통이 걸어가  
는 3 층집 사나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아-

느닷없이 길게 뿜는 노래소리가 폭포쪽에서 들  
려왔다. 농장총각이 내려오는것이였다.

두번 다시 태어난대도

노래는 시작될 때처럼 갑자기 푹 끊어졌다. 찢  
레덤불을 헤치고 농장총각이 불쑥 나타났다.

《아직두 안갔어요?》

근식은 일어섰다. 가자, 서른해전의 그 걸음으  
로, 서른해전의 그 마음으로!...

## 처음 보았던 날

신진순

생애에서 특기되어야 할 날을 나는 모르고 지나보냈었다.

몹시 젊으시고 소탈하신분, 후리후리하신 체격에 경쾌하신 몸가지심, 내면의 그 무슨 행복한 빛깔이 내비치는듯싶은 그리하신분이시였다. 그분이 바로 **《김일성동지》**, 왜놈들 폭압아래 신음하는 조선인민들속에 **《김일성장군님》**으로 전해지시던 전설적영웅이시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 **《전설》**은 수난받는 인민들, 옳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칠칠암야의 새별이었으며 희망의 등대였다.

30 년대도 저물어가던 어느해 몹시도 추운 겨울이었다. 일제경찰 감방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나에게 통방이 왔다. 그 사람은 나를 고무하고나서 이런 말을 하였다. **《이번에 무사히 나가면 만주로 건너가지 않겠는가. 거기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왜놈들을 죽치고계신다.》**라고.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을 무엇에 비길것이라!

다음날 나는 다른데로 옮기여져서 그가 누군지,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없었지만 **《왜놈들을 죽치고계신 김일성동지》**의 영상은 나의 심장깊이 등불로 켜져 이때로부터 꺼진 일이 없다.

나는 그분을 처음 전차칸에서 보았다.

봄비는 전차에 함께 올라서서 비좁은 승강대에 함께 끼워 서계신 그분, 몹시도 젊으시고 명랑하시여 우리가 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달리는 전차안에서도 허물없이 조언도 주시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이시며 그 압담하던 시절에 량심의 기둥이시던 **《김일성동지》**, 검은 밤의 혜성과도 같으시던 바로 그분이시라고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해방된 조국에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무엇인가 하려는 열정과 선의로 불타고있던 그때, 해외에서 국내지하에서 **《혁명가》**라는 사람들이 많이도 모여드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니 나는 어

느ť **《김일성장군》**이란 자신의 환상이었던듯이 느끼게 되어가고있었다.

그 젊으신분에 대하여 무엇인가 각별한 느낌을 품은채 우리는 먼저 전차에서 내렸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김일성장군님》**이 바로 그분인줄 알았더라면 그저 보통 작별인사나 드리고 아마도 것처럼 담담히 전차에서 내려설수 없었을것이다.

그분께서는 온 나라가 자신께서 가져다주신 해방의 기쁨속에 들끓고있던 나날들에 그러한 인민들속에 섞이시여 이처럼 함께 계셨다.

그러던 어느날 오후였다. 영광스럽게도 나는 그분께서 담화를 하시는 사람들중의 한 성원으로 되었다.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기술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여 모두다 건국사업에 펼쳐나서야 하겠습니까.》**

근 40 년이 지나간 오늘에도 내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때 하신 말씀이다.

나는 깜짝 놀라는 심정으로 그분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러보았다. 그분의 말씀의 뜻을 나는 대뜸 알아들었던것이다. 어떻게 달리 될수 있겠는가!

해방이 되니 조선사람들끼리 갈래판이 많기도 하였다. 민족주의자들은 그만두고라도 같은 공산주의자로 알고있던 사람들이 서로 비방 공격하면서 론쟁 또 론쟁, 서울에서도 평양에서도 연설의 범람, 입심좋은 웅변가들이 많기도 하였다.

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를 알수가 없어서 나는 서울서도 평양서도 그 많은 연설들을 열성적으로 듣고다녔었다. 그러나 어느 리론이 옳고 어느것이 그른지 누가 몸쓸 사이비혁명가고 누가 진짜인지 알수가 없게 되어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던 나로서도 은근히 걱정이 앞서군하던 때였다.

그분의 말씀은 명철한 결론이었다. 무엇을 어

떻게 해야 하는가? 폐허위에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 어떻게 세우는가? 온 인민이 제게 있는 모든것을 바쳐 헌신해야 하는것이다.

식민지 노예살이에 시달린 모든 조선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것을 다 바쳐 3천리강토위에 인민의 새 나라를 세워 번영으로 이끄는것이다.

그분의 말씀에는 쓸데없는 과장도 수식도 없었었다. 쉬운 말로, 단도직입적으로, 간명하게 사물의 본질을 짚어 말씀하시는 독특하신 화술,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조국을 광복하고 도탄에서 인민을 구원해내시고저 10 대의 어린신 시절부터 일제와 맞서 싸워오신 준엄한 투쟁로정에서 찾아내신 진리, 주체철학이었던것이다.

그때 나는 그런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대뜸 그 말씀이 포괄하는 위대한 뜻을 알아들었고 그 간명한 말씀의 진가가 두뇌와 심장을 동시에 섬광으로 비쳐주는듯 느꼈다.

동시에 그 수많은 변세철학과도 같이 다변스런 연설들이 나의 머리속에서 봄눈 녹아버리듯 사라지고말았다.

저분이 누구신가.

그분께서 등지고 앉으신 유리창으로 석양이 비껴 후광을 쓰신듯, 힘과 예지와 젊으심이 한데 엉켜 빛발치는 저분이 누구신가.

석십 하신 음성, 반석같은 신념이 풍기는 저분이 누구신가.

그분이야말로 내가 어렸을 때 철창속에서 들은 성함 《김일성동지》, 전설의 영웅 《김일성장군님》, 오매에도 그리던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은 세계가 따라배우며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우리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출발지점을 그 옛날에 그렇게도 간명한 말씀으로 명백히 짚어 주신 그분,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오늘

그처럼 공명정대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하신 수령님을 모신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 회의장에 앉아 보고의 마디마디에 온 넋을 집중하며 나는 먼 그날의 잊지

못할 그 존귀하신 영상, 노을비낀 강가에 앉으시였던 그 영상을 어제런듯 회상하였다. 고려민

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그것은 조국통일위업의 확고한 전망을 제시하신 력사의 새 페이지의 시작인것이다.

그 현명한 방안을 따라 조국은 머지않아 통일될것이며 3천리 온 강토에 행복의 노래 울려퍼질 날도 멀지 않을것이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령도따라 신들메를 고쳐매고 나도 수령님의 전사된 본분을 다하리라 펼쳐 일어나 위대하신 수령님의 영광에 찬 탄생 70 뽕을 맞이한다.

력사에 한번밖에 없는 민족의 대경사의 날, 4월의 명절은 전체 조선인민의 명절만이 아니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먼 나라 인민들이 모두 가슴 벅차하는 명절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쇠물을 뽑고 이날을 맞으며 농민들은 살진 밭이랑을 갈아엎는다. 아이들은 춤과 노래를 마련하고 외국의 벗들은 아름다운 시를 지어보낸다.

이 모든것이 이날, 4 월의 명절을 위해 있는것이다.

이 땅위에 생을 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성실한 노력과 지혜와 땀으로 축원의 꽃을 피워가고 있다. 이 꽃들이 바로 4 월의 그날에 드릴 충성의 꽃바구니를 이루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고 우러러따르는 마음들이 향기와 색깔을 이루는것이다. 때문에 이 꽃바구니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귀중하다.

우리 인민이 이렇듯 자기의 충성을 다 바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에 있는것이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만수무강은 우리 조국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이며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이다.

하기에 나는 그분을 처음 뵈었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분의 만년장수를 나의 평생의 소원으로 바란다. 그것이 나에게 최대의 행복이며 영광이며 기쁨인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 한생을 바쳐 일할것을 굳게 결의하는바이다.

# 사랑하노라 나의 수도여

김시권

문을 열면  
맑은 대동강의 물결  
이 가슴에 옥구슬로 흘러들고  
향기로운 꽃바람  
부드러이 내 마음의 가락을 울리는  
이 기쁨

밝은 웃음을  
저 해빛 눈부신 거리  
달리는 전차들우에도 실어보내며  
저 은빛창문들 미소짓는  
푸르른 수도의 하늘가에  
환희의 나래 새무리처럼 날리며...

예가 아니던가  
포화속 불타는 전호터에서  
가장 가까이 가슴에 안았던곳은  
마지막 돌격의 언덕우에  
공화국기발을 날리며  
오늘의 저 거리의 환희를  
길이 믿어 웃음 보내지 않았던가

수령님 우러러  
승리의 그날  
꽃피는 이 거리를 그리며  
청춘을 바쳐온 이 전사에게  
수도여 너는 행복의 자리를 내여주어  
벌써 몇십년-

사랑하노라  
네 청춘의 심장을 받아준 어머니도시  
수령님 해빛아래 일어난  
아름다운 락원의 거리  
저 활기찬 걸음, 그 밝은 얼굴들

너의 품속에 안긴것보다  
더 큰 생의 환희 나는 몰라라  
어제날 폐허우에 일떠서는 거리를 거닐며  
오늘의 화려한 모습으로 안겨지던  
그 모든것  
아 가슴에 안고  
자랑높이 살게 해주었거니

깊어가는 밤  
꿈결에도 안아보며 거니노라  
마음속에 떠난적 없는  
저 불빛 찬란한 만수대언덕  
송이송이 목란꽃 반겨주는  
그 계단을 오르며  
저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창가의 불빛을 우러르며...

푸른 공원에 뿔어올리는 분수들도  
나에겐 기쁨을 주는 맥박이며 숨결  
화려한 지하철도의 대리석원주들도  
나에겐 마음의 기둥이며 힘  
날마다 일떠서는 거리와 거리  
창공에 높이 솟아오르는 수도의 기상은  
나의 영원한 영광이 아닌가

내 싸움의 나날  
조국에 바친 청춘시절의 몇해보다  
비길수 없는  
끝모를 행복의 해와 해를  
나에게 펼쳐주는 이 거리

바쳐온 삶의 나날보다  
바쳐갈 삶의 나날을  
더 값높게 치르어갈 때  
아, 어버이수령님 마련해주신  
이 거리를 땀땀이 거닐수 있으리

수도여 이 아들은  
네가 내여준 행복의 자리에서  
시들줄 모르는 청춘으로 꽃피고  
내 심장 숨결높이 고동치거니  
너를 위해 다시 피어난 이 청춘  
그 몇번이 있어도  
가장 즐거이 웃으며 바치리라

문을 열면  
흘러들듯 맑은 대동강물우에  
옥구슬같은 내 사랑을  
부드러운 꽃바람에 실어보내며  
수도여 더 한껏 껴안고싶구나  
수도여 더 한껏 아름다와져라

## 해불이 솟구치는 탑을 바라보며

장윤길

봄,

조선의 4 월

새들이 노래하고 물결이 춤춘다. 꽃이 천지를 이루고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있다.

봄을 담아내고 유유히 흘러흐르는 대동강, 아름다운 이 강기슭에는 장엄하고 웅장한 탑이 솟아 빛난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위인들이나 력사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사변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하여 탑을 세우고 그를 후세에 전하여왔다.

세상에는 이렇게 세워진 탑이 그 얼마나 많은가.

하나 여기 해불이 떠오르는 이 탑처럼 위대한 탑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인민의 마음을 고이고 인류의 마음을 다듬어세운 탑, 《주체》라는 두 금문자를 탑신에 새겨안고 지구의 한복판에 솟아 누리의 한끝까지 빛을 뿌리는 탑. 아, 그래서 시인은 심장의 흥분을 터치고 작곡가는 음부를 고르고 골라 선율을 뽑는 것인가. 사람마다 승엄한 감정에 젖어 부푼 가슴 안고 걱정을 금치 못한다. 하늘땅 가득히 찬란한 빛을 뿌리며 훨훨 타는 저 해불, 백두에서 떠오른 저 해불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조선의 새 력사를 보게 되었고 혁명도 건설도 본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인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참된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 탑은 그것을 말하고있다.

우주라는 하나의 큰 난바다우에는 등불도 없이 간신히 떠있는 하나의 작은 배가 있었다. 행방을 찾지 못해 기우뚱거리는 배를 향하여 사나운 파도가 사정없이 들이닥치고있었다.

돛대는 부러져 닻을 내린 배,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다.

암초에 부딪치는가, 아니면 광란하는 풍랑속에 없어지는가, 경각은 닥쳐왔는데 해불이 올랐다. 백두산에 해불이 솟았다. 동가슴치며 통탄하는 인민의 한숨소리 가시며 찡찡 눈뚫인 강관을 녹이며 승냥이 울음소리 살벌한 땅에서 운명을 뜰기우고있던 동포들의 가슴에 봄빛을 안기며 해불이 타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

**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보아라.

그날에 밝힌 혁명의 진리, 새 시대의 인간철학을 다시다시 가슴속에 되새기는것인가, 아프리카의 저 손님들은 비문의 글밭앞에서 떠날줄 모르고 그날에 높이 든 해불아래 도도히 굽이쳐온 우리 인민의 기상, 저 해불높이 당을 따라 드림없이 달려갈 우리 인민의 역센 기개에 눈시울 젖어들어서인가 라틴아메리카의 이 손님들은 당마크를 추켜든 로동자, 농민, 지식인의 3 인군상앞에서 움직일줄 모르는구나.

위용에 찬 주체공업을 자랑하는 군상을 보아도 좋다. 만풍년의 기쁨을 안은 농민의 군상을 보아도 좋다.

그 누가 여기서 바늘 한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어제날 조선의 공업이라 하며 땅에 대한 속망을 안고 주린 창자 부여잡은채 허덕이던 어제날 조선의 농민들이라 하겠는가.

그러기에 유럽의 한 벗은 이렇게 말한다.

-주체의 공업, 주체의 농업을 가진 조선이 부럽습니다. 주체의 해불높이 기적을 창조하고 변혁을 이룩한 조선의 모범에서 세계는 배워야 합니다-라고.

아, 얼마나 영광이냐.

쫓기우고 뜯기우며 기도 퍼지 못하고 살던 우리 인민이, 이름조차 없이 지도에서 버림받던 조선이 세계무대우에 당당히 올라섰으니...

정녕 그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아도 공지에 차있고 감격에 넘쳐있다.

주체예술의 축도인양 솟아있는 군상앞에서 청춘남녀들은 열정에 끓어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작품들의 세계에 잠기기도 하고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부르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세계에 젖어들기도 하며...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에서 사는 청소년들의 창창한 모습을 형상한 군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 또한 그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있는가.

행복한 인민의 모습, 무병장수를 노래하는 군상앞에서 우리 마을 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린다.

80 고령에도 이 푸른 하늘아래에서 걱정없이 사는 즐거움에서인가. 어제날 약 한첩 없이 않는



몸으로 가대기를 끝다가 발머리에서 숨겼다는  
그 만아들 생각에서인가.

참으로 세상은 변했다.

모든것이 꿈만 같다.

이 좋은 세상이 펼쳐진 내 조국은 철벽의 요새  
로 다져져있으니 일당백초병들, 로농적위대원들  
과 붉은청년근위대의 용맹한 저 군상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마음 역시 벽차기만 하다.

탑의 주변 그 어디에나 사람들이 붐비고 즐기  
찬 물결로 굽이치는듯하다.

탑의 양옆 정각에도 행복에 겨워 웃음꽃피우는  
사람들이고 하늘높이 분수를 뿜는 대동강 한복  
판에도 꽃배를 몰아가는 사람들이다.

참으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그대로 여기에 다  
모인듯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체의 불씨를 안겨주신 위대  
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주  
체의 빛발아래 전변된 오늘에 대한 긍지, 향도의  
손길따라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로 줄달음쳐  
갈 열망을 심장속에 불태우고있다.

진정 그 마음들이 탑을 세우고 해불을 올렸나  
니.

사람들이여! 우리 잊지 말자!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살아  
가는 우리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의 의리가 스며있  
고 여기에 주체의 혁명위업, 백두에서 시작된 수  
령님의 혁명위업을 주체의 해불높이 만대에 이어  
나가기려는 우리 당중앙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나  
니...

하기에 대동강물소리 정다운 이 기슭에 착공의  
첫삽을 박을 때 인민들은 백두산천지의 푸른 물  
을 길어오고 만경대의 맑은 물을 떠오고 오산덕  
기슭 정갈한 샘물을 가져다 몰탈을 이겼으며 천  
년 바다물이 씻어낸 리원의 자갈과 선봉의 조약  
돌 맥전나무의 차돌과 남조선인민들이 보내온 청  
돌을 가지고 기초를 다졌다.

사람들이여,

여기 하나의 대리석, 꽃피는 한대의 나무도 무  
심히 보지 말자.

바라보는 저 대리석이 아니면 딛고선 그 돌이  
어느 한나라 수반이 자기 나라에 없다는 대리석  
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보내왔다는 그것이 아  
닌지, 햇빛에 웃는 저 꽃이, 싱싱한 푸른 잎 설레  
는 저 나무가 뿌르푸갈사람들이 심었다는 그 꽃  
그 나무가 아닌지 어이 알랴.

참으로 솟구치는 주체의 해불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의 험한 길을 걸어왔고 천  
만리의 언덕길을 넘으며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  
지 달려갈 인민이기에 여기 력사의 기슭 탑건설  
장에 것처럼 아름다운 전설을 남겼다.

눈바람에 우는 백두밀림을 헤치고 거칠은 이국  
의 광야를 주름잡으며 일제를 친 항일투사들이  
충성의 구슬땀을 이 건설장에 바치고있을 때 한  
귀국동포는 조국의 품에 안기는 그날부터 짐도  
풀어 놓기전에 건설장에 달려나왔다. 실로 웅장  
한 탑신이 그토록 짧은 시일에 솟았다는 기적속  
에는 과수농장과 백화점일군들의 지성어린 마음  
도 깃들어 있으며 조국의 한끝 외진 등대섬마을  
의 아이들과 천대와 학대 속에서 허리굽었던 한  
할머니 손길도 뜨겁게 닿아있는것이다.

이 땅에 나서 살고 이 시대에 머리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마음을 바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몸은 이역땅에 있어도 마음만은 여기 건설장에  
있다며 온갖 지성을 다 보내온 이국에 사는 상  
공인의 불타는 녀, 비행기에서 내리자바람으로  
이 건설장에 달려와 뜻깊은 로동일을 바친 말가  
슈, 파키스탄의 벳들...

어찌 그러지 않으랴.

헤아릴길 없는 인생의 탁류속에서 허덕이던 그  
들,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속에서 주체의 사상  
과 리론, 방법을 받아안고 시대의 선각자로 사는  
그들, 주체사상을 혁명투쟁의 영원한 해불로 휘  
황한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로 삼고 역세계  
나아가는 주체사상의 신봉자들이기에 여기 불꽃  
튀는 탑건설장에 흘러가는 순간순간을 값높이 바  
쳤던것이다.

세상에 탑이 하 많아도 이처럼 온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받들려 솟아난 위대  
한 탑은 없다.

저 위대한 당이 솟아 빛나는 내 조국, 곡절 많  
았던 어제도 행복한 오늘도 주체의 해불높이, 창  
창한 미래가 꽃피는 래일에도 주체의 해불높이  
달려갈 우리-

그렇다!

머리우엔 태양이 빛나고 향도성이 찬란하거니  
향로엔 언제나 주체의 해불이 등대로 밝혀주리  
라.

아, 하기에 탑이여! 너는 공산주의기슭으로 드  
림없이 달려가는 시대의 진군길에 힘차게 펼쳐나  
선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솟아있으리라.

솟아 끝없이 밝을 빛을 뿌리리라.

# 행복에 대한 답시

윤기찬

왁새무리 훨훨  
논귀에 옮겨앉는 이 가을날  
등판길을 내리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못쓸 땅이라 미루던 미루둥  
오늘은 쌀남아 쌀미루 되었다네

나도 따라 불러보는  
이 가슴속에 실려오는가  
내 어릴적 생각-  
...저런 나이 때  
오솔길 들판에서 길짱구 뜯으며  
노래처럼 불렀지  
수수밥 나오라  
조밥 나오라.

밥이란  
냄새도 없는줄 알면서도  
가난이 물려준  
푸념놀인줄 알면서도  
부르고 또 불렀네  
고사리 손이 닳도록 쓸어보며...

해칠녁  
넋없는 풀놀이소리에  
나는 몰랐네  
먼길의 길손들이런듯  
조용히 등뒤에서  
내 노래를 듣고있는줄

-애야  
흰쌀밥 나오라는 소린 왜 안하느냐?!  
문득 가슴들먹이며  
그 물음이 무엇일가  
나는 알수 없었네  
-아저씨  
흰쌀밥이 뭐나요?

내 어이 알수 있었으랴

칠없는 대답에  
가슴아파하신분이  
우리의 장군님이신줄을  
해방을 맞는 미루둥 아이들이  
흰쌀밥을 모르고 자란다고 심려하신것을

그날의  
어버이장군님 옷자락엔  
이슬에 젖고  
흙물에 젖어도  
걸음걸음 해불을 드시고  
레성강 언덕길을 걸으셨으니  
그 걸음걸음  
저수지 물길에 흘러갔어라

사랑의 그 자욱 따라  
생명수 흘러오고  
은정의 그 길을 따라  
금나락 펼쳐진 땅이여  
내 어린시절의 추억을 불러내는  
황금의 벼바다여

...수수밥 나오라  
조밥 나오라  
서러워지도록 부르며  
기와집 쓰고  
비단옷 입고  
흰쌀밥에 고기국을 그리더니  
오늘은 그모두를 다 안고 사는  
우리의 행복이여

아 해칠녁  
저 등판을 내리는  
내 어릴적또래의 아이들이  
너희들은  
수수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흰쌀밥밖에 모르니...

# 빛나는 삶은

강현세

살아 한생에 사람은  
그 몇번이나 듣는것이라  
자기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때에  
나는 들었네  
쿵쿵 뛰는 심장소리를

나 하나만을 위함이라면  
어찌 들을수 있었으랴  
고작해야 첫사랑에 울렁거리던  
야릇한 그 소리뿐이었으리

감격과 흥분으로 보낸 세월  
위대한 변혁의 시대에  
내 듣고 들은 그 소리  
힘찬 성장의 노래가 아니었던가

내 나이 갓스물  
못잊을 개선광장에서  
어버이수령님을 처음 뵈온 날  
터질듯 뛴하던 심장소리  
그것은 나의 생명이  
새 조선에 태어난 웨침이었다

적탄이 우박치는 돌격선에서  
내 중대장의 구령을 기다리며  
태물은 땅에 새긴 심장소리  
그것은 조국이 무엇인지 깨달은  
전사의 피타는 선언이었다

길으로는 태연한채 하여도  
심장의 고동소리만은 숨길수 없어  
준엄한 투쟁의 년대들에

가슴에 새긴 아름다운 추억들이여!  
어머니당이 나를 불러  
화선입당의 영예 안겨준 날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찾아주신 날에도  
한 일도 없는 이 가슴에  
국가수훈의 영예 빛나던 날에도  
내 얼굴 붉히며 가슴뛰는 소리 들었거니

량심의 거울에 비친 이 마음이  
삶의 보람을 안고 들은 목소리여!  
내 잠시라도 너를 저버렸다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 된지 오래리라

아, 위대한 령도를 받은 인민만이  
가슴 벅차게 듣는 소리여!  
참된 생명이 꽃피는 모든 소리를  
나는 가슴에 새기며 살고싶다

적의 화구까지는 열다섯발자국  
그 짧은 거리를 극복하던  
그날의 그 맹세 뜨거이  
그날의 그 자세 변함이 없이

용감성이란 원썩앞에서  
죽음을 멀리 차굴린 순간이 아니더냐  
헌신성이란 나를 바치며  
조국이 기억하는 내 모습이 아니더냐

살아 한생에 제 심장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전사  
그보다 빛나는 삶을 나는 모른다  
오, 당의 품에 안겨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고동치기 시작한 나의 심장이여!

## 개신문

배헌평

봄이 왔다. 뜻깊은 4 월의 봄...

산과 들, 거리와 마을에 파사로운 봄빛이 흐른다.

한껏 부풀었던 꽃망울들이 터져 복숭아꽃, 살구꽃 활짝 핀 모란봉기슭은 새로 일떠선 개신문을 찾는 사람들을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이게 한다.

얼마나 감회깊은 추억을 불러내는 개신문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인민들앞에 개선의 첫인사를 나누시던 그날을 돌이켜보는 사람들의 가슴 가슴엔 오직 한평생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진 풍상을 다 헤쳐오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시어 20 성상 백두의 험준한 산발들을 넘나드시며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해방의 봄을 안아오신 만고의 영웅, 민족의 태양을 맞이하던 그 감격이 개신문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다시 피여오른다.

한없는 긍지와 영광으로 벅차오르는가슴을 달래이며 경건한 마음으로 개신문을 찾은 머리 희숙한 장령들의 눈금에도 뜨거운것이 맺혀있고 어린 손녀의 손목에 이끌려 맨션참오도 달려왔다는 로인의 주름엇킨 볼에도 후더운 눈물이 굴러내린다.

40 년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으나 영원히 잊을수 없는 그날의 감격이 가슴가슴에 솟구쳐오른다.

《평양의 력사가 깊어 4 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 만이라 하나니 일찌기 이와 같이도 사람이 모인 날이 있었던가?

...특히 대회를 력사적으로 뜻깊게 한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 **김일성** 장군께서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내신것이다. ...조선인민이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김일성** 장군께서 장내에 나오시자 열광적 환호는 들끓었으며 모든 군중이 기쁨의 감동으로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이것은 《금수강산을 진감시키는 40 만의 환호성》이란 제목으로 당시의 신문 《평양민보》가

전하였던 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드디어 조국개선을 알리던 력사의 그날 평양시는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었고 사람들은 이른아침부터 모란봉기슭으로 모여들었다.

장군님께서 연단에 나오시자 10 만군중이 물결처럼 설레이고 경탄과 감동의 파도우에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일성** 장군 만세!》

사람들은 눈물에 젖어 목이 쉬도록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흔들어보이시며 가을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환하신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고 답례를 보내시었다.

전설적영웅으로서 그 이름이 수천만인민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었고 온 겨레가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여오던 장군님, 한번 노려보시면 원썬들이 삼대처럼 쓰러지고 미소어린 안광으로 바라보시면 마른나무에도 꽃이 피어난다는 전설 그대로의 비범한 술기를 지니신 **김일성** 장군님.

그이께서는 또 얼마나 젊으신가!

장군님의 젊음을 뜻밖에 우리르게 되는 인민들의 경탄은 민족의 자랑과 한없는 긍지로 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장군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향하여 답례를 보내시며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었다.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습니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다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날의 이 기쁨, 이 감격은 이 나라 온 겨레의 기쁨이며 감격이었다.

항일의 불길속에 끄슬린 군복을 벗으실 사이  
없이 하루와 같이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면서 해  
방후 우리 혁명앞에 나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우리 나  
라의 구체적실정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명확한 길을 밝혀주신 수령님.

조국에 개선하신후 저택도 따로 없이 동지들과  
침식을 같이하시면서 소문없는 가운데 새 조국  
건설을 위한 거창한 사업에만 전심하시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신 뒤에야 자신의 조국개  
선을 세상이 알리신 어버이수령님.

항일의 혈전속에서도 언제나 잊지 못하시던 고향,  
《사향가》의 노래속에 꿈결에도 그립던 만경  
대엔 기다리시는 조부모님이 계시건만 전체 인민  
앞에 개선의 첫인사를 하시고서야 그날저녁으로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그 모든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집착되어있는듯  
개선문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못잇을 추억들을 불  
러일으키며 웅장하게 솟아있다.

광막한 백두의 밀림속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동  
지를 묶어세우시며 인류의 력사에 그 류례가 없  
는 가장 간고한 혁명의 길을 몸소 진두에서 헤쳐  
오신 우리 수령님, 그 사상이 위대하고 그 신념  
이 드팀없기에 만년장설을 녹이며 걸으시는 그  
자욱을 열혈청년들이 받들어왔고 그 품이 은혜롭  
고 그 심장이 태양처럼 뜨겁기에 각이한 운명들  
이 생사를 의탁하고 수천만리 먼길을 따라왔으며  
그 길에서 인간의 참된 존엄과 삶의 보람을 찾  
게 되었다.

조선발로 혁명의 길에 나섰던 항일의 로투사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 보람  
가사

차게 싸워온 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그이의  
전사된 공지로 가슴 부풀고 식민지식인의 모멸  
은 안고 갈길을 찾아 헤매이던 지식인들도 그 사  
랑 그 품에 안겨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걸어온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돌이켜보며 뜨기운 걱정  
에 휩싸여 개선문을 우러르고있다.

그렇다. 여기 모인 술한 사람들이 모두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왔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헤매이다가 참된 삶  
의 길을 찾지 못하고 운명의 나락에 굴러떨어졌  
을 생명인들 그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지만 모두 위대한 은인을 만나 넓고 희망찬  
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쓰러지면 안아일으켜주  
시고 뒤떨어지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따사로운  
손길이 지켜주기에 험만 령이 막아서면 그 손길  
잡고 넘어왔고 폭풍이 몰아오면 그 품에 의지하  
여 곳곳이 걸어왔다. 하여 우리모두는 장군님을  
모시고 해방의 개선문으로 들어설수 있었다.

백두광야에 타오른 혁명의 불길을 주체의 화불  
로 추켜드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걸어  
오신 불멸의 로정우에 인간은 운명의 주인으로,  
인민은 세계의 주인으로 일어섰고 어버이수령님  
께서 오늘도 씩없이 걸으시는 사랑의 길우에 행  
복한 락원이 꽃피고 누리에 붉은 노을이 비껴 흐  
른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수천수만리를 걸어왔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수천만리를 걸어갈 조선의  
신념, 조선의 의지는 드팀이 없으며 만경대의  
사립문을 떠난 우리 혁명은 해방의 개선문을 지  
나 승전고 높이 공산주의대문에 들어서게 될것이  
다.

## 인민들은 길이 모시리

김재화

아침노을 펼치시며 주신 그 사랑  
은하수가 기울도록 베푸신 그 은정  
한평생을 하루같이 보살피시며  
수령님은 우리 행복 안겨주셨네

한줄기 해빛에도 바람결에도  
은혜로운 그 사랑은 넘쳐흐르네

천리벌의 금나락도 동해물결도  
그 은덕을 노래하며 설레이여라

천년을 우러르며 만년을 받들  
이 세상의 오직 한분 우리 수령님  
충성의 한마음 대를 이으며  
인민들은 길이길이 모시여가리



# 산 넘고 바다 건너 이 노래 들려온다

김철

## 1

산 넘고 바다 건너 이 노래 들려온다  
대륙과 대양 건너 이 노래 들려온다  
열대의 수림과 눈덮인 산맥들과  
국경수비대들의 망루들을 지나서  
날아온다 이 노래는  
간절한 부탁 잊지 못할 언약같이  
열렬하고 깨끗한 고백과도 같이

-어머니 말씀해줘요

그분은 누구시나요

내 잠들적마다

어머니의 노래에 나오시는분

내 잠 깰 때에도

어머니의 노래에 나오시는분

그래선지 밤마다 꿈에 보이는

그분은 누구시나요 네 어머니

-달님이시란다

별님이시란다

멀고 먼 동쪽 아침이 나라에

태양으로 솟아오르신분이시란다

그이 태어나시자 우리가 밝아지고

어둡고 지루하던 밤이 끝장났단다

그이는 다섯살 어리신 나이에

하늘의 무지개를 휘여잡으시었고

열다섯살 젊으나젊으신 나이에

인류를 구원하실 화불을 드시었던단다

그이의 한결음은 천리를 주름잡고

순간의 사색은 세기를 깨웁는다

그이의 품에서는 대양도 잠들고

천만산악이 소리쳐 노래한다

그이는 풀과 나무 온갖 생명에

파사로운 온기와 빛을 주시는분

그이는 메마른 사막도 옥토로 만드시고

진펄과 덩불에도 길을 내어주시는분

앓아누운 사람에겐 약을 주시고

외로운 길손에겐 벗이 되어주시는분

그늘진 가슴에는 꽃을 피워주시고

눈물젖은 눈동자엔 푸른 하늘을 열어주시는분

아이들은 그이를 아버지라 따르고

어른들은 그이를 동지라 부른다

인민은 그이를 수령으로 받들고

력사는 그이를 구성으로 모셨나니

그이의 사랑은 인간

그이의 믿음은 인민

그이의 사상은 주체

그이의 삶의 뜻은 투쟁 또 전진

어서 크거라

어서 커서 너도야 길을 떠나라

내 너의 앞길을 축복하나니

또는 별을 따라서 가고 또 가고

솟든 해를 우러러 가고 또 가면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

그지없이 아름다운 기슭에 닿으리라

밤마다 꿈에 보던 바로 그이를

꿈아닌 생시에 뵈게 되리라

## 2

산 넘고 바다 건너 이 노래 들려온다

대륙과 대양 건너 이 노래 들려온다

열대의 수림과 눈덮인 산맥들과

국경수비대들의 망루들을 지나서

날아온다 이 노래는

간절한 부탁 잊지 못할 언약같이

한생에 한번뿐인 맹세와도 같이

-말씀 계속하시오 로인장

파도 사납고 바람은 세찬데

로인께선 그 무슨 사연이 있어

멀고도 험한 길에 떠나셨나요?

-인생이란 이 배와 같아서  
정신의 라침판 없이는  
어디로 갈지 바이 알수 없는 법  
그래서 아마 옛날 사람들도  
크리스도를 믿고 석가모니를 믿고  
또 마흐메트를 믿었던게 아닐까

그러나 세기를 거듭하며 사람들이 믿어온  
그 모든 신앙과 교리들은  
배부르고 한가하고 권세있는 무리들이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우롱하던  
때문은 노리게  
결만 고운 독버섯에 불과하였지

아, 내 머리가 세도록 사귀여온  
인류정신문화의 거장들은 얼마였던가  
고대의 소박한 유물론철학으로부터  
우주정복의 길에 나선  
현대의 과학에 이르기까지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은  
인간지성의 광실이 하나나 있었던가

그러나 그 누구 그 무엇도  
혼돈과 위기로 충만된 오늘의 세계를  
환히 꿰뚫어볼 참된 진리-  
만능의 과학만은 깨우쳐주지 못했으니  
인류는 오늘의 운명을 무엇에 의탁하며  
후손들의 태일을 무엇으로 담보할것인가

일찌기 톨스또이백작은  
맑스와 레닌을 리해못한탓으로  
지평이 하나에 의지하여 집을 떠났지만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해서  
마음의 평온과 안식을 잃은채  
대륙에서 대륙으로 떠돌아다녔는가

이제는 영예를 바랄 나이가 아니고  
저술과 탐구에 몰두할 정열도 잃은 몸  
이제는 서재의 문을 안으로 잠그고  
죽음의 신이나 찾아오길 기다릴밖에...  
헌데 기적이란 참말로 이런것인가  
향방없이 표류하던 나의 배길에도

휘황한 등대불이 비쳐왔단말일세

자, 보시오 선상!  
나는 이 집을 찾아가오  
세계의 앞날을 환하게 비치며  
주체의 태양 솟아오른 만경대!  
보시오 이 불후의 로작을  
나는 이 책을 쓰신  
사상의 천재를 뵈오려 가오!

그럼소 나는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순례자가 아니요  
나는 80이 다 된 오늘에야 비로소  
참으로 위대한 스승을 알게 되여  
그이 계신 나라로  
조선으로 찾아가는 나 어린 학생이요

아 조선아!  
만국의 회의장에서 배를 갈라 절규해도  
그 누구 돌아보는지 없이  
동방일각에 꺼져가던 등불아  
너 언제부터  
그리도 높이 그리도 빛나게  
세계의 하늘가에 솟아올랐더냐

알프스와 히말라야산들도  
쳐다보아야 하는 그 초가지붕을  
흰모래 정갈한 뜨락에 조용히 숙이고  
짙신 두켄레를 보짐우에 얹으신  
너의 위대한 아들이  
바람찬 새벽길에 나서시던 사립문을  
크고 영원한 진리의 성문으로  
인류앞에 열어놓고  
지구의 중심에 네가 있었구나  
조선아!

### 3

-조선아!  
이 소리  
산 넘어 들려온다  
바다 건너 들려온다

-조선아! 조선아!  
이 소리

서쪽에서도 들려오고  
동쪽에서도 들려온다

이 소리에  
갑판들이 설레고  
항구들이 넘쳐난다  
비행장이 격동하고  
광장들이 환호한다

-여러분!  
나는 조선을 보고 왔소  
**김일성** 동지  
그이를 뵈고 왔소!  
젊은 흑인투사는  
술렁이는 군중우에 몸을 우뚝 솟구었다

-조선!  
-**김일성!**  
-주체!  
-**김일성!**

-말하시오!  
-어서 시작하시오!  
-그이를 만나뵈온 이야기  
어서 시작하시오!

젊은 흑인투사는  
이윽도록 군중을 휘돌러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그이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분이 아니시였소

-아니 그 무슨 말이요?  
-축지법을 쓰신분이  
거인이 아니시더란말이요?  
-천리마에 날개까지 달아주신분이  
신묘한 손을 가지신분이 아니시더란말이요?

-그렇소 그이는  
신이 아니시였소  
그이는 인간이시였소  
소박하시면서도 비범하시고  
인자하시면서도 결출하신  
위대한 인간이시였소 그이는...

아 그이와의 상봉  
그것은 참으로  
감격의 절정 영광의 상상봉이었소  
나의 이 뺨이-  
아프리카의 밤처럼 검고  
나의 이 뺨이  
흰 여름옷을 가볍게 입으신  
그이의 가슴에 놓여있었소  
이 뺨으로  
세기의 러멍을 부르는 천둥우뢰소리란듯  
그이의 심장에서 쿵쿵 울리는  
그 크낙한 음향이 느껴지였소

오 나의 이 손-  
최고랑에 패인 자리 아직도 뚜렷한  
나의 이 손이  
그이의 손에 쥐여져있었소  
한없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 손이  
백두의 눈벌판에  
일제 100만대군을 베어내치시고  
1211고지 류황불속에  
아메리카합중국을 뗐다뜯지신  
강철의 손이란것이 믿어지질 않았소

나의 온몸 나의 온 심혼이  
그이와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  
내 귀에 들려온 그이의 음성-  
그것은 빅토리아호수의 속삭임이었던가  
투켈라폭포의 명동소리였던가  
통역없이도 알아들을수 있는 그 음성으로  
그이께서는 우리의 어제날을 가슴아파하시였고  
우리의 오늘을 걱정해주시었소  
그이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알기쉽게 깨우쳐주시었소

나는 조선의 형제들이  
어떻게 영웅적인 인민으로 자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떻게 강대한 성새로 되였는가를 알았소  
나는 주체의 당, 조선로동당이 지닌  
그 무적의 힘  
그 높은 권위의 근원을 보았소

그렇소

**김일성** 동지의 당

**김일성** 동지께서 세우신 나라

**김일성** 동지께서 이끄시는 인민

이 당 이 나라 이 인민은

아프리카의 미래이며 세계의 앞날

인류의 희망이며 그 희망의 등대

나는 그 모든것을 안고 왔소

나는 그이를 모시고 왔소!

-아니 그게 참말이요?!

-그분을 어디에 모시고 왔단말이요?!

-바로 여기... 나의 가슴에

이 심장에 모셔진분이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시오!

#### 4

아, 이 노래 어찌

아프리카의 한끝에서만 울리는것이라

이 노래

멀고먼 남아메리카의 광산마을에서도

북유럽의 끝없는 백야를 뚫고가는

썰매 행렬에서도

그리고 저기

달빛아래 부푸는 돛처럼

동해의 해돋이를 그려 잠 못 이루는

지중해 어부들의 움막에서도 들려오고

이 노래

야자나무 그늘아래 정히 펼치는

하얀 공책에 또박또박 씌여질 때

비서들과 호위장관들에게 둘러싸인

집무실들과 궁전들에서

친서와 헌시의 글줄이 되어

정중히 이어진다

-**김일성** 동지!

그이께 감사를!

-**김일성** 동지

그이께 영광을!

-**김일성** 동지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또한 이 노래

감시와 미행의 거리

체포와 학살의 골목들을 박차고

새날을 향해가는

지하투사들의 가슴에서 울리고

또한 이 노래

주림과 질병

배반당한 분노와 상실의 아픔이

마지막 인내성을 시험하는 마당에서도

드팀없는 신조, 변치 않는 의지로

엄숙하게 장엄하게 울리고 울리나니

막지 못하리

멈추지 못하리

철조망으로도

콩크리트담벽으로도

채찍과 올가미

무한궤도와 독가스로도

막지 못하리 멈추게 못하리

억만 심장들이 함께 터치는 이 노래는...

-**김일성** 동지는 태양

우리는 해바라기

해빛만 따르리!

**김일성** 동지는 태양

우리는 백일홍

붉게만 피리!

**김일성** 동지는 태양

우리는 소나무

변치 않으리!

.....

그렇다

지구는 영원히

이 노래를 부르며 돌고 돌리라

하나의 구심점-

태양의 품을 향한 자기의 궤도를

영원히 영원히 벗어나지 않으리라!

# 광장에서 광장으로

림종근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느냐  
얼마나 많은 승리의 광장을 지나왔느냐  
반세기 영광의 로정우에  
자옥자옥 새겨진 위훈이런듯  
찬란한 아침노을 누리에 펼치며  
뜻깊게 밝아온 조선인민군절

백두산기슭-  
영광의 그 봄날처럼  
강산은 설레이고  
감격에 목메이며 기쁨에 눈물짓던  
그날의 그 대원들처럼  
뜨거움에 젖어드는 우리 가슴

주체의 첫 혁명무력  
축복의 손길 높이 드신 수령님 우리려  
땅을 구르며 나아가던 발걸음소리  
밀림을 뒤흔들던 환호성소리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듯...

항일의 총검높이 조국을 향하여  
력사의 그 기슭을 떠난 대오  
얼마나 많은 피의 언덕을 넘어왔느냐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썬을 치자  
쓰러져서도 땅을 차고 일떠서던 심장들  
겹쳐드는 모진 고난 모진 시련  
분노의 퇴성으로 터뜨리며 내닫던 발걸음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으로  
혁명의 발구름 하나로 울리며  
하늘을 덮은 밀림속 몇천만리  
울부짖는 광야의 눈보라속 그 몇천만리  
일제의 포대들을 무너뜨리며 불사르며-

그렇게 세상 누구도 걸어못본 길을 걸어  
그렇게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언덕을 넘어  
왔노라, 우리의 대오 조국땅으로  
왔노라, 항일혁명투사들이 골간이 되어  
정규무력의 열병광장을 떠난 대오  
달려드는 미제의 등허리를 꺾어놓고  
전승의 광장으로 위훈높이 왔어라.

아! 어리신 나이에 혼자 몸으로  
만경대의 작은 프락을 떠나신 수령님

주체의 대오를 무어 이끄시여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크나큰 승리의 광장과 광장을 펼쳐주셨을제  
세계는 얼마나 격동에 넘쳐  
수령님을 우리려 최대의 영광을 드리었던가

탁월한 군사전략으로  
원썬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시고  
한순간의 지략으로  
제국주의아성을 밀뿌리채 뒤흔드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오늘도 반제반미전선의 진두에 서계시는  
위대하신 수령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의 대오는 필승불패이거니

보아라  
그날에 수령님께서 드셨던  
아버님께서 물려받으신 권총에서  
이 땅우에 숲처럼 솟아오른 자위의 총포신  
불타는 락동강과 1211고지에서  
미제를 무자비하게 족치던 복수의 서리발  
오늘은 더더욱 세차게 뿜지 않느냐

그날에 수령님께서 입으셨던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군복빛이  
병사들의 군복색으로 물든 충성의 대오  
원썬놈들의 책동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조국의 하늘 땅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가지 않느냐

피로 찾은 조국, 피로 지킨 땅우에  
설레이는 황금전야 거창한 철의 기지...  
부강한 주체의 우리 조국  
목숨바쳐 천만년 굳건히 지키갈 맹세높이  
조국통일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일당백대오의 도도한 흐름이여

아! 안도의 수림속에서 떠나  
조국광복의 개선광장과  
전승의 광장을 지나온 대오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명령에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로 맞추며  
오늘도 가고있어라, 영광의 력시를 이어  
가고있어라, 조국통일의 광장으로!



## 남녘의 축원

변홍영

한많은 겨레의 설음인양  
해종일 철썩이던 바다도 잠들고  
버섯같은 초막집 창문들에  
고달픈 글이 깃든 남해의 밤

벌써 몇날 몇밤이던가  
불빛이 새어나는 피창을 가리우고  
어머니는 가물거리는 등불앞에서  
이밤도 한자두자 수를 놓는다

파썬의 살풍속에서도  
장군님 그리는 간절한 마음속에  
4월의 봄은 찾아와  
어린 딸은 바늘귀에 실을 꿰고  
아들은 문밖에서 망을 보고

남녘의 밤은 깊어 깊어만 가도  
장군님 받드는  
남해가 한가정의 소박한 지성을  
한뼘 두뼘 수실로 늘이며  
어머니는 등불앞을 뜰줄 모른다

언제면 그리운 만경대고향집에  
엄마랑 오빠랑 함께 갈수 있을까  
눈물이 글썽해서 쳐다보던  
딸애의 그 순진한 꿈도 새겨가고

책가방 한번 메여보는것이 소원이었건만  
어릴적부터 노대를 쥐고 자란 아들  
하루에도 그 몇번 북녘을 우러르는  
뜨거운 그 마음도 함께 수놓아  
어머니 눈가엔 자꾸 이슬이 맺히는것인가

아, 남진해온 인민군전사들이  
마을에 들렸던 먼 소꿉시절  
장군님 초상화를 모시며  
눈물에 젖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밤따라 생생히 되살아오고

어느해 음산한 겨울날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편이  
늘쌍 들려주던 북녘땅 이야기  
장군님만을 믿고 살아가자던  
그 절절한 목소리가  
이밤따라 더더욱 가슴이 울려와서

뜨거움에 젖는 어머니마음

언젠가는 기어이 새날이 와서  
평생에 겪은 억울한 사연을 아뢰이며  
아버이장군님 품에 안길  
이 하나의 믿음으로  
어머니는 곳곳이 살아왔거니

인간의 참되고 아름다운 모든것이  
파썬의 총칼에 흩어지는 남녘땅에서  
빼앗기지도 짓밟히지도 않은 오직 하나  
어머니 가슴에 고이 간직된 이 신념

오로지 장군님만을 따르는  
그처럼 억세고 즐기차고  
그처럼 영원한 인민의 념원을  
하얀 명주필우에  
일흔송이 만경화로 수놓고  
충성의 글발로 새기며  
어머니는 또 한밤을 지새웠구나

아, 푸름한 새벽을 안고 일어서는 남해바다  
4월의 해빛이 흘러드는 피창가에서  
어머니는 정히  
마지막 붉은 실을 꿰고  
아래목 벽우에 명주필을 늘인다

아버지가  
장군님 초상화를 모시던 그날처럼  
남편이  
북녘땅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새벽처럼  
아들과 어린 딸,  
온 남녘의 눈물젖은 눈빛들앞에  
어머니는 소중한 글발을 추켜올린다

아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품어넘치는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것  
가장 깨끗하고 열렬한것  
다함없는 축원의 노래가  
남해가의 한 소박한 초막집에서  
강토우에 울려가고있었다

-위대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이 강산에 메아리치는 격동적인 이야기

-장편소설 《축원》에 대하여-

오승련

장편소설 《축원》(천세봉)은 최근 사회주의현실 주제분야에서 우리 소설문학이 이룩한 성과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작품이 더욱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현실생활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예술의 중요한 특징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주요조건으로 된다.

문학예술은 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그만큼 철저히 반영할 수 있으며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로서의 사명을 더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장편소설 《축원》은 《...찬란한 이 강산, 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믿으시고 그것이 한피줄 한마음 되어 하늘에 치달는 힘을 낳은 이 영광의 시대, 그 시대가 꽃보라를 뿌리는 이 나라 강산》에 높이 올려퍼진 격동적인 이야기이다.

소설은 이 뜨거운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으며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지향과 념원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소설에 힘있게 판통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이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지향과 념원이 작품의 사상 주제적내용을 규정하고있으며 예술적형상의 그 모든 특성을 또한 조건짓고있다.

소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평범하고 소박한 한 농촌 할머니와 그 일가사람들의 생활을 통하여 깊이있고 진실하게 보여준 생동한 예술적화폭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전후 3 개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5개년계획수행의 새로운 전투에 들어서던 역사적시기를 반영하고있다.

이 시기 국제국내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

놓여있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혁명의 배신자들의 책동과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공세는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었으며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공화국복반부를 반대하는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나라의 경제형편도 매우 어려웠다. 자재도 자금도 모든것이 다 모자랐으며 인민생활도 아직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작품은 혁명의 앞길에 시련이 중첩된 이 어려운 시기에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시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다양양을 일으켜나가고도록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가적풍모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깊이 자각한 인간의 힘, 력사발전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굳게 믿으시였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이 깊은 신뢰를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같은 인민들이 있기에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종파들을 모조리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굳은 각오도 생깁니다.》

이름없는 한 농촌할머니에 대한, 우리 전체인민에 대한 이 얼마나 크나큰 신임이시며 끝없는 고무의 말씀이신가.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벅찬 이 크나큰 믿음에 목이 메여 할머니는 다음 말을 더 잊지 못한다.

이것은 실로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만이 베푸실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높은 믿음이시며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간의 힘과 아름다움에 대한 신뢰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힘에 대한 신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이 깊은 믿음을 안으시고 채동식이 일하는 제강소로동계급을 찾으시어 그들에게 나라의 형편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며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나가자고 말씀하신다.

이 믿음의 힘은 크고 위대한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크나큰 믿음을 가슴벅차게 받아안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세인

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이 믿음을 안고 우리 인민은 또다시 새로운 비약의 나라를 펴기 시작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대중에 대한 깊은 신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이 믿음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한 여기에 이 소설의 심오한 철학적깊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인민대중의 힘을 믿으시고 인민대중을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뜨겁게 안아주시었다.

해방된 이듬해 아직 음달진데는 땅도 녹지 않은 이른봄 풍덩마을 앞 은하강가 개담공사장에 친히 나오시여 담배도 권하시며 이고장농민들과 농사형편도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땅의 주인된 자각과 힘과 신심을 안겨주시는 젊으신 장군님, 둘째 손가락 하나가 없는 그의 손잔등을 다심히 쓸어주시며 끝없는 동정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장군님을 모신 장면을 비롯하여 참으로 한씨일가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은 얼마나 감명깊고 뜨겁게 안겨오는 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씨일가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은 부상으로 실명한 정학이에게 광명을 안겨주시고 하늘의 매가 되어 자유로이 날을 수 있도록 푸른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통하여 특히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빛을 안고 정학이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하늘높이 날아올랐을 때 땅에서 하늘에서 목메여 흐느끼는 한씨일가사람들의 모습은 그대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에 안겨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모습 그대로였다.

소설은 실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은정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이며 하늘땅 끝까지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따르고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축원의 노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모두에게 베풀어주시는 이처럼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우리 인민은 억년 변심없는 충성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하늘에 치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니 이 위대한 생활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밝힌 여기에 소설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가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장편소설 《축원》이 이룩한 다른 하나의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있는 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과 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있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학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생명도, 청춘도 기꺼이 바치는 새형의 인간, 주체형의 새로운 인간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그 모든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와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충성심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히는 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문학을 주체의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생활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함으로써만 우리 시대의 새 인간의 성격을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소설은 주인공 한씨와 그 일가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변심없는 충성심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이 원칙적 요구를 훌륭히 관철하고 있다.

《(…이 에미도 그렇고 우리 은 집안이 그 뜻을 위하여 살고 그 뜻을 위하여 죽어야 하지 않겠니. 아니 명줄이 떨어진 뒤 혼이 되어서라도 우리 장군님, 은혜가 막중한 우리 장군님을 높이 높이 모셔야 하지 않겠니.)》

지금은 곁에 없는 맏아들 무학의 유언을 되새기며 속다짐하는 한씨의 이 내면독백은 절절하고 의미심장하게 울리고 있다.

한씨일가사람들은 이 불같은 지향과 간절한 소원, 《명줄이 떨어진 뒤 혼이 되어서라도 우리 장군님, 은혜가 막중한 우리 장군님을 높이 높이 모셔야》 한다는 이 하나의 신념과 의지, 념원만을 안고 살며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는 그것이였으며 그들은 이 변심없는 충성의 한길에서 삶의 모든 의미와 보람을 찾았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의 존토를 지키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며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 한발자욱

도 헛디디지 말라는 간절한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은 맏아들 무학, 그 아들의 깊은 말뜻을 가슴에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바드는데서 한치의 드림도 없는 한씨와 맏며느리 조봉애, 둘째 아들 정확과 그의 안해 연순이 등의 형상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티없이 순결하고 변심없는 충성심이 진실하고 깊이있게 일반화되어있다.

소설의 중심사상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데서 한 중녀의 형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씨는 소박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농촌의 한 할머니이다.

아들을 두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를 본 할머니, 그들의 신상과 마을일에 언제나 다심한 눈길을 돌리는 인정많은 할머니 그리고 맏아들을 먼저 보내고 죄많은 어머니의 슬픔에 잠기기도 하는 할머니, 그러나 이 늙은 녀인의 가슴속깊이에 소중히 간직된 그 충성심은 얼마나 순결하고 드림없는것인가.

자나 깨나 한씨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잡은 생각은 수령님의 이 대해같은 사랑에 대한 그지없는 고마움이었으며 하늘아래 한분밖에 안계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만년장수하시기를 바라는 축원의 감정이었다.

할머니는 진정 위대한 수령님 한분밖에는 그 누구도 몰랐으며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세상끝까지 따르려는 그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의지로 살며 일하였다.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한씨의 그 티없이 밝고 순결한 충성심은 선거날 새벽 서늘한 안개의 포말이 밀리는 속에서 활활 비질을 하며 길바닥을 쓰는 장면에서 감동적으로 그려지고있다.

한씨는 경건한 마음으로 길바닥을 쓴다.

얼마 아니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나가실 큰 길이었다.

그 길우에 돌맹이 하나 짚검불 하나 깔려있을세라 한씨는 하얀옷을 차려입고 나와 비질을 했다. 할머니는 큰길우에 비단을 깔고 옥돌을 쪼아 깔고 무늬를 돌치고싶은 심정이었다.

이 하늘아래 한분밖에 안계시는 우리 수령님, 그 수령님 계시기에 내가 있고 내 가솔이 있고 온 백성이 있는 우리 수령님의 안녕에 길이길이 축원을 보내는 마음으로 한씨는 활활 비질을 했다.

한씨는 살아온 반생과 무궁할 앞날에 대한 소원을 신천하고 성스리운 이 력사의 아침에 심장깊이 젖어드는 충격으로 축원하면서 은하저수지 쪽 언덕까지 생각깊이 올려쉴고 다시 돌아서 무지개벌쪽으로 내리쉴었다.

그것은 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깨닫고 생활을 통하여 억척같이 다져진 그의 순결하기 그지없

는 절절한 녀원의 발현이었으며 오랜 세월의 대하같은 흐름속에서 뼈속깊이 통감한 심장의 기원이었으며 삶의 신조, 굽힐수 없는 신념의 표시였다.

이 절절한 축원과 녀원을 안고 살며 일하는 한씨이기에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10 년만에 다시 만나뵈옵게 되는 그 뜻깊은 마당에서 끝없는 기쁨과 걱정을 이시지 못하여 그이께 삼가 이렇게 말씀올리는것이였다.

《수령님, 안색이 몹시 축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놈들은 인민생활이 어렵다 어떻다 하지만 인제 우리는 다 잘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쏠아치는걸 우리가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렴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두손길 받들어 지지합니다.》

이 장면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르며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을 최대의 영광,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인민의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충성심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일반화의 진실한 화폭이며 빛나는 모범이며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예술적확인이다.

소설은 한씨의 가슴속깊이에 간직된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그의 성격의 소박성, 순박성과의 대조속에서 예술적으로 힘있게 강조하면서 한 수수한 농촌할머니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집행에서 나타내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또한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만져진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주체형의 인간들이 지닌 충실성을 실천활동과정에서 보여주는것은 성격의 생동성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으로도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사람들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만 그들의 가슴속깊이에 소중히 간직된 그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재현할 수 있으며 성격의 추상성을 극복할수 있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옹호자, 관철자로서의 한씨의 성격은 그가 당의 축산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수령님께서 하라는 일이야 기를 쓰고라도 해내야지, 그걸 못해내서야 백성의 도리가 되겠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한씨의 립장과 태도는 바로 이러하다.

한씨는 이 확고부동하고 견결한 립장과 각오 밑에 무지개벌에서 농사도 짓고 돼지도 기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나간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당 축산정책을 음으로 양으로 반대하는 박진, 허승재 등 종파나부랭이들에 대한 한씨의 태도는 얼마나 철저하고 견결하며 또한 단호한것인가.

이 확고부동하고 명백하고 철저한 립장과 각오를 가지고 할머니는 놈들의 시비와 모해에 일시의기저상해하는 맘머느리 조봉애에게 힘과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며 그를 다시금 일으켜세운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투쟁하는 주인공 한씨의 모습은 또한 대오에서 떨어져 사는 둘째아들 정학에게 라지오를 사다 안겨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훌륭히 그려지고있다.

들끓는 현실생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외로이 지내는 아들에게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알려주고 사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이처럼 마음을 쓰는 어머니 한씨의 형상은 참으로 친근하고 다정하게 안겨온다.

작품은 이밖에 둘째며느리가 될 연순이, 명랑하고 유쾌한 사양공처녀 옥별이, 채동식 등 다양한 인간성격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살며 일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는것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주요특징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추원》은 생활을 다양하고 진실하게 그리어 작품의 중자를 훌륭히 꽃피움으로써 형상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소설의 허두에 펼쳐지는 아침풍경, 멀리에 안개 같기도 하고 구름같기도 한것이 질게 덮여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그 계선도 알수 없게 장막을 두른 대지, 큰벌이 둔중하게 누워 해뜨기를 기다리는 한쪽의 아름다운 수채화같은 자연풍경에서조차 농촌생활의 정서와 색깔이 얼마나 선명하게 흐르고있는가.

농민들에게는 그들에게 고유한 생활이 있고 농촌생활은 다른 생활과 구별되는 자기의 독특한 색깔과 룰동이 있다.

소설에 펼쳐지는 화폭들에는 그대로 흙냄새가 풍기고 농촌에 고유한 그 생활의 진이 흐르고있다.

그것은 주인공들의 옷매무시와 말투에서도 느껴지며 인상적인 농촌생활의 생동한 세부들에서도 뚜렷이 감촉된다.

농촌생활의 이 정서와 색깔이 이 작품의 독특한 양상을 규정하면서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아울러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생활을 그리는데서 소설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인간관계의 설정으로 생활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그리고있는것이다.

작품에는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이고장농민들의 투쟁을 보여주는 생활을 비롯하여 한씨일가의 가정세태적인 생활, 번덕스럽고 순박한 농촌아낙네들과 이악하고 명랑한 농촌처녀들의 발랄한 생활 등 다양한 생활이 그려지고있다.

소설은 이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그만큼 다면적으로 생동하게 드러내고있으며 예술적형상의 풍만성을 보장하고있다.

작품에서 남편 없이 외로운 몸으로 조합의 큰일을 맡아 일해나가는 맘머느리에 대해 시어머니로서 다심하게 마음을 쓰는 한씨와 며느리는 머느리대로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하는 강의하고 부드러운 조봉애 등의 형상은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소설은 주인공 한씨와 그 일가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애뜻하고 깨끗한 인정선을 섬세하고 진실하게 그리면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성의 한길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성격적미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주인공들의 이러한 성격적미는 또한 논두렁에서 서로 만나 연순이가 풀을 쥐어뜯는 조봉애의 손을 꼭 붙잡고 어제날 약한 마음으로 축산반을 떠났던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재터 집 한씨일가와 운명을 같이할 자기의 속심을 만동서될 조봉애에게 절절하게 토설하는 장면에서 훌륭히 나타나고있다.

소설에서 정학이와 연순이의 애정관계도 진실하고 감동적이다.

연순을 사랑하나 불구의 몸이 된 자기의 처지로 하여 그것을 나타낼수 없었던 정학의 고민은 컸다.

한편 연순은 연순이대로 정학의 이 오해로 하여 안타까와하고 피로운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작품은 정학이와 연순의 깨끗한 애정세계에 의하여 탄주된 심리적과동을 그 미묘하고 복잡한 움직임속에서 섬세하게 그림으로써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새로운 혁명적애정률리문제를 진실하게 해명하고있다.

두덜거리며 따라오는 표중희와 그 남편때문에



가슴을 태우는 그의 안해, 완고하고 리해타산에 밝은 채풍헌로인 등의 성격도 그들의 고유한 생활로 하여 매우 생동하다.

너성관리위원장인 조봉애의 밑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한다는 《불만》으로 공연히 트집을 잡고 두들거리며 엇서나가던 표중희가 자기 안해의 해산을 계기로 개심하는 장면은 우리 나라 농민들의 흥겹고 즐거운 생활에 대한 생동한 반영이며 생활긍정적인 기백과 유쾌하고 맑은 해학으로 채색된 생활의 한 단면으로 된다.

생활묘사에서 소설이 보여준 다른 하나의 특징은 새것과 낡은것, 진보적인것과 뒤떨어진것, 혁명적인것과 반혁명적인것 간의 투쟁을 진실하게 그리고있는것이다.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에서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작품에서 생활을 그린다는것은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을 반영하면서 생활발전의 이 합법칙적과정을 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장편소설 《축원》은 생활묘사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를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낡은것이 새것에 의하여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주인공 한씨일가사람들과 종파나부랭이들인 박진, 허승재 등 인간추물들과의 심각한 투쟁속에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 축산정책을 반대하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은 교활하고 음흉하고 악랄하다.

놈들은 때로는 농민들의 생활을 위하는듯이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료문제, 로력문제 등으로 무지개벌에서 축산이 불합리하며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는다 이것만이 아니다.

놈들은 관리위원장 조봉애를 비롯하여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발벗고나선 이고장농민들을 위협도 하고 혁명초소에서 때려내려고 책동을 하며 종곡과 비료 공급을 못하도록 하는 등 온갖 죄악적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 농민들의 음식을 뒤꼍방에서 얻어먹는가 하면 건달군이며 시라소니같은 자기의 조카 약혼문제를 들고 돌아치는 박진, 허승재의 행동거지와 물결은 또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것인가.

생활은 드디어 이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쓰레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놈들은 한씨일가사람들과 이고장농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적발폭로된다.

이리하여 소설은 우리 당 축산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한 진실한 화폭으로 된 동시에 우리 당정책을 시비하고 증상하는 온갖 반당반혁명분자들의 파멸을 선고하는 준엄한 론거장으로 되었다.

소설에 힘있게 흐르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열정과 송가적기백,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대한 걱정은 작품의 독특한 언어문체의 특성을 또한 규정하고있다.

작품에서 언어문체의 이러한 특성은 무엇보다 그 정론성에서 나타난다.

《아! 밤이나 낮이나 쉬임없이 민족의 행복을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 그 끝없는 심리와 로고를 가슴뜨거운 눈물로 통감할 줄 아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하나로 된 혈맥, 하나로 엉킨 혈육, 아 그러기에 지금 하늘에서 땅에서 흘러는 눈물은 민족의 랑만을 비껴내는 티없이 맑고 순결한 마음들의 구슬바다가 아니겠는가!》

이 얼마나 격조높은 정론적기백이며 열정인가! 형상전반에 관통하는 이 정론적 기백과 열정은 소설에서 작가의 주장과 주인공의 사상감정이 하나로 융합되어 독특한 언어문체적효과를 나타내고있다.

이리하여 소설의 많은 장면들에서 우리는 작가의 지문이 주인공들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며 작가의 시점이 등장인물들의 시점과 완전히 일치되어있는것을 본다.

객관적인 묘사와 작가의 수정토로의 이러한 결합은 그만큼 소설의 중심사상을 천명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면서 작품의 전투성과 호소성을 강화하고있다.

소설의 언어문체의 특성은 또한 정론성과 함께 감미롭고 부드러운 서정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소설에서 특히 아름다운 농촌의 정경묘사에서,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이리하여 소설에서는 농촌생활의 아름다운 화폭들이 서정시와 같이 펼쳐지기도 하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의 정신세계가 숨엄한 음조를 타고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전달되기도 하는것이다.

이밖에 소설은 농민들의 고유한 생활언어, 그들의 언어생활에서 굳어진 말투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형상의 진실성, 생동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장편소설 《축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축원의 노래를 충성심을 담아 격조높이 노래한 우리 시대의 송가이다.

소설은 심오하고 풍부한 정치사상적내용과 높은 형상성으로 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 15. 충성심과 량심

사람에게 있어서 량심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예로부터 일러왔다. 그 거울속에 사람의 한생이 비쳐지고 그것은 지울수 없는 발자취마냥 오래오래 남아 하많은 이야기를 하여주고있다. 슬픔도 기쁨도 영광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인간의 량심을 떠나서 발현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충성심을 량심이라고 말할수 있다.

늦은 가을이 오면 나무아지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람의 운명에도 최후의 시각은 있는 법이다.

만약 잎떨어진 아지에 새 숨결을 안고 망울을 터칠 꽃순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말없이 키우고 가꾼 푸른 잎의 숨은 한시절을 생각할수 있으랴.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충성을 바치고 간 발자취가 없다면 그 인간의 운명은 숙절없는것으로 되고말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량심은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 꽃순과도 같으며 자기는 사라져도 죽지않는 삶으로 이 땅에 영원히 남기고 가는 미소와도 같다. 그 미소가 아름다와야 최후의 시각도 아름답다!

### 죽음을 모르는 사람과의 상봉

사리원은 평양에서 지척이다. 그런데 한 작가의 기적적인 창작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은 지척인 사리원도 천리길처럼 멀어만 보였다.

달리는 차창가에 풍년든 가을들판이 영화의 화면처럼 비껴드는데 하면 작가 윤시철의 긴장한 창작모습이 안겨오기도 한다.

지난 9 월에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고 신고하고있는 그는 남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최후의 창작전투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시대, 혁명하는 시대의 문예전사답게 긴장하게 생활하며 창작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보통 때에는 별로 말이 없던 그가 지금은 모진

병마와 고통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글을 쓰고있을 것인가!

그는 지금 장편소설 《태양의 아들》 제 2 부를 창작하고있다.

우리는 사리원역에서 내려 작가가 집필하고있는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해빛이 흘러드는 창가... 조용히 누워있는 작가의 모습...

두눈을 감고있으나 그는 무엇인가 쉬임없이 불러주고있었다. 그옆에서 웬 녀인이 앉아 작가가 말하고있는 내용을 원고지우에 옮기고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면서 알게 되였지만 그녀인은 개성에서 불려온 작가의 며느리였다.

붓을 들고 창작을 할수 없게 된 작가를 도우려고 군대에서 제대된 딸은 물론 어느 연구소에서 일하고있는 맏아들까지 달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작품을 끝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작가의 불타는 일념을 실현시켜주기 위하여 온 가족이 펼쳐나서서 방조하고있었다.

며느리가 받아쓰다 지치면 딸이 교대하여 붓을 쥐고 그마저 피곤에 빠지면 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그래도 작가 윤시철만은 지칠줄을 몰랐다. 아니 지칠줄을 모른다기보다 그의 심장은 이미 죽음을 초월하고있었다.

한 작가의 평범한 심장속에 어떻게 되어 이처럼 죽음도 초월하는 강毅한 힘과 열정의 불길이 타올라수 있었겠는가?

작가 윤시철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서야 비로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게 된 사람이다.

일제의 칼부림밑에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마저 빼앗긴채 울분속에 살아오던 그를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작가로 키워주시였으며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살아생전에 못다갚은 은혜를 죽어서도 어이 잊으랴!

작가의 가슴속에 신념으로 굳어진 이 혁명적의리가 열정의 나래가 되고 강철의 의지가 되어 죽음도 딛고 일어서게 하였다.

우리가 온것을 알고 감았던 두눈을 슬며시 뜬 작가의 얼굴에는 반가운 기색이 순간의 불빛처럼

스쳐지나갔다.

《반갑소, 어서 오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한 인사말이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옆에 와앉으라고 하였다.

작가의 이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의 눈시울은 자기도모르게 뜨거워졌다.

어떤 한 시인은 자기의 머리에 백발이 없히고 청춘의 나날이 아득히 흘러간 추억속에서만 되살아오는 그 시절에 심장에 불을 켜고 열정의 붓을 더 세게 틀어쥐었다.

그런데 작가 윤시철에게는 심장에 불을 켜야 할 창작의 원숙기에 뜻하지 않게 죽음의 더 먼저 그를 위협하고있지 않는가!

열정의 불을 켜야 할 심장은 시시각각으로 맥박을 늦추고 붓을 들어야 할 손엔 온기가 식고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작가적신념만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의 곁에 가서 앉자 작가는 계속하여 소설의 내용을 불러주기 시작하였다.

상봉의 기쁨, 하고싶은 말인들 얼마나 많으랴! 평양소식은 물론 오랜 세월 같이 창작생활을 하여온 벗들의 이야기도 무척 듣고싶었을것이다.

하나 작가에게 있어서 그 모든것보다 이 순간의 한초한초가 전생애를 바쳐 창작하여온 그 나날들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였다.

이 순간에 고통을 이겨내면서 사색하고 불러내는 작은 생활세부 하나도 그의 깨끗한 량심과 강철같은 의지만이 창조해낼수 있는것들이였다.

우리는 작가와 한마디의 말도 따뜻이 나눌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소설의 내용을 불러주는 그의 지칠줄 모르는 목소리를 들으며 최후의 시각에 품고있는 간절한 소망과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온몸으로 감수할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탈고한 3천 700매의 원고를 이렇게 지금 계속 추고하고있습니다. 이제 500매가 남았는데 그것마저 제손으로 꼭 추고하고야말겠답니다!》

옆에 같이 앉아있던 작가의 말아들이 젖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500 매-이것은 결코 많은 량이 아니다. 그러나 작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기의 뚫는 피 방울방울 찍어 써낸 순결한 녀의 한부분과 같은것이며 만약 여기에 한점의 티라도 남겨두고 간다면 그의 량심은 혁명앞에 뒤흔치 못한것이다.

죽음을 눈앞에둔 순간에도 작가의 량심은 시들지 말아야 하며 자기가 쓰는 한자한자가 혁명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져야한다.

우리는 작가 윤시철에게서 이것을 보았다.

마지막 한매의 원고까지 량심의 거울에 비쳐보고 나무랄데없이 다듬어 당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 불타는 지향!

시시각각으로 온몸의 기능이 마비되고 모든 세포가 파괴를 가져오는 참을수 없는 고통속에서도 작가의 죽지 않는 삶은 이렇게 태양의 아들의 높뛰는 숨결속에 다시 태어나고있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과의 상봉!

이것은 작가가 자기의 뚫는 피를 바쳐 우리에게 남기고있는 충성과 열정의 산아인 태양의 아들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 소원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다.

그것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청춘시절의 크나큰 포부속에 깃들어 아름다운 희망의 나라가 되어 머나먼 앞날에로 이끌어주는가 하면 시련속에서는 세찬 불길로도 타오르는것이다.

작가 윤시철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보통날에는 별로 크게 눈에 띄지 않던 이 열망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인간의 총체를 보여주며 강렬하게 빛을 뿜는것이다.

우리는 작가의 긴장한 창작과정을 주시하면서 그가 가슴속에 품고있는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원고지우에 한자한자 피어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었다.

불려준 내용을 들어보고 그 대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초가 새로운 정황이지만 수정을 다시 했고 소설에 나오는 백두광야의 그 많은 지명들도 하나하나 정확히 대조하고야 넘어갔다.

이러한 작가를 보며 안타까와하던 그의 아들은 물론 머느리와 편집원까지도 그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물으면 《내 량심이 그걸 허락치 않누만!》하고 대답하곤하였다.

자기 한몸은 비록 사라져가지만 그 자취우에는 망울을 터치는 꽃순과도 같이 얼마나 깨끗한 인간의 량심이 수놓아지고있는것인가.

그는 농촌에 현지체험을 나가 남의 집 옷방에서 글을 쓰기도 했고 대학교단에 서서 후대들을 가르치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었다.

어디에서 무슨 글을 썼건 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늘 하고싶던 말은 량심이 맑아야 당에 바치는 충성에도 티가 없으며 최후의 시각에 짓는 미소가 아름다울수 있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작가였기에 그가 옆에 앉아있는 편집원

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하는 말이 더 세차게 우리의 가슴을 울려놓았다.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리지 못할가봐 안타깝소… 이 소설을 꼭 올리고 가는것이 네 소원이요!》

길지 않은 이 말속에 작가의 한생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창작과업을 목숨이 지는 마지막날까지 철저히 수행하고 그 기쁨과 영광속에 눈을 감고싶은것이 작가 윤시철의 소원이었다.

대학의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는 작가의 사명에 대해 말해주면서 생의 목적은 당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고 가겠는가 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늘 깨우쳐주지 않았던가!

얼핏 들으면 다 아는 소리를 하는것 같지만 그 진리를 목숨으로 담보하기는 험치 않다.

문학이 공산주의인간학인것만큼 작가자신의 한생도 혁명가의 높이에서 살것을 요구한다.

보통사람들과 다름없는 작가의 생활속에서 것처럼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올리기 위해서는 한순간이 아니라 한생이 필요하다.

우리는 작가 윤시철의 깨끗한 량심과 마지막으로 그가 품고있는 간절한 소원속에서 당을 위해 바쳐온 불타는 충성심의 자욱자욱을 엿볼수가 있었다.

하루해가 저물어 우리가 그와 헤어지려고 할 때 작가는 다시금 자기의 소원이자 결심을 명백히 말하였다.

《12월 23일까지는 추고를 다 끝내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 그후 이야기

우리가 이처럼 초조한 마음을 안고 소식을 기다리던 그날이었다.

바로 그날인 12월 23일 새벽 3시에 그는 눈을 감았던것이다.

《십리평… 십리평》

그가 몽롱해지는 의식속에서도 계속 부르고 또 부르다가 간 최후의 말은 이것이었다.

순임이가 구출되는 이 대목을 추고하고도 마음

이 놓이지 않아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되새겨보고 고친 다음 또다시 그 내용을 불러주다가 조용히 잠들어버렸다.

작가 윤시철은 자기 창작생활의 마지막장을 이렇게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숨결로 덮어버렸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작가의 최후를 보고 받고 그의 령전에 제상을 차려주도록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었으며 채 완성하지 못한 원고(《태양의 아들》 3부)는 다른 작가들이 마저 창작하여 출판할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귀중한 선물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도록 했으며 가족들에게는 련사증을 수여하도록 하늘과 땅에도 비기지 못할 사랑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어제날 나라없는 설움에 울고 식민지지식인의 쓰디쓴 운명을 안은채 모멸에 찬 가시밭길을 헤쳐오면서 속절없이 지는 청춘을 타하던 그가 당의 품에 안겨 빛나는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았을뿐 아니라 죽어서도 누리는 영광을 두고 사람들은 소리없이 흐느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품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햇빛이 없는 차디찬 땅위에 한송이 꽃도 반응이 없이 묻혔을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고 영광스러운 당이 있기에 이름없는 한 작가의 운명도 이렇게 영생하는 삶을 안고 빛을 뿌리고있지 않는가!

해빛을 떠나 대지에 뿌리를 내릴수 없는 삶이었기에 당을 떠나 한시도 살수 없던 작가의 한생이었다.

이렇게 거목으로 자라오른 우리 문학의 무성한 가지들 가운데서 하나의 푸른 잎이 지었다.

그러나 당에 바친 불타는 충성심과 순결한 그의 량심은 망울을 터치는 꽃순과 같이 우리의 생활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자기 한몸은 비록 사라져도 작가적량심만은 죽지 않는 삶으로 이 땅에 그토록 아름답게 피우고 갖기에 그가 맞은 최후의 시각도 이처럼 눈물겹도록 아름다웠다!

그는 태양의 아들과 함께 영생할것이다!

본사기자 홍현양